새로운 예술의 해
THE YEAR OF NEW ARTS
행정간행물 발간등록번호 28118-86600-74-07

ISSN 1011-2073

도서관

제 55권 제3호 (통권 제 356호)

조형진 書誌學과 文獻情報學의 學問的 課題와 그 發展方向

이란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에 관한 연구

조찬식 · 노승희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지역간 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중심으로-

〈자료〉
Alan Hopkinson 著 김영귀 譯 MARC는 아직 죽지 않았다

ACRL College Libraries Section Standards Committee 著 · 심상순 譯 미국 대학도서관을 위한 기준, 2000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著 · 이숙현 譯 전자출판물과 법적납본

2000 가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제55권 제3호 (통권 제356호) 2000년 가을

目 次

書誌學과 文獻情報學의 學問的 課題와 그 發展方向 / 조형진 3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에 관한 연구 / 이란주 24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지역간 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 / 조찬식 · 노승희 41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중심으로 - / 이연옥 67

<자 료>

MARC는 아직 죽지 않았다 / Alan Hopkinson 著 · 김영귀 譯 118

미국 대학도서관을 위한 기준, 2000 /
ACRL College Libraries Section Standards Committee 著 · 심상순 譯 133

전자출판물과 법적납본 /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著 · 이숙현 譯 148

편찬위원장 : 이경구
편찬위원 : 곽동철 · 권재윤 · 김승환 · 박종근 · 성기주 · 신인용 · 이귀원 · 이숙현 · 이치주

DOSEOGWAN

Vol. 55 No. 3 (356) 2000 Autumn

Contents

Scientific tasks and future directions for bibliography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Cho, Hyung-jin *3*

A study on data mining / Lee, Lan-ju *24*

A study on the cultural program of public libraries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Cho, Chan-sik · Roh, Seung-hee *41*

A study on the history of public library movement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1960s and 1970s / Lee, Yeon-ok *67*

<References>
Traditional communication formats : MARC is far from dead / Alan Hopkinson tr. by Kim, Young-kuy *118*

Standard for college libraries : the final version, approved January 2000 / ACRL College Libraries Section Standards Committee tr. by Shim, Sang-soon *133*

The legal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tr. by Lee, Sook-hyeun *148*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書誌學과 文獻情報學의 學問的 課題와 그 發展方向[1)]

曺 炯 鎭*

<목 차>

<Abstract>
1. 緖論
2. 硏究陣과 敎科課程의 萎縮
  2. 1. 硏究陣
  2. 2. 敎科課程
3. 國際的 硏究動向에의 無關心
  3. 1. 外國의 硏究內容 把握
  3. 2. 硏究成果의 國際的 發表
4. 硏究態度와 硏究方法의 錯覺
  4. 1. 硏究態度
  4. 2. 硏究方法
5.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A scientific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current problems in the fields of bibliography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 How would we restore abnormal phenomena that may occur as a consequence of reduction or discontinuation of courses in the areas of bibliography? First of all, we need to appoint a new faculty member in the place of retiring professors.

2) For the sake of sound development of academic program, we need to develop balanced programs with scholastic conscience and venture into new research fields.

3) W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and make efforts to promote our research outcomes to the international academic society.

---

1) 이 논문은 2000. 7. 6. 경주에서 열린 문헌정보학 4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 강남대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4) We need to take immediate actions for normalizing current problems caused by departmental name change.

5) We need to maintain high scholatic standards in research attitudes and methodology, and should not compromise between science and politics.

6) We need to conduct both literature research and experimental research simultaneously, in the arena of material civilization.

1. 緖 論

한국의 서지학계는 최근 1세대 교수가 모두 정년하면서 세대교체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젊은 연구자는 학문활동의 책임을 안게 되었고, 학회의 정책을 스스로 추진하여야 하는 홀로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자주적으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환경이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굴레에서 벗어나기라도 한 듯이 간혹은 학문적 자세와 원칙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하지도 못하며, 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는 학문적 자세를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서지학계도 비학문적으로 물들어 가는 현상으로, 문헌정보학 전체를 볼 때 진정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지학 전공 연구진의 수적 부족은 서지학도의 배양과 연구지도가 전문화되지 못하고, 타 전공과 주종관계로 보일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학문의 연구수준과 연구자세 및 연구방법까지도 정상적으로 연마되지 못하고 있다. 서지학이 문헌정보학의 기본 영역임을 감안하면, 이는 문헌정보학을 위하여도 서지학을 위하여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최근 서지학 영역 내 몇몇 주제의 국제적인 논쟁과정에서 다소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보인다. 상대의 최근연구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학술적인 문제가 개인감정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하고, 학문활동이 정책에 의하여 변질되기도 한다. 우리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외국의 학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이는 학문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뿐만아니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점들이다.

본 고는 이점에 착안하여 서지학, 더 나아가 문헌정보학 영역 내에 존재하는 연구환경과 연구과제는 물론 문헌정보학 외부세력과의 마찰 등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일별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하여 그 과정에서 학문과 정책을

혼돈하는 등 연구태도와 연구방법에 문제는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가를 새로이 인식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외부세력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적 논쟁 역시 그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고는 학문적 검토를 위하여 개인적 감정은 완전히 배제하였다. 월급쟁이 교수가 아니라 학문하는 연구자의 순수한 관점에 철저히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필자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를 냉정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이렇게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문헌정보학도와 문헌정보학이 한걸음 도약하기 위한 대동단결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픔이 있다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아낌없는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

2. 硏究陣과 敎科課程의 萎縮

2. 1. 硏究陣

우리나라에는 현재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가 4년제 대학에 32개소, 2년제 대학에 8개소가 있다. 이 40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수는 모두 178명이다. 이 중 서지학 영역의 교수는 모두 29명으로 16.29%를 차지한다.[2] 문헌정보학의 영역을 자료조직・서지학・정보학으로 구분하는 현실과 각 영역의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한 학과에 교수 수가 평균 4.45명임에 비하여 서지학 영역의 교수는 0.72명인 셈이니, 이는 우리나라의 서지학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너무나도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연구진의 수적 부족은 자연히 학문적 수준의 저하로 나타난다. 서지학 교과목의 담당자가 강사로 대체되기도 하고, 아예 교과목 자체가 폐강되기도 한다. 후학의 논문지도 상에도 문제가 나타난다. 서지학 전공 교수가 지도하여도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료조직이나 정보학 전공교수가 서지학 박사학위 논문[3]을 지도하기도 한다. 서지학을 전공하려는 학도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배려한

---

2)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편. 전국대학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문헌정보과교수 주소록. 1999. 9.

3) 1. 金順姬. 說文解字翼徵에 관한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2.
2.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考證에 의한 木版印刷術의 起源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8.
3. 李魯國. 南秉哲・南秉吉의 天文關係 書籍에 관한 書誌學的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2.

점은 고맙기는하나, 이는 학문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정한 도움은 학문적 내용과 함께 학문적 방법과 연구의 자세를 길러주는 데에 있음을 인식하여 정상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위취득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학문적 희생을 치러야한다면 이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도과정에서 전공자에게 실질지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일부 심사위원을 전공자로 위촉하기도 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책임성과 전문성의 강도차이로 인하여 지도와 심사의 내용과 수준이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결국은 학위논문의 내용적 문제점과 함께 학위의 권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서지학은 문헌정보학의 기본에 위치한 학문이며, 입문을 위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학문적 배경을 필요로 하는 전문영역[4]이다. 전임교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만큼 간단한 영역이 결코 아니며, 타 전공에 종속될만큼 가벼운 학문이 아니다. 따라서 작금에 문헌정보학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지학에 대한 대우는 그것이 비록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서지학의 위상을 송두리째 망각한 처사며 학문적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시키는 죄를 부지불식 간에 범하고 있는 행위다.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전임교수라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학문의 내용과 연구자세 등을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 입문자에게는 책임있는 지도가 필수적이다. 더나아가 입문과정에 있는 초학자의 학문에서부터 생활지도까지 수시로 이루어질 때 사제관계가 형성되면서 학문이 승계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임교수의 존재여부는 학문적 발달은 물론이요 입문자의 인생관에까지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여 해당 영역을 전공한 외부교수를 지도교수나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차선책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실은 이러한 방안을 찾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그저 편하게 처리하는 듯한 인상을 씻을 수 없다.

교수는 학자요 학자는 양심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기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신임을 받는다. 그런데 학위논문을 지도하거나 심사할 때, 전공영역을 초월하여 지도나 심사를 수락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 온당한 처신인가? '나는 그 분야를 잘알지 못하므로 학자적 양심으로 심사위원을 사양한다.'고 소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 이는 오히려 양심있고 용기있는 교수가 아니겠는가!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전공자를 지도교수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국립대만대학의 경우,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자 5인이 모두 해당 영

4) 沈喁俊. 書誌學의 諸問題. 서울, 혜진서관, 1995. p. 27-34·37-41. 이 연구는 학과명칭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교과과정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어서 서지학의 전문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역의 전공자로 구성되며 심사자의 소속기관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부득이할 경우 행정업무상 학과장이 참여하고 있다.[5)]

피심사자는 자기가 심혈을 다하여 자신있게 완성한 논문이라면 심사다운 심사를 받기를 원할 것이요, 그러기 위하여 권위있는 심사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 결과물도 역시 자신의 홍보를 위하여 기꺼이 배포할 것이다. 비전공자에게 심사받는다는 것은 피심사자 스스로 자기 논문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다. 또한 수준미달의 논문으로 학위를 받으려니까 피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자신있게 개진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자기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학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며 학문적 퇴보를 야기하는 우를 범하는 행위다. 그러한 학위는 잠시 반납하고 보완한 후에 전공자에 의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문제점을 추적하다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학문연구 영역에서 연구자의 수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실감한다. 연구의 근거와 문제해결의 논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공과 관련된 방계영역의 도움이 필요하곤 한다. 그런데 관련 영역의 연구자가 없어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득이 자신의 연구를 위하여 방계영역까지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연구의 진도는 늦어지고 결과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일쑤다. 이는 특히 학제적 연구주제에서 농후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문적 수준 제고와 종합적 완성을 위하여 각 영역에 정통한 연구인력을 배양하는 일은 자못 시급하다. 서지학은 과거연구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서지학은 또 전문영역인만큼 연구를 위하여 몰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학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너도나도 다 연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은 반드시 정통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연구자세도 철저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의 연구자야말로 서지학을 위하여 필요한 인물이다. 즉 인재는 배양하되 철저한 학문적 인재여야 한다.

2. 2. 敎科課程

학문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교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갖추어야 할 교육의 기본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문헌정보학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

5) 曹炯鎭. 中韓兩國古活字印刷技術之比較硏究. 國立臺灣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碩士學位論文. 1986. 1. 지도교수 昌彼得(國立故宮博物院), 심사위원 喬衍琯(國立政治大學)・吳哲夫(國立故宮博物院)・潘美月(國立臺灣大學)・胡述兆(國立臺灣大學, 학과장).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점에서 서지학은 문헌정보학 영역 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서지학 영역이 전무하다시피 한 대학이 있다. 사회적 변화추세, 이용자료의 성격, 피교육자의 선호도 등에 관계없이 학문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물론 각 대학마다 교과과정이 모두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강조하는 영역이 각각 달라서 특색을 갖추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러나 학문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강조와 중점 이전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에 특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더욱이 서지학의 연구대상인 고문헌 자료는 문화상의 역할·정보의 가치 등에서 현대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관을 고취하거나 민족정기를 앙양하기 위하여도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지학이 소외되는 현실은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관념은 마치 우리 것을 버리고 외국 것을 모방하여야 행세할 수 있다거나 대화 중에 외국어를 적당히 섞어서 해야 그럴듯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지극히 위험한 노예적 발상이다. 우선은 자기 문화를 지키고 충실히한 연후에 외국 것을 받아들여 소화함으로써 나의 것을 살찌워야 한다. 과거 김영삼 정권시절에 국제화를 외치던 때의 결론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인 것이 아니었던가!

따라서 문헌정보학의 정상적인 발전과 문헌정보학도의 건강한 학문관을 위하여도 서지학 영역의 기본과목은 반드시 설강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설강되어야 한다. 이는 전임교수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다.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라도 강좌는 끊이지 않고 꾸준히 개설되어야 한다. 연구자를 위하여 서지학의 강좌가 개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지학을 위하여 개설되어야 한다. 학문을 살려야 연구자가 산다는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학문을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서지학의 원로교수가 정년한 후에는 중앙대·연세대·경기대·충남대에서 보듯이 강좌가 축소되고 폐지되는 실정이다. 이 현상은 학과의 관리자에 의한 의도적인 조치로서, 그 사실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는 서지학 교수들이 교수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 학문을 탐구하는 학자라면 학문적 자세는 견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의도적이든 인간관계든 어떠한 이유로도 학문을 기형으로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우리 후학은 이점을 거울삼아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면서 인간관계도 원만히 유지하고 학문적 자세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서지학 영역이 위축되거나 무시되면 문헌정보학도 따라서 절름발이 학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지학의 교과과정에 대하여 편향된 의견을

가진다는 것은

첫째, 교육자로서 문헌정보학도에게 왜곡된 학문관을 교육하는 죄를 범하는 행위요,

둘째, 서지학을 무시 내지는 말살하는 폭거가 될 것이요,

셋째, 자신의 문헌정보학 학문관이 절름발이임을 선전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

서지학 영역 내의 기본과목은 서지학개론·도서 및 인쇄사·고서정리론·전적해제론 등이고, 더 발전한다면 고전자료·일본자료·도서관사·제지사·출판발행학·고서감정법·문헌보존학·고문서학·주제서지 등이 있다.

서지학의 기본교재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는 선학이 학문적 내용을 고집한 결과로 보이지만, 초학자를 위한 교재는 필요하다. 초학자를 위한 것인만큼 교재는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하며, 영상과 음성위주로 전환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방법도 피교육자에게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학문적이면서 실질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피교육자가 참여하는 강의방법이 필요하다.

또하나 서지학도로서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점은 새로운 연구영역의 개척이다. 고문헌과 문화유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오늘날의 연구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접목시켜주는 작업은 서지학도의 임무다. 정보가치가 높다고 하면서 현대적 이용방법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고서도 언젠가는 DATA BASE를 구축하여야 하며 자동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번역·현토작업 등과 함께 현대적 정리는 물론이요, 색인·초록·주제서지 등 현대서지의 개발을 통하여 고문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서지학의 특징인 활자나 종이와 묵즙 등은 과거 사실의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현대 더나아가 미래의 인류생활에까지 실제로 응용할 수 있도록 접목시켜야 한다.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이 과거에는 찬란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도태되어 가는 부분이 서지학 영역에도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것을 더욱 빛내기 위하여 현대생활에의 응용방법까지 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현대 서지학까지 그리고 지역서지학에서 주제 서지학까지 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서지학의 새로운 발전 전기도 마련하고, 문헌정보학 내의 타 전공과도 공통분모를 확대시켜나가면서 공감대와 협력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

3. 國際的 硏究動向에의 無關心

3. 1. 外國의 硏究內容 把握

3. 1. 1. 韓國書誌學의 位相

동양문명은 '자연에의 순응'이라고 표현될만큼 인류가 자연과 함께 순리적으로 삶을 영위하여 왔다. 그 결과 과거의 수많은 발명이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 지를 알지 못한다. 오늘날에 돌이켜보면 대단한 발명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대단한 발명인 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서양문명은 '자연에의 도전'이라고 표현될만큼 인류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하면서 삶을 영위하여 왔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상당수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발명되었는 지가 분명하다. 이점이 곧 동서양 문명의 큰 차이 중의 하나다.

인쇄술이 바로 이러한 대비의 좋은 본보기다.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에 의하여 인류의 문명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4대 발명으로 종이·나침반·화약과 함께 인쇄술이 꼽힌 이래,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여 그것이 모두 공교롭게도 중국인에 의하여 발명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같은 인쇄술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발명되었는 지를 알지 못한다. 다만 이를 추적하기 위하여 전제조건으로 다음의 몇가지를 들고 있다. ① 묵즙의 사용, ② 제지술의 보급, ③ 탁인의 발명, ④ 인장의 사용, ⑤ 불인의 유행, ⑥ 부적의 사용, ⑦ 사회적 요구 등. 이러한 전제조건과 함께 ⑧ 현존 초기의 인쇄물을 종합적으로 고증한 결과, 서기 700년경에 목판인쇄술이 발명되었을 것이라고 결론이 난지 오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같은 결론이 난지 수십년이 지난 후에 겨우 새로운 연구인 양 정리된 자료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武英殿聚珍版叢書는 총서목록을 먼저 편찬한 후 간행한 것이 아니고, 총서를 추가해가면서 간행하였다. 따라서 총서목록에는 정확히 몇종이 수록되었는가를 단언하지 못한다. 이러한 간행 특징과 문헌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적인 목록이 완성되었으며 새로운 자료의 발견을 기다려 추가하면 되는 정도로 연구[6]가 끝난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 이 문제도 국내에서는 수십년이나 지난 후에 새로운 연구인 양 발표되는 것을 보면 한국 서지학의 국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뿐만아니라 마치 자료만 모아 놓으면 논문인 양, 혼이 없는 허수아비처럼 독창성이나 자기 의견이 없는 논문이 적지 않은 듯하다. 심지어는 원전도 아닌 2·3차 자료 수준의 글에서 같은 구절을 중복 인용하는 등 30여회나 인용한 논문도 있다. 논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

6) 1. 陶湘. 武英殿聚珍版叢書目錄. 圖書館學季刊, 第3卷 第1·2合期(1929. 6). p. 205-217.
2.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84. p. 228.

3. 1. 2. 木板印刷術

목판인쇄술에 관한 한 중국을 넘볼 수 있는 다른 문명은 없다. 동양의 여러 나라는 모두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시작한 것으로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그러다가 손보기 교수는 1981년에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근거로 목판인쇄술이 한국에서 발명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 그 후 1997년에 김성수 교수는 기존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관한 연구를 모두 소개[8]하면서 손교수의 주장도 언급하였다. 이들의 주된 논지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간행연대가 세계의 현존 인쇄물 중에서 가장 이르고, 또 이것이 한국의 석가탑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목판인쇄술이 중국보다 먼저 신라에서 기원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대한 간행년대 고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간행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본학자의 주장과 간행지역과 시기에 관심있는 중국학자의 주장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반론에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반론이 정설로 자리잡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석가탑의 완공시기에 이설이 있으며,[9] 당시 함께 출토된 銅器와 유향봉서에 묵서된 "重大師"는 고려시대의 것이라는 설과 함께,[10] 문자교감에 의한 고려시대 간행설[11]까지 있는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1차적 연구결과만을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목판인쇄술은 순간적인 착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쇄술과 관련된 인류의 경험이 누적되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발명이다. 목판인쇄술의 발명자・발명시기・발명지점 등을 모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실만을 근거로한 주장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침소봉대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관한 한국학자의 초기 연구에 대하여 한글을 알 리 없는 중국은 침묵하고 있었다. 또 중국이 문화혁명기를 겪고 있었던 까닭에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발견소식조차도 13년만인 1979년에 소개되었다.[12] 그 후 1980년대에는 4편정도가 발표되었다.[13] 1990년대 중반까지는 특기할만한 연

---

7) 손보기. "한국인쇄기술사." 『한국문화사대계』 제6권(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 p. 974-975.
8) 金聖洙. 韓國木板印刷의 起源年代에 관한 硏究. 書誌學硏究, 제10집(1994. 12). p. 425-478.
9) 鈴木敏夫. プレダーテンベルク時代. 東京, 朝日新聞社, 1976. p. 250-251.
10) 尹武炳. 釋迦塔 「舍利」장치에 異見. 中央日報, 1966. 11. 3.
11) 柳富鉉.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時期에 관한 硏究 - 諸本의 文字異同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제106집(1999. 12). p. 511-574.
12) 胡道靜. 世界上現存最早印刷品的新出現. 書林, 1979年 第2期. 封3(뒷표지 내측).
13) 1. 李弘稙 저. 許玉善・盧調文 공역. 從木版印刷看新羅文化-在慶州佛國寺釋迦塔發現的陀

구가 없다가 1997년에 발표된 김성수 교수의 논문을 번역하여 보면서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는 '발명권' 운운하면서 자기의 발명권을 침해당한 양하여 반론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일부 중국 학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하다보니 연구시각과 태도가 학문적일 수 없었다. 그들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합리화시키는 연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학문연구는 국수주의에 입각한 것이며 목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연구라는 점을 제기한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에 관하여 더 심각한 문제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간행년대가 목판인쇄술의 발명년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인쇄상태 등을 볼 때 완전한 두루말이 형태의 책자로서 초기의 미숙한 수준에서 상당히 발달한 기술적 요소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명 초기 낱장 형태의 불완전한 인쇄물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이후 이보다 더 앞선 시기의 인쇄물이 발굴되면 어떻게 변명할 지가 궁금하다.

중국 학자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중국에서 간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근거로 다음의 4가지[14]를 들고 있다.

첫째, 당시 신라의 승려와 유학생이 당나라의 수도인 낙양을 빈번히 왕래하였다.

둘째, 신라는 중국의 문화와 풍속을 열심히 수입하였다.

셋째,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본문에 武則天의 이체자가 사용되고 있다.

넷째, 한국에는 초기 인쇄와 관련된 방증이 없다.

그러나 이는 간접증거는 될지라도 직접증거는 아니다. 즉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한국 것이 아니므로 중국 것이라는 주장이다. 설득력있는 직접증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대의 연구를 분석하여 설복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고 과학실험을 통하여 객관적인 근거로 공인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객관성 등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관하여는 초기 인쇄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미 1,000여년이나 지난 유물이기에 고증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아무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실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히

羅尼經. 圖書館學硏究, 1980年 第6期. p. 45-48.

2. 張秀民. 南朝鮮發現(見)的佛經爲唐朝印本說. 圖書館硏究與工作, 1981年 第4期. p. 20-23.

3. 曹炯鎭. 無垢淨光大陀羅尼經之雕印時期考證. 書府, 第7期(1986. 6). p. 123-128.

4. 陳石銘. 上海圖書館35週年紀念論文集. 1987. 6.

14) Tsien, Tsuen-Hsuin. Paper and Printing. Joseph Needham. Science & Civilisation in China. Vol. V: 1. Taipei, Caves Books, 1986. p. 150.

자랑스러운 일이다.

3. 1. 3. 活字印刷術

한국의 금속활자 발명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다. 이 세계적 공인의 근거는 1403년의 癸未字다. 그후 고려말기에 금속활자가 발명된 사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연구되면서, 독일의 구텐베르그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 사실이 밝혀졌다. 독일의 학자도 역시 금속활자의 발명자는 한국인임을 다시금 인정하고 있다.[15)]

그런데 최근에 금속활자가 중국인에 의하여 발명되었다는 주장이 발표되었다. 하나는 金代의 1148년에 인쇄한 한 엽을 근거한 논문[16)]이고, 다른 하나는 1154년부터 화폐인쇄에 사용된 銅活字를 근거한 논문[17)]이다.

우리는 상대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논증함으로써 설복할 필요가 있다. 1148년설은 이를 주장하는 학자 자신도 근거가 되는 실물을 보지못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화폐인쇄에 동활자가 사용된 경우는 畢昇의 활자인쇄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독립된 활자를 복수로 만드는 점과 여러 개의 활자를 조판해야하는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다. 이는 활자의 개념정의가 필요한 문제로 1차적인 판단에 의하면 활자인쇄의 전제단계로서 이를 활자인쇄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전문 연구를 통하여 심도있게 분석할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길이다. 하물며 상대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겠는가! 국제사회의 학문연구 동향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외국으로부터 다각도로 도전받고 있는 한국의 서지학도는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동양 삼국간의 문화전쟁에서 선봉에 서있다. 그 한편에는 한 서지학도가 서있고, 또다른 한편에는 외람되이 바로 제가 서있다. 이 모습은 5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 9월 말[18)]에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

15) Karl Grobe. Der Erfinder war Koreaner(발명자는 한국인이었다). Frunkfurter Rundschau. 2000. 4. 14. 4쪽.

16) 魏志剛. 關于我國金屬活字版(公元1148年)技術與物證. 中國印刷博物館 編. 中國印刷史學術硏討會文集. 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97. p. 130-133.

17) 1. 潘吉星. 金屬活字技術的起源. 科學通報, 第43卷 第15期(1998. 8). p. 1583-1594.
2. 潘吉星. 金屬活字技術的起源. 中國出版, 1998年 第11期(1998. 11). p. 42-45・1998년 第12期(1998. 12). p. 40-42.
이 두편은 같은 내용이나 후자는 약간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18) 제3회 청주국제인쇄출판문화학술회의. 2000. 9. 27-29.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조직위원회・청주고인쇄박물관.

해낼 것이지만 전체 문헌정보학도 여러분의 열열한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 그 성원은 감정적이어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것이며 반드시 학문적이어야 큰 힘이 될 수 있다. 우리 서지학도는 객관적인 자세로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장점과 특징은 주장하면서 학문적인 자세를 지킬 것이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상대를 설득시켜 나갈 것이다. 즉 오늘날의 서지학도는 문무를 겸비해야 하는 능력과 정열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서지학이 국내에서는 강좌를 개설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무 전공자가 지도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한다면 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행위일 것이다. 우리끼리 반목하고 배타적으로 분열한다면 이는 대외적으로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자멸하고 말 것이다. 상대는 학문적 자세도 버린 채, 국수주의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해오고 있다. 이를 제압하는 길은 오직 객관적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자세일 뿐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학문적 자세로 무장한 서지학도가 절실한 현실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헌정보학 그리고 서지학의 전 영역에서 전열을 정비하여 응집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도 모두가 잘못된 학문관을 제대로 인식하고 비학문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한 차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3. 2. 硏究成果의 國際的 發表

세계적으로 서지학 영역의 외국학자 중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과 프랑스에 각각 1명씩[19]있는 정도다. 이에 비하여 중국어나 일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은 심심찮게 있다. 외국인이 연구한 내용은 우리가 외국어를 익혀서 소화한다지만 우리가 연구한 내용은 어떻게 그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겠는가? 우리의 우수성을 연구한 결과가 국내에서 한글로만 발표되고 말면 이를 외국 학자들이 알 도리가 없다. 한국이 목판인쇄술을 발명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지 16년만에 비로소 외국의 반론이 나온 것을 보면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연구가 세계적으로는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

---

19) 1. 藤本幸夫. 日本 富山大學 人文學部 敎授.
2. 다니엘 부셰. 한국학 학자. 「한국서지」의 저자인 모리스쿠랑 연구의 전문가.

따라서 오늘의 서지학도는 연구내용을 외국에 알려야 하는 임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학문적 논쟁의 상대나 설득의 대상은 국내 학자이기보다는 외국 학자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은 외국 학자가 인정해주어야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구를 외국학자에 알리는 방법은 국제학술회의에 참가와 외국 학술지에의 투고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외국어로 발표할 것인가? 가장 효과적이기는 영어가 좋을 것이다. 그런데 동・서양의 서지학을 비교[20]하여 보면 동양의 학자가 연구한 서양서지학과 서양의 학자가 연구한 동양서지학의 학문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 다음으로 동양문화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한문과 중국어가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서지학이라는 학문의 발상지라는 점과 언어를 구사하는 인구 수를 보더라도 수긍이 간다. 중국어를 구사하는 학자가 나라마다 모두 활동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더욱 그렇다.

다음은 일본어를 들 수 있다. 이는 우리와 어법상 유사한 요소가 많으므로 비교적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언어다. 더욱이 일본의 서지학자는 우리와 유사한 관점에서 연구하여 우리를 적지 않게 자극하고 있다. 또 국력의 신장, 학문의 발달과 함께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구를 일본어로 발표하는 것도 우리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볼 때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몇 편이나 외국어로 논문을 발표하였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4. 硏究態度와 硏究方法의 錯覺

4. 1. 硏究態度

4. 1. 1. 학문의 명칭

학문연구에는 다수결의 민주주의도 없고 사회주의도 없으며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는 더더욱 없다. 오로지 실증주의・객관주의, 즉 학문주의가 있을 따름이다. 이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늘이 돈다고 동의해도, 한 사람이 객관주의에 입각하여 연구한

20) 曺炯鎭. 東・西洋 書誌學의 硏究領域 鳥瞰. 書誌學硏究, 제11집(1995. 12). p. 167-188.

것이 옳다면 곧 지구가 도는 법이다. 즉 다수의 의견과 무관하게 어느 1인이라도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해 낸 결과가 옳으면 그것이 정답이다.

년전의 일이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도서관학과'라는 학과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또 학회의 명칭도 변경하려고 했었다. 그 결과 지금은 학과명의 경우 1개 대학[21]을 제외한 39개 대학이 '도서관(학)과'에서 '문헌정보(학)과'로 바꾸었으며 학회명도 바뀌었다.

이 문제의 본질은 학과 명칭 변경도 아니요 학회 명칭 변경도 아니며 바로 학문 명칭의 변경[22]이다. 학문의 명칭이 정해지면 그것을 교육하는 분과는 그 학과가 되고 그것을 연구하는 모임은 그 학회가 되는 것이다.

더 한심한 일은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교과과정상의 혼돈을 야기한 것도 문제지만,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설문과 여론으로 변경한 일이다. 과연 학문이 학문적 방법이 아닌 정책적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 이는 학문과 정책의 혼돈과 착각에서 비롯하여 학문적 자세를 결여한 데에서 저질러진 사고다.

학과의 명칭변경은 현시점에 와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야 말았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은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1997년 1월 1일부터는 사서직으로 보해야 한다는 법[23]망을 피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평생교육정보관・학생종합회관・사회교육관 등으로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바꾸고 있다(표1: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일람표). 우리끼리니까 말이지만 '도서관'이라는 간판은 누가 먼저 내렸는가?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서 '도서관학과'를 '문헌정보학과'로 바꾸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왜 '도서관'은 이름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가? 만약 공공도서관을 '문헌정보관'으로 바꾼다면 무엇이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학문적 자세를 잃은 데서 비롯되어 이제는 자가당착에 빠지고야 만 것이다. 이는 학과의 명칭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여론을 부추겨서 바꾼 편법이었음을 다시금 반성하게 한다.

---

21)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서관학과.

22)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의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학자는 바로 일본의 서지학자 長澤規矩也다. 그는 가장 적합한 명칭으로 "圖書學"을 사용하였다. 長澤規矩也. 書誌學と圖書學と圖書館. 書誌學復刊新號(1966). p. 17-23.

23) 법률 제4746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장 제24조 제1항.

<표1: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일람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한 도서관.

	시도	변경 전 명칭	변경 후 명칭	변경 년월일	소 관
1	서울	서울시립고덕도서관	고덕평생학습관	1999. 7. 15.	교육청
2	서울	서울시립마포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1999. 7. 15.	교육청
3	서울	서울시립영등포도서관	영등포평생학습관	1999. 7. 15.	교육청
4	서울	서울시립중계도서관	중계평생학습관	1999. 7. 15.	교육청
5	경기	구리시립도서관	구리시민수련관	1996. 9.	시청
6	경기	동두천시립도서관	동두천시민회관사업소	1996. 7.	시청
7	경기	의정부시립도서관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시청
8	강원	춘천중앙도서관	강원평생교육정보관	1998. 9.	교육청
9	충북	제천학생도서관	제천학생회관	1997. 1.	교육청
10	충북	충북학생도서관	충청북도학생회관	1992. 1.	교육청
11	전북	군산시립중앙도서관	군산청소년회관	1995. 1.	시청
12	전북	이리공공도서관	마한학생종합회관	1999. 12. 28.	교육청
13	전북	정읍공공도서관	정읍복지회관	1998. 4.	교육청
14	전남	고흥공공도서관	전라남도고흥사회교육관	1998. 6.	교육청
15	전남	광양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996. 1.	시청
16	전남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문화시설사업소	1997. 12.	시청
17	전남	여천군립도서관	여천군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군청
18	경북	문경시립중앙도서관	문경시민문화회관	1997. 12.	시청
19	경북	문경문화도서관		1998. 5.	
20	제주	서귀포시립도서관	서귀포시종합문예회관	1996. 2.	시청

오늘의 우리나라처럼 도서관을 필요로하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고 도서관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현실에서는 정책담당자의 의지가 도서관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4] 이 점에서 '공공도서관'이라는 5글자의 명칭을 상징적으로라도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수차에 걸쳐서 표명한 임창

24) 조형진. 정보문명시대, 배나무 밑에 길난다. "경기도공공도서관발전방향" 심포지움. 1999. 2. 9. 제3주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의 토론요지.

렬 경기도 지사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께는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기도에 대항하여 온몸으로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지금은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도서관 현장의 선구자들을 위한 구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공공도서관수호 비상대책위원회[25]에 촉구한다.

필자는 도서관 정책 담당자 여러분께 엄숙히 선언한다. 전세계의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공공도서관', 즉 'PUBLIC LIBRARY'라는 명칭을 고친 예는 없다. 작금에 우리나라에서만 유독히 나타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에 앞장섰던 모든 주동자와 동조자들에게는 머지않은 장래에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도는 일치단결하여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역사의 두려움과 정도를 가르쳐주어야 할 것이다. 불과 몇 년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현상밖에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반문한다. 그대들이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정도와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만을 좇아서야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4. 1. 2. 설문 조사

문헌정보학계에 설문조사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앞의 학과명칭 변경도 한 예가 되지만, 또다른 예는 교과과정을 연구하면서 어떤 과목이 필수여야 하고 선택이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설문을 조사한다거나 연구논문에 반드시 설문조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과 관계없이 연구자 1인이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여 필수라고 생각하면 필수로 정하고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선택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그 연구자가 연구해 낸 교과과정이 아닌가? 설문의 결과는 연구결과의 보편성이나 호응도를 검토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연구의 근거자료로 응용한다면 자칫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설문이 필요없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당·도로·아파트 등의 이름을 짓는 경우나 회원 배가운동 등 학문이 아닌 문제는 다수가 동의하면 그것이 옳다. 도서관 영역에서도 예를 찾을 수 있다. 도서관의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설문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주민을 만나야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인식도 조사는 연구가 아니라 조사에 불과하다. 인식도의 조사결

25) 공공도서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996년 7월 3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열린 전국문헌정보 학교수협의회·서지학회·전국사서협회·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과교육협의회·한국도서관 정보학회·한국문헌정보학회·한국정보관리학회·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한국도서관협회 등 9개 단체장 회의에서 조직되었으며, 그 위원장으로 한상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선임하였다.

과는 연구과제, 연구방향 등을 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지 설문조사를 취합하여 얻은 결과가 연구 결론이 될 수는 없다. 즉 설문조사가 필요한 곳에서 설문자료를 정확하게 응용하여야 한다.

4. 1. 3. 학술 회의

최근 국제적으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가지 사실에만 근거하여 침소봉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를 학문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국제학술회의[26] 등을 빌어서 정책적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미리 모의하여 결론을 정해 놓고 토론시간에는 의도한 바대로 결론을 유도할려고 한다면 이는 회의에 초청한 연구자 모두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동원한 격으로 귀착된다. 다시금 강조하노니 학문을 정책적으로 움직이려는 모든 시도는 국제·국내를 막론하고 학문적 모임에서는 지양되어야 한다.

학술발표회란 새로운 연구내용을 활자화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에게 구두로 알리면서 상대방으로부터의 의견도 수렴하여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학술적 모임이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 또는 토론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학회에 임하는 사람이 있다. 발표자는 상대의 질문과 조언을 경청해야 한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연구가 좀 더 완전해 질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연구자에게 전공자료를 서로 제공해주는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학문이란 하나의 의견이 나오면 이에 동의하면서 더 깊이 연구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발전한다. 또는 기존론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여 학문이 발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학문이 깊어지고 발전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권위자가 결론을 내리면 후학이 그 문제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물론 연구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또 자기 영역이라고 하면서 남으로 하여금 연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권위자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의견은 아무리 어린 연구자라 할지라도 제시할 수 있고 또 그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또 누구가 되었건 간에 연구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개발하면 아무라도 연구할 수 있는 법이다. 그 결과가 인정을 받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도태될 뿐이다.

---

2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세계인쇄문화의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 1999. 10. 19 (화) - 10. 20 (수). 延世大學校 上南經營館 國際會議室.

4. 2. 硏究方法

4. 2. 1. 過去硏究와 未來硏究

학문연구는 그 대상의 시점에 따라서 과거를 연구하는 영역과 미래를 연구하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학문이 신중해야 하는 관점에서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런데 소위 미래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인류가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에 예측일 뿐이며 정답이 없다. 즉 연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심지어 연구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먼 훗날 가보면 우리의 인류사회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류사회에 큰 병폐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하여 과거 연구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인류가 이미 걸어왔던 발자취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모르고 있을 따름이지 반드시 정답이 있으며 그 정답도 오로지 하나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과거 연구는 오로지 하나뿐인 정답을 추적하여 밝히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였을 경우는 오답을 생산하는 결과가 되어 우리의 역사를 본의아니게 왜곡시키는 병폐를 초래하고 만다.

이러한 예는 적지 않다. 成俔의 「傭齋叢話」에 수록된 辛卯字[27]가 그것이고, 근래에는 「御試策」 논쟁의 원로인 張秀民[28]을 들 수 있다. 辛卯字의 경우는 거의 500년이 지나서야 甲辰字로 바로 잡아졌고, 「御試策」 논쟁도 이미 45년이나 지나서야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중국 淸代의 武英殿聚珍版 인쇄와 관련된 기록[29]이 있으나, 그 내용을 金簡의 「武英殿聚珍版程式」과 비교하여 보면 전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목판인쇄술의 한국발명설도 그 폐해가 얼마나 갈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잘못은 본인이 직접 문자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요, 수정하지 않은 채 끝났다면 제 삼자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를 연구하는 영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지학의 연구

---

27) 成俔. 齋叢話. 卷7. 活字條.

28) 張秀民. 中朝兩國對於活字印刷術的貢獻. 大公報, 1953. 2. 22. 第3版. 張秀民이 여기에서 朝鮮의 乙亥字 小字體 木活字本인 「御試策」을 元代의 銅活字本이라고 주장한 이래 1999년까지 중국의 학자 6명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가 1999년 10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주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측 대표로 참석한 潘吉星 본인이 오류임을 구두로 시인하였다. 潘吉星은 이미 「中國科學技術史」(北京, 科學出版社, 1998. 8)에서 「御試 策」에 관한 종래의 주장을 삭제하였다. 이는 자신의 종래의 주장을 철회하는 뜻이라고 필자에게 직접 해명하였다.

2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24, 鑄字印書辨證說: 中原活字以武英殿聚珍字爲最, 字背不凹 而平, 鑽孔貫串, 故字行間架, 如出一線, 少不橫斜矣.

자는 반드시 철저히 고증해야 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 요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완벽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하여 완벽에 완벽을 기한다고 해도 정답이 아닌 경우가 없지 않을진대 하물며 대충하여서야 어떠하겠는가! 우리의 연구자세를 다시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

「直指」에 관련된 연구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활자의 제작기술을 밝혔다고 하여 연구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활자가 어떻게 조판되고 어떻게 인출되었는가까지 연구되어 과거의 「直指」와 같이 서적이 생산되어야 비로소 연구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가지에만 집착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4. 2. 2. 精神文明과 物質文明의 研究

서지학 영역에서 연구 대상의 성격에 따라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문명의 연구는 사상에 관련된 연구로서 서적의 편찬과 간행정책·규장각의 기능·서사의 기원·인재양성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거의 없다. 다만 문헌자료를 참고하되 문자 이면에 숨어있는 사상을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즉 표면에 나타난 명분과 이면에 잠재해 있는 실리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정도다. 오늘날 표현으로 行間을 읽어야 한다.

물질문명의 연구는 판본학 중심으로 발달한 우리나라의 서지학에서는 거의 모든 연구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는 목판과 활자, 종이와 먹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같은 물질문명의 문제를 종래의 문헌적 방법으로만 연구한다면 연구자 자신도 자신의 연구결과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문헌적 연구결과는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헌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실제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적 실험으로 검증하여 그 내용이 일치할 경우 그 문헌연구가 제대로 된 옳은 연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30] 즉 문헌연구와 과학실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특히 지질과 묵즙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표준이 없다. 그저 육안으로 구별하는 정도다. 예를 들어 지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재료의 생장특성에서부터 섬유질의 길이·폭·색갈 등에 이르기까지를 각각의 판본연구에서 한 장을 설정하여 실험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만약 지금까지의 판본연구에서 이 부분이 연구되어 왔

30) 曺炯鎭. 韓國 初期金屬活字의 鑄造·組版·印出技術에 대한 實驗的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2.

다면 적지 않은 자료가 축적되어 표준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질적 요소의 연구는 과학실험을 통하여 수량과 수치로 표현하여야 한다. 육안으로 구별하듯이 감각으로 한다면 연구자마다 느낌이 다를 것이므로 객관성을 인정받기가 쉽지않다. 수치화는 객관화와 합리화로 이어지는데 이를 위하여는 완벽하고 철저한 연구분석이 앞서야 한다.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적 분석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농경사회 때에는 국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회구조나 생활방식이 비슷하여 인식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연구자의 환경과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과거의 동일한 문제를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또 문헌적 연구의 부족을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보완한다면 이는 논증의 객관성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지학의 동료와 선후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하노니 한문 몇 줄 안다고 서지학 운운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5. 結 論

한국의 서지학계와 문헌정보학계는 지금 국제적 논쟁과 공공도서관 등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앞에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고 비판한 것은 누구와 누구 또는 전공대 전공 간에 싸움을 붙이자거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틀린 것은 고치고 반성하고 개선하고 용서하고 더나아가 우리의 장래문제를 위하여 대동단결하자는 뜻이다. 서지학도도 문헌정보학도도 모두 한 배를 탄 동료다. 그러므로 안목을 저높은 곳에 멀리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픔을 엄폐할 것이 아니라 들쳐내어 치료해주는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학문적인 의견차는 학문적 자세로 학문적 관점에서 논쟁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감정적으로 발전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학문적인 자세는 바로 학자적 양심이며 이것만이 학문적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 서지학계의 대 국제적 문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지학도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서지학도는 이에 보답하는 뜻으로 민족문화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학문적으로 더욱 정진할 것이다.

오늘의 발표 중에 혹자에게는 거슬리는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갈 학문 연구의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다. 진정 희망컨대 우리의 모든 문헌정보학도가 학문적 자세를 다지고 대동단결하는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이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지학 영역의 교과목을 축소 또는 폐지시키는 경우에 나타나는 문헌정보학의 기형적 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무엇보다 우선 정년퇴임 교수의 후임을 계승시켜야 한다.

2) 학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학자적 양심으로 후학들을 위한 균형된 교과과정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여야 한다.

3) 국제적 연구동향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연구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학과명칭의 변경으로 야기된 오늘의 문제를 정상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

5) 연구태도와 연구방법에 있어서 학문과 정책을 혼돈하지 말고 철저한 학문적 자세를 지켜야 한다.

6) 물질문명 영역의 연구는 문헌적 연구와 함께 실험적 연구를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

<參考文獻은 각주로 대신함.>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에 관한 연구

이 란 주*

<목 차>

<Abstract>
1. 서론
2.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된 문제
  2.1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의 관계
  2.2 데이터 마이닝 지식 프로세스
  2.3 데이터 마이닝 모델
3. 데이터 마이닝 기술 활용
  3.1 비즈니스 데이터 마이닝
  3.2 웹 텍스트 마이닝
  3.3 지식관리시스템
  3.4 검색엔진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article begins with examining the basic concepts of data mining. And then, as the issues associated with data 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ata warehouse and data mining, data mining knowledge process, and data mining models are also explored. In addition, as application fields,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and search engines are introduc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how various aspects of applications for data mining in both business fields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nes. They will also provide powerful possibility for data mining to the information specialists who ar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Intranets and the design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전공 부교수

1. 서 론

마인 (Mine)이란 채광하다라는 의미이며, 데이터 마이닝이란 용어는 비교적 새로운 용어이지만 그에 관련된 기술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그동안 컴퓨터의 용량 및 처리 속도, 통계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분석의 정확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하드웨어의 비용 또한 하락하였다. 이러한 정보환경은 컴퓨터분야, 경영학 분야, 통계학 분야 그리고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데이터 마이닝의 일반적인 개념은 다양한 각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로 요약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여기서 정보란 이윤을 늘이거나 비용을 삭감하거나 유용한 자료를 검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적인 도구로서 이를 이용해 많은 다른 각도에서 테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관련성을 요약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데이터 마이닝은 커다란 관련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분야 중에서 어떤 관계라든지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간략히 데이터, 정보, 지식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데이터란 컴퓨터로 처리될 수 있는 숫자, 사실, 혹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대용량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데이터의 종류는 논리적인 데이터 설계나 데이터 자체에 대한 데이터인 메타데이터도 될 수 있고, 회계나 판매와 같은 거래 데이터, 예측 데이터와 거시 경제 데이터와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모든 데이터들 사이의 패턴이나, 조합, 혹은 관련성을 발견하면 이는 다시 정보로 이어지며 이러한 정보가 역사적인 패턴과 미래에 대한 경향을 예측 할 수 있다면 이는 다시 지식으로 전환된다. 즉 데이터 마이닝은 정보추출 방법론으로서 데이터 혹은 지식 발견 (data or knowledge discovery), 지식추출 (knowledge extraction), 정보수확 (information harvesting) 등으로 불리며,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들 속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 등을 찾아내어 모형화함으로써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많은 산업체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통계 테스트를 한 후 앞으로의 소비자 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창출해 왔다. 한편 문헌정보학 측면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개념은 인터넷과 기관의 인트라넷안에 있는 비구조적인 무한정의 정보로부터 관련성이 높은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데 강력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 개념을 시작으로 데이터 마이닝

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분석 기법이 사용되며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데이테 마이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활용 영역을 넓히고 앞으로 더 개선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된 문제

2.1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의 관계

데이터 마이닝은 채굴할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할 때만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 켑춰, 처리 속도, 데이터 전달, 저장 능력에서 획기적인 향상으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통합시킬 수 있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 자체는 그동안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마이닝처럼 새로운 용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중앙 집중적인 데이터 관리와 검색과정으로 정의된다.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모든 조직의 다양하고 거대한 데이터의 중심적인 저장소를 관리하는 이상적인 기법이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의 획기적인 향상은 이러한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가 바로 데이터 마이닝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주로 분석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데이터 마이닝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질의를 구성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프로그램을 돌렸다.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질의를 컴퓨터에 돌리고 이용자는 그가 찾고자하는 정보의 형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검색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돌릴 필요가 없으며 사용하기 위하여 질문에 맞는 정확한 명령을 알 필요도 없다. 그만큼 데이터 마이닝에 의존함으로써 사용이 수월하고 간편해진다.

기업에서 지식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맞물려서 하드웨어의 비용이 저렴해지므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어렵지 않게 수용함에 따라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사용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조직이 보유한 모든 지식을 조직원이 공유함으로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기업 경쟁력을 갖추는데 조직의 지식을 이용하도록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이란주 2000a). 따라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 마이닝과 함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새로운 차원의 유용성을 추가하고 있다.

2.2 데이터 마이닝 지식 프로세스

2.2.1 데이터 마이닝 지식 프로세스의 중요 요소

데이터 마이닝 지식 프로세스의 중요 요소 혹은 단계는 다음의 다섯 요소로 구성된다: 1) 데이터 추출과 변형, 2) 데이터 저장과 관리, 3) 데이터 접근, 4) 데이터 분석, 5) 데이터 전시.

1) 데이터 추출과 변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형하여, 로드하는 첫 과정으로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좀 더 세분화하게 된다. (1) 샘플링: 데이터 마이닝은 대체로 수십 메가에서 수십 기가에 이르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기보다는 샘플링을 통해 분석한다. (2) 데이터 정제: 정보의 원천인 통합데이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여기서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 값이나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관성이 없고 불완전한 오류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서 데이터 충실도가 높은 통합 데이터를 구축한다. (3) 탐색: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여 수치화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변수들의 관계를 탐색한다. (4) 보완: 데이터의 보완 단계는 데이터의 양과 깊이를 늘이는 단계로서 데이터 정제 단계와 함께 정보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그러나 지식 프로세스의 선행 단계가 잘 이루어졌다면 보완 단계는 밟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5) 변형: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여 데이터에 포함된 불필요한 레코드와 항목을 삭제하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결손 값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레코드나 항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결정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http://human21.new21.org/dataMining/dm_4.htm)

2) 데이터 저장과 관리

다차원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단계이다.

3) 데이터 접근

경영분석가와 정보 기술 전문가에게 데이터에 접근하여 분석할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

4) 데이터 분석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데이터 마이닝 지식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선행 단계에서 선정된 주요한 변수를 이용하여 예측력이 뛰어난 것을 선택한다.

5) 데이터 전시

데이터 마이닝의 수행결과를 사용자들에게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보여 주기 위하여 도표나 각종 차트 등의 유용한 형태로 제공한다.

2.2.2 데이터 마이닝 지식 프로세스 분석 기법

데이터 마이닝에는 특정 문제에 적용하는 기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또한 기법이 적용된다고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얻고자 하는 결과나 데이터의 상태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법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최적의 접근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분석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세 가지(신경망 모형, 의사결정나무, 데이터 가시화)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신경망 모형 (neural networks)

비선형 예측 모델로 불리며 구성에 있어서 신경생리학과 유사하며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 패턴을 찾아내고 일반화함으로서 향후를 측정하는 문제에 유용하다. 신경망이란 입력, 처리, 출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처리단위를 연결시킨 것을 말하며, 각각의 처리단위에서 처리결과의 연결을 통해서 다른 처리단위에 전달 될 수 있다. 신경망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학습과정을 통해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해낼 수 있다. 즉 신경망은 학습기간 동안 입력과 출력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낸 연결은 강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연결은 약화시키면서 스스로 학습해간다. 신경망은 복잡하고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어떠한 추세나 패턴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

이 모델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입력 변수와 목적 변수의 관계를 그리기 어려운 복잡한 데이터에도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입력 변수와 목적 변수의 속성이 연속형이나 이산형인 경우를 모두 다룰 수가 있다. 그러나 신경망 모형은 매우 유연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종종 블랙박스 (black box)로 불린다. 따라서 설명력보다는 정확한 예측이 중요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2)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s)

의사결정나무는 분류 및 예측에 있어서 자주 쓰이는 기법으로 의사결정들을 나타내는 나무 모양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데이터 세트의 분류들을 위하여 규칙들을 생성한다. 특수한 의사결정나무 기법들로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와 CHAID (Chi Square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데이터 세트를 분류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들은 어느 레코드가 결과물을 갖을 것인지 새로운 즉 아직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 세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들을 제공한다. CART는 데이터 세트를 2개 방법으로 분할하고 CHAID는 카이 스퀘어(chi square)를 사용하여 다수로 분할한다. CART가 CHAID보다 적은 데이터를 요구한다.

의사결정나무는 일반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 변수가 있을 때 이 목적 변수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이 상호관계를 근거로 향후 일어날 사건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특히 의사결정나무는 명쾌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결과물 – 일종의 규칙 – 을 제공하여 대출거절이나 카드사용승인 거절과 같이 고객에게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근거이유 (수입 혹은 담보가치가 규정보다 적다)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을 결정하는 문제처럼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는 의사결정나무가 적합한 반면에 DM(direct mail)과 같이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추출하여 발송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에는 신경망 모형이 더 적합하다.

3) 데이터 가시화 (data visualization)

다차원적인 데이터에서 복잡한 관계를 가시적인 해석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데이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로 그래픽 도구들이 사용된다.

2.3 데이터 마이닝 모델

데이터 마이닝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향, 유사점,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설명된 규정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산법칙과 고급 통계적 모델을 사용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관계를 다음의 네가지 형태로 분석한다: 1) 분류 (classification), 2) 클러스터링 (clustering), 3) 연관성 (associations), 4) 순차적 패턴 (sequential patterns).

1) 분류

분류란 미리 정해전 규칙에 기반을 두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정해진 개념의 카테고리나 태그에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어의 출현 빈도에 기초를 두고 자동적으로 레코드에 통제어를 지정하는 것은 분류의 한 예이다. 또 다른 예로, 음식점 체인이 고객이 언제 방문을 하고 무엇을 주로 주문하는지 알기 위하여 고객 주문 데이터를 마이닝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당일의 특별 음식을 정하여 거래를 증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결정된 그룹에 속한 데이터를 찾기 위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기법으로 본다.

2)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를 논리적 관련성이나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룹화 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마이닝함으로써 고객의 기호나 시장의 분절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목적 변수를 예측하기보다는 고객수입, 고객연령과 같은 속성이 비슷한 고객들을 묶어서 몇 개의 의미 있는 그룹으로 나눈다. 대용량의 복잡한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서 전체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클러스터링은 다른 개념의 카테고리로 나눈다는 점에서 분류와 유사하지만 사전에 정해진 어떤 그룹은 없다. 모든 그룹들은 데이터에서 식별한 패턴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클러스터링은 데이터에 나타난 패턴들에 근거를 두고 통제어를 만들고 다시 단어나 개념 카테고리에 의해서 검색결과의 그룹들을 포맷하는 정보검색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3) 연관성

연관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 마이

닝은 어떤 특정 문제를 예측하거나 고객들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품 혹은 서비스의 거래기록 데이터로부터 상품간의 연관성 정도를 측정하여 연관성이 많은 상품들을 그룹화하는 기법이다. 연관성 마이닝은 동시에 구매될 가능성이 큰 상품들을 찾아냄으로써 시장바구니분석(market basket analysis)에서 다루는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판매점 체인은 오라클 소프트웨어(Oracle software)의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하여 지역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목요일과 토요일에 남자들이 유아용 기저귀를 사면서 동시에 맥주를 구매하는 경향을 발견한다. 이 판매점 체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익을 올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즉 판매점에서 맥주를 유아용 기저귀 옆에 진열하고 목요일에는 할인 없이 정가대로 팔기로 하면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연관성 마이닝에서 연관 규칙 (association rule)은 If A, then B (A→B)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상품 A가 구매되어진 경우는 상품 B도 구매된다라고 해석된다. 이 모델에서는 구체적인 상품들이 언급되므로 이해가 쉽고 명쾌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이 수월하다.

4) 순차적 패턴

행위 패턴과 경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것을 순차적 패턴 모델이라고 한다. 연관성 모델과 함께 미래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규칙들을 알게 하는 데이터에 기초를 둔 기술적인 모델로 본다. 또한 연관성 모델과 마찬가지로 순차적 패턴도 데이터에서 나타난 패턴에 기초를 두고 If A, then B (A→B) 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연관성 모델과 순차적 패턴 모델을 하나의 모델로 보기도 하지만 전자는 좀 더 연관 관계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관련 순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야외용 장비점은 고객이 슬리핑 백과 등산 구두를 구입한 후 배낭을 구입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위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네 가지 형태의 관련성에서 살펴보았다. 모든 데이터 마이닝 모델은 예측할 수 있고 미래의 행동을 예상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다음 장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 비즈니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그 다음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웹 데이터에 초점을 둔 데이터 마이닝 활용을 살펴본다. 따라서 웹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하여 웹 텍스트 마이닝, 지식관리시스템, 그리고 검색엔진에 대한 활용 측면을 제시한다.

3. 데이터 마이닝 기술 활용

3.1 비즈니스 데이터 마이닝 (Business 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은 축적된 정보기술의 발달과 비즈니스적 요구에 의해 시장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향상에 힘입어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제 업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제하고 일관성 있게 통합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더욱 과대해지고 있는 기업경쟁과 점점 더 다양화되고 개성화되고 있는 고객들의 요구에 대한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위하여 신속한 전략과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업들은 최적의 전략이나 의사결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고급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추출 방법론인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미 데이터 마이닝 응용 프로그램들은 거래와 마케팅, 보험 통계, 전략적 계획, 위험 혜택 분석 분야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 또한 여러 해 동안의 대량의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 고객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윤 수준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3.2 웹 텍스트 마이닝 (Web Text Mining)

비즈니스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있는 반면에 웹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관리하는 단계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웹의 엄청난 텍스트와 문서들은 이제 적절한 관리와 조직화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 웹의 내용은 웹 페이지나 문서들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비 구조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웹 페이지의 90% 이상이 전자적으로 비 구조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인터넷의 내용은 점점 더 증가 할 것이다.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위한 검색엔진이 어느 정도 내용의 접근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 검색의 망라성과 관련이 없는 검색으로 소요되는 시간적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구조적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잘 활용되고 있지만 비 구조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텍스트 혹은 지식 마이닝 도구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웹 내용에 적용함으로서 웹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웹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 모델인 분

류와 클러스터링을 사용함으로서 색인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색인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서 소유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웹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지능적인 마이닝 도구들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풍부한 비 구조적인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3.3 지식관리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System)

데이터 마이닝의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은 Dataware, Sovereign Hill Software. Inc., Semio 그리고 Relevance Technologie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Dateware

1988년 CD-ROM을 출판하는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로 출발한 Dataware 회사는 1997년에 지식경영에 기초를 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용 개발 환경인 Datware II 지식관리 기구 (Dataware II Knowledge Management Suite)를 착수하였다. 이 기구는 네 개의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1) Dataware II Knowledge Query Server - 분산된 서비스를 단일화 함; 2) Dataware II Knowledge Directory - 주제 관련 전문가를 찾아줌; 3) Dataware II Knowledge Agent Server - 이용자의 프로화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모니터링함; 4) Dataware II Knowledge Warehouse. 이 기구의 핵심은 메타급의 데이터 저장소인 Dataware II Knowledge Warehouse이다. 이 지식 웨어하우스는 소스, 형태 혹은 원형의 조직 설계에 관계없이 정보를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전 시스템에 걸쳐 표준화한다. 여기서 시스템은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고 지식지도를 만들고 규칙과 색인에 의해 그룹화한다. 이 지식 저장소들은 Lotus Notes, Microsoft Exchange 및 Documentum EDMS와 같이 다른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규격의 SGML 구조로 표준화한다.

Dataware II 지식관리 기구는 데이터 웨어하우징과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인터넷/인트라넷의 HTML 페이지, 비구조적인 문서, 회사 네트워크에 있는 문서 등의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중앙 검색 저장소로 표준화하고 있다. Dataware II 지식경영 기구는 사용자들이 단일화 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소스에 상관없이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저장소는 소스 데이터의 각 레코드나 문서를 SGML 형태로 보관한다. 소스 데이터가 구조적일 때에는 규칙들을 사용한다. 그 규칙들은 데이터를 주제, 문서 형태, 부서, 경영 과정과 같은 이미 결정된 요소

에 따라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분류에 지식지도를 만든다. 또한 다른 정보원들을 지식 웨어하우스에 추가할 때 만일 구조가 있다면 기존의 분류항목에 지식지도를 만들고 혹은 적절하게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도 있다. HTML 페이지와 같은 비 구조적인 데이터로된 웹 사이트는 Knowledge Crawler가 자동적으로 스캔하여 지식 저장소에 있는 미리 정해진 분류항목에 설정한다. 여기서 Dataware 상품들이 사용하는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모델과 가장 유사하다. 이러한 데이터 규격화 과정이 완성된 후에 Dataware II Knowledge Query Server는 최종 이용자를 위한 거대한 검색 세트를 다루는 drill-down 도구를 포함한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2) Sovereign Hill Software, Inc.

Sovereign Hill Software, Inc.는 문서 저장소를 위해 지식 개발과 관계 마이닝 기술을 특수화하고 있다. Sovereign Hill은 메사츄세츠 대학의 CIIR (the Center for Intelligent Information Retrieval)에서 개발한 InQuery 검색엔진의 개념 추출과 분석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Dataware II와 같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존의 구성을 이용하지만 이들 또한 추가적인 주요 개념들을 자동적으로 확인함으로 색인 작업을 추가한다. 데이터들 속에 널리 보급된 개념들은 기본 개념의 관계 속에서 인접성과 출현 빈도 수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자료를 개념화하며, 개념 추출 도구로 개념 추출 도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추출된 관련 개념을 순위 리스트와 함께 검색 결과를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용자는 관련 개념을 사용하여 원 검색결과를 통해서 drill-down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이용자로 하여금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간단하고 광범위한 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많은 양의 검색 결과를 순위에 따라 배열하고 개념별로 정리하여 식별하기 좋게 검색결과를 보여준다.

최근에 Dataware는 Sovereign Hill Software, Inc.를 매입함으로서 자사의 Dataware II와 Sovereign Hill사의 InQuery 개념 추출 방식과 관계형 마이닝 기술을 통합하여 차세대 지식 마이닝 상품을 생산하고자 한다.

3) Semio

Semio사은 1996년, Dr. Claude Vogel에 의해 캘리포니아에 텍스트 마이닝 전문회사로 설립되었다. Semio는 대량의 비 구조적인 텍스트 기반 정보의 패턴과 관련성을 확인하는 계산적인 기호학을 사용한다. 즉 Semio의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단어와 구문의 관계에 기반을 둔 텍스트 정보검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최종 이용자에게 아이디어와 심지어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단어와

의 가치있는 연관성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단어의 세트와 구문사이의 관련성을 볼 수 있으며, 공유될 수 있는 개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SemioMap은 Semio 텍스트 마이닝 소프트웨어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것은 단어와 구문사이의 관계를 찾아주고 그것을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이 기술은 방대한 양의 비 구조적인 텍스트에 가장 효과적이다. SemioMap은 자사의 특허를 받은 색인과 추출 기술인 SEMIOLEX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SemioMap은 텍스트를 색인하고 구문을 추출하는 기능과 관련된 구문들의 개념을 클러스터링하고, 연관성을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구문들을 찾는 기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더 가치 있는 정보일수록 단어의 관련성을 더 잘 정의한다. 또한 SemioMap은 비 조직적이고 비 구조적이고 역동적인 정보일수록 더 잘 정의하기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에 특히 유용하다.

SemioMap은 SemioMap Builder와 SemioMap Discovery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웹사이트, Lotus Notes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문서 화일로부터 SemioMap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후자는 개념 지도에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4) Relevance Technologies,

Relavance Technology Inc.은 지능적인 마이닝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로 1996년 설립되었다. 1998년 Documentum Inc. 에 의해 인수합병되어, 문서관리솔루션 및 데이터 마이닝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1999년 중반 웹 어플리케이션환경의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도입한 문서관리솔루션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것은 문서 저장소를 위한 정보 마이능 기능분만 아니라 화일서버, 인트라넷, 전자메일 시스템, 웹과 같은 내외부의 정보화 함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Relevance 생산물들은 EIC (the Enterprise Intelligence Center)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구조적/비 구조적 정보를 마이닝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특수한 경영 프로세스에도 사용된다. Relevance 프로그램들은 이용자들이 관련성이 높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능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Relevance EIC는 다른 텍스트 마이닝 상품과 달리 비 구조적인 정보를 찾는 검색엔진으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영 요구에 맞는 주문된 응용프로그램이다. 다른 마이닝 상품들이 넓은 영역의 개념을 제시하지만 EIC는 특별한 경영 기능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특수한 경영 요구에 중점을 둔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 마이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Relevance SMA (the Semantic Modeling Architecture)이다. 이것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자연어 처리 기술과 통계적인 클러스터링, 의미론적 모델을 혼합하여 구성되고 있다. 이 모델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원, 정보 관리자, 경영 프로화일, 가상 웨어하우스, 응용 서비스, 이용자 인터페이스. 이 여섯 가지 요소 중에서 Relevance EIC의 정보 마이닝의 열쇄는 '경영 프로화일'에 달려 있다. 이 도구는 시소러스와 유사하며 경영 관련 개념이 특수한 통제어와 함께 미리 정해진다. 일단 정보원에 있는 개념이 확인되면 적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경영 프로화일은 경영 관련 개념을 모델에 적용한다.

3.4 검색엔진 (Search Engine)

웹 검색엔진에 텍스트 마이닝의 응용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것은 좀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검색으로 특별하거나 망라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검색엔진으로 노던 라이트 (Northern Light), 데이터웨어 (Dataware), 익사이트 (Excite(Magellan)), 인화인드 (InFind), 구글 (Google) 등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Northern Light, InFind 그리고 Google을 소개한다.

1) Northern Light

Northern Light는 1995년 개발된 검색엔진으로서 1400억 이상의 웹페이지와 5,400여 개의 원문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5,400여 개의 전문 저널, 도서, 잡지, 뉴스와이어 및 참고정보원을 제공하는 특별한 집서를 구성하고 있다. 다른 검색엔진에서는 잘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 엔진은 비교적 학술적 자료 검색에 유용하다. 보통 웹 상에서 무료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원하는 자료를 결정하기 전에 자료의 요약을 무료로 볼 수 있으나, 원문을 원할 때는 $1-$4정도의 이용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란주 1999).

다른 검색엔진과는 달리 Northern Light는 웹과 특별한 집서의 정보원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하여 질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다시 설명하면, Northern Light는 전문 사서에 의해 만들어진 폴더 (folder)에 각 정보를 배열하는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모델을 사용한 검색엔진이라 하겠다. 네 가지 유형의 폴더는 주제, 문서형식, 소스, 언어별로 분류되며. 대략 20,000이상의 광범위한 계층적 관계어와 200,000~300,000에 이르는 첨가어로 수록된다. 이러한 색인은 사람에 의해 수작업으로 생성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논문들은 컴

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색인된다.

Northern Light에서는 미리 지정된 검색결과의 색인을 조사한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검색 결과를 적용하고 폴더에 연결한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도입으로 이용자는 통제어를 배우거나 적용하지 않고도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데이터베이스 생산자 입장에서는 거대한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인력의 개입을 줄일 수 있다. 이용자는 검색 결과 페이지의 왼쪽에서 주제명의 폴더 리스트가 제시되므로 각각의 폴더를 통해서 좀 더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InFind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검색엔진에 활용한 또 다른 예로 InFind를 들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섯 개 엔진 (Altavista, Excite, Infoseek, Yahoo!, Webcrawler, Lycos)들을 동시에 검색하는 메타검색엔진인 InFind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볼 수 있다. InFind는 각각의 검색엔진에서 검색한 결과물들을 제목의 간략한 리스트를 제시하며 URL없이 유사한 아이템을 모아서 출력한다. 다른 검색엔진들은 질의어와의 유사도에 따라 검색결과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InFind는 모든 적합한 결과를 모아서 관련 있는 아이템끼리 모아 그룹화 한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작업은 많은 결과물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고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에 어느 것이 관련이 있고, 어느 것이 관련이 적은가를 빨리 파악하게 해 준다. 예를 들면 'The David Letterman show'에 대해서 찾고자 할 경우 InFind는 CBS' official site에서 검색한 페이지와 팬으로부터의 페이지를 따로 분류하여 빨리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다른 검색엔진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질의어와의 관련성 순서대로 혼합하기 때문에 직접 수백 가지의 아이템들을 훑어보아야 한다 (이란주 2000b).

3) Google

Google은 googol에서 따온 이름으로 10의 100제곱 혹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의미한다. 즉 이 검색엔진의 궁극적 목표는 전 세계의 모든 망라적인 정보를 조직화하여 접근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한다. Google은 1998년 Stanford 대학 박사과정에 있던 Larry Page와 Sergey Brin가 데이터 마이닝과 웹의 링크 구조에 기초하여 만들었다.

Google은 1999년 9월 21일 베타 단계를 마치고 라이브 버전으로 시작한 새내기 검색엔진으로 아직은 비교적 간단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반응은 좋은 편이다. Google의 주요 특징은 관련성피드백 (relevance feedback)검색, PageRank

라는 사이트 순위 선정 방법, 그리고 다국어 검색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수연, 김성희 2000). Google은 정확도 측정을 문서에서 발생하는 키워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다른 문서 수에 의해 결정한다. 또한 "PageRank"기술은 수많은 웹 페이지가 서로 하이퍼링크로 이어져 있다는 웹의 기본 구조와 인기 있는 사이트는 링크가 많이 되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사이트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Google의 다국어 검색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언어의 페이지를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화(localization)를 함께 제공한다.

Google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으로 Link to cached page를 검색결과 페이지에 제공한다. 이것은 이미 없어진 사이트나 서버/네트워크의 일시장애나 중단 등으로 접속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도 한다.

5. 결 론

데이터 마이닝은 중요한 패턴이나 경향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많은 기업에서는 정보기술의 향상과 데이터 저장 비용의 하락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다. 방대하고 복잡해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대 관심이다. 경영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찾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찾지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에서 정보를 캐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기법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패러다임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Database Marketing), 고객관계관리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더욱 그 관심의 폭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그 연구 결과물이 발표되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작업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구현된 마이닝 도구들은 실제 마이닝이 제공해야 하는 기능을 모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마이닝 기능 중 일부만을 제공하거나 통계학적 지식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기술, 현업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 도구에 매우 숙달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적인 마이닝의 수행과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제공이 미약하다. 최근까지 데이터 마이닝은 깊이 있는 수

학적 지식을 가진 통계학자에 의해서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난해한 분야였다. 현재 이러한 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데이터 마이닝은 실제 마이닝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보조하는 도구에 불과하여 개선의 여지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관련된 문제로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의 관계, 데이터 마이닝 지식 프로세스, 데이터 마이닝 모델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 기법을 활용한 분야인 지식관리시스템과 검색엔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경영 분야와 문헌정보 분야의 데이터 마이닝의 활용에 대한 현황을 제공하며 인트라넷 개발 및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있는 정보 전문가에게 데이터 마이닝의 밝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웹 상에 있는 엄청난 문서와 웹 페이지들을 비롯하여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다양한 정보들이 대부분 비 구조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에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활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웹 문서들이 비 구조적인 HTML형식에서 좀 더 구조화된 XML과 SGML형식으로 변형된다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좀 더 간편해지고 정확한 검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데이터 마이닝 응용 프로그램의 새로운 구현과 보완이 여러 부분에서 필요함으로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선적으로 데이터 획득과 변환의 완전 자동화가 필요하다. 자동화된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함으로서 사용자의 실무 경험이 다양한 옵션 설정을 통해 마이닝 수행에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적합한 데이터 마이닝 모델의 선정과 이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용자가 설정이나 환경을 변경할 때, 이러한 전 과정에 미치는 결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현철, 박태원, 임난희, 1998. Data Mining 방법론과 SAS Enterprise Miner. 한국분류학회 발표논문집.

이란주, 2000a. 지식경영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11(1): 176-201.

_____, 2000b. 메타검색엔진의 특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2) : 85-100.

_____, 1999. 도서관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웹 검색엔진의 활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추계워크샵: 17-35.

이수연, 김성희, 2000. 데이터마이닝기법을 이용한 검색엔진에 관한 연구. 제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7-112.

장남식, 홍성완, 장재호, 1999. 데이터 마이닝. 대청.

조재희, 박성진, 1996. 데이터 웨어하우징과 OLAP, 대청출판사.

Cipolla, E. 1995. Data Mining: Techniques to Gain Insight Into Your Data. Enterprise Systems Journal, December: 18-24.

Conner, L. 1996. Mining for Data. Communications Week, February 12 : 37-41.

Zorn, P. M. Emanoil, L. Marshall, M. Panek, 1999. Mining Meets the Web. Online September/October : 17-28.

http://human21.new21.org/dataMining/dm_4.htm

http://human21.new21.org/dataMining/dm_2.htm

http://www.dataware.com

http://www.semio.com

http://www.relevancetech.com

http://www.northernlight.com

http://www.infind.com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지역간 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

조 찬 식*, 노 승 희**

<목 차>

<Abstract>
1. 서론
2.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과 지역간 균형 발전
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발전 및 현황
4.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4.1. 전통・지역프로그램
4.2. 정보・교육프로그램
4.3. 문학・예술프로그램
4.4. 취미・여가프로그램
5.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지역간 균형 전략
6. 결론
<참고문헌>

<초 록>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는 현대 공공도서관에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지역간 불균형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과 지역간 균형 발전의 이론적 관계를 살펴보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 현황을 파악・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지역별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전공 부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Abstract>

Given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program of public libraries and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the relationship;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ultural program of public libraries;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f the cultural program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1. 서론

도서관의 발생은 문화를 축적하고 그것을 후세에 전승시키며 또한 발전시키고자 나타난 사회적 기관으로, 문화적 필연성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여 발전해 왔다. 이러한 도서관은 주 이용자 집단과 주위환경에 따라 국립·공공·전문·대학·특수·학교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와 봉사가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에게 제공되는 도서관으로,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 문화센터 및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은 사회의 정치 및 문화가 발전하고 소득이 향상되면서, 국민의 문화적 욕구가 높아지게 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경제·문화·정치의 평준화 및 지역 고유의 특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부터 중요한 관심사가 되며,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되어지며,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그 지역사회 속에서 이해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다(김정근, 장현덕 1994; 손정표 1993; 유상덕 1979; 이두영 1991; Lynch 1978).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발전 과정에서 도시·지방간의 격차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지역간 격차는 문화적 격차는 물론 정치적, 경제적 격차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자료이용을 증가시키고, 직·간접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화를 제공해줌으로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다(유만철 1992; 윤영 1983; 이용남 1990; 한국도서관협회 1990; Robotham, LaFeleur 1981). 특히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지역간 문화수준의 성장을 도모하며 문화적 격차를 해소시

킬 수도 있어,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지역간 불균형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과 지역간 균형 발전의 이론적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발전 배경과 현황을 간략히 돌아본 뒤,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과 지역간 균형 발전의 이론적 관계를 고찰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도서관통계(한국도서관협회 1999)와 전국공공도서관 및 문고현황(문화체육부 1997)*의 통계자료를 주 자료원으로 하였으며 그 외 문예진흥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수집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간 균형 발전

도서관의 발생은 인류가 문화를 축적하고 그것을 후세에 전승시키고자 했을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도서관이 단독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필연성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여 존재, 변화,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목적과 그에 따른 봉사활동은 사회의 요구, 특히 이용자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도서관과 관련된 주위의 환경들과도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은 주 이용자 그룹과 주위 환경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정리, 축적, 봉사와 같은 일반적 기능을 갖지만 도서관장서의 범위, 내용, 수준 및 봉사 대상 등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하겠다.

공공도서관이란 이용자 집단이 한정된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도서관 자료와 봉사가 지역 사회의 모든 주민에게 신분, 지위, 연령, 성(性), 교육 수준 등과 상관없이 제공되는 도서관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

*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관해 문화체육부에서 마지막으로 간행된 자료임.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개정, 공포된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제 20조에서는 '정보 및 문화·교육 센터'로 정의 내리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특히 지역주민에게 정보와 사상 및 교육에 자유롭고도 개방적인 접근을 통해 시대의 여러 문제를 알고, 지식을 얻음으로써 지역 정책 혹은 국가 정책에 능동적인 참여를 갖도록 해주며, 삶에 있어서의 문화, 경제, 지식 등 여러 면에서 질을 높일 수 있고,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인격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권(privilege)'이 아닌 '권리(right)'로서 없어서는 안될 사회의 필수기관인 것이다(박윤기 1999; 문정수 1997; 안효명 1998; Davies 1974; O'connor 1990; Rogers 198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공공도서관의 사명은 "도서관 자료와 도서관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현명한 시민정신과 풍부한 인간생활을 증진케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구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 문화의 번영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는 상호 협력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즉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환경으로, 지역주민을 이용자로 운영되는 도서관이다(IFLA 1986). 여기서 지역사회란 인간이 그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기본단위로 인간이 고립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지역적 공간에 거주하면서 공간생활을 형성하며 그 최소 단위를 지역사회라 한다.

지역사회란 용어는 1950년대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1956년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사회 개발은 모든 주민들이 정부의 개발노력에 협력하여 그들의 부락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국가발전에 전체적으로 기여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유상덕 1979).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에 관한 개념은 1958년 대통령령 제 1384호로 공포된 지역사회 개발위원회 규정 제 2조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사회개발사업이란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이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수행하는 사회개선사업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가 구비할 조건으로는 첫째, 상주해 사는 일정한 인구, 둘째, 한정된 범위의 지역, 셋째, 역사적 유산의 공유, 넷째, 주민들의 공동의식과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봉사기관, 다섯째, 공동생활양식에의 참여, 여섯째, 지역적 통일의식과 집단감정, 일곱째, 협동의 가능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노영숙 1997).

이상의 정의와 조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개발을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교육의 개념은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으로서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교육의 구체적인 실행은 도서관, 직장, 대중매체,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여러 기관과 매스컴에 의한 매개물과 그 밖의 집단생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가장 크게 기여해야 할 사회교육기관은 공공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도서관이 가장 포괄적이고 계획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보존하는 한편 그 이용을 통하여 문화를 향상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첫째, 정보센터의 기능으로 정보폭발로 인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고, 정보가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정보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 검색, 제공하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으로, 오늘날 기초교육으로 전락해버린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적응 및 능동적 대처가 필요한데 공공도서관은 이들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역 특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지역을 위한 다양하고도 적합한 문화활동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장영희, 안재학 1996).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위와 같은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데,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제 20조 5항에서는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 교육의 주최 및 장려'로서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은 선과 미를 추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인간의 내면적 성숙을 위한 문화센터로서 강연회, 전시회, 연극, 음악회 등 문화활동을 개최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첫째, 지역사회의 문화관련 자료 요구에 대한 봉사, 둘째, 지역사회에 예술공연 및 전시시설의 제공, 셋째, 지역사회 문화단체간의 예술활동 프로그램의 조정, 넷째, 문화기관들의 조직망 개발, 다섯째, 인간적인 가치를 문화활동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활동에의 협력, 여섯째, 예술의 경험에 필요한 문화적 소양의 제공 등을 들 수 있다(김창수 1998; 정정식 1998).

위와 같은 것들을 내용으로 문화프로그램은 첫째, 문학, 음악, 미술, 연극, 향토문화, 예절 등의 주제별 프로그램, 둘째, 유년, 초·중·고생, 근로청소년, 대학생,

성인, 주부, 장애자 등을 포함하는 봉사대상별 프로그램, 셋째, 도서자료, 시청각자료 등 사용하는 미디어 형태별 프로그램, 넷째, 도서관이 직접 주최하는 것, 도서관이 각종 단체와 공동 주최하는 것, 도서관측이 강사, 조언자, 참고자료 또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것들과 같은 도서관지원 방법별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국도서관협회 1990). 현재 각 도서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예로는 꽃꽂이, 교양강좌, 문학강좌, 건강강좌, 국악, 향토연구, 동화구연, 어학, 컴퓨터, 서예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은 크게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어지는데, 첫째 대내적인 면에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예산, 정책, 직원, 시설, 규모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대외적인 면에서는 지역사회분석(Community Analysis)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구, 산업체 및 문화기관의 수와 종류, 지역주민의 주직업의 종류, 교통이나 기후 등을 조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도서관은 이와 같이 문화프로그램을 행할 때 충분한 사전조사와 지역의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연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다.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자료이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홍보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간접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오락적 요소와 이용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시킬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화를 제공해줌으로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고, 지역간 문화수준의 성장을 도모하며, 문화적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공공도서관 활동이라 볼 수 있다(김도연 1998).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문화활동의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접목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를 바탕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발전은 1980년대에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군(NICS :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에 진입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1990년에는 국제수지 10위권내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적인 산업화 시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사회의 하부구조의 확충을 통하여 국가 전반 및 지방경제 수준이 향상되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철저히 중앙정부 주도 아래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며, 지역 정부의 정치·경제적 자립의 부재로 인해 그러한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전 국토에 균형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낳게 되었다(백형배 1988). 예컨대 국토의 불균형적 이용은 산업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되게 하였으며,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간 격차는 고용기회와 소득 등의 경제적 격차, 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및 영향력 등의 정치적 격차, 기타 사회·문화적인 격차를 초래했으며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소득이 향상되면서 국민의 문화적 욕구가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포함하여 높아짐에 따라 문화적 격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수준 높은 문화향수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간의 문화적 이질감과 괴리감 및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상태에 이르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간의 사회·문화적 불균형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사회의 교육·문화기관인 공공도서관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존재의 의의이며 목적인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은 주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에 따라 나타나며, 특히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일조하도록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각 지역간의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동질성을 꾀하고, 이러한 문화프로그램의 결과 각 지역간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평등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발전 및 현황

인류가 문화를 축적하고 그것을 후세에 전승시키고자 했을 때부터 도서관이 발생되었다고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은 '삼국사기'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 시대의 '경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경당'이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의 도서관 역할을 하였으나, 서양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고대 도서관이 이용보다는 기록과 보존을 중요시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당시에 도서가 실질적으로 소장되고 이용되었다는 면에서 '경당'을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 도서를 일반 시민에게 이용시키는 동시에 도서의 대량 보급 운동으로 나타난 공공도서관은 근대 이후의 일이며, 1895년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도서관을 소개한 후 시작 및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화기 근대 공공도서관, 일제하의 공공도서관, 해방 후의 공공도서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국도서관협회 1992). 먼저 개화기 근대 공공도서관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도서관들은 당시의 개화사상과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다시 일으키고자 개화기 선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06년 '대한 도서관'을 시발점으로, 동년 4월에 '대동서관'이, 1908년 '서적종람서' 그리고 1909년 '동지문예관' 등이 설립되었다.

또한 일본인들이 그들의 자녀 교육과 친목을 위해 문고 또는 소규모 도서관을 설립하였는데 이 도서관들은 한일합방 이후 공공도서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유생들이 그들 자제들을 일제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문중문고를 설립하였는데 이러한 문중문고들은 성격상 개인 도서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제하의 공공도서관은 3·1 독립운동 이후 민심 수습 및 사회 교화를 위해 1921년 '향교재산관리 규칙'을 개정하여 향교재산에 의해 총 24개의 소규모 도서관을 설립하였으며, 1923년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제를 제정하여 1925년 개관하였다. 이 조선총독부도서관은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철도도서관'과 함께 관립도서관으로 일제하의 대표적 공공도서관이며, 그 이외에도 이 시기에 '경성도서관'과 '부산도서관' 등이 설립되었다.

해방 후의 공공도서관은 의욕적이고 자주적인 공공도서관을 설비하고자 1945년 8월 '도서수호, 문헌수집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조선도서관협회'를 결성하여 통일된 분류표와 목록법, 도서관 전문직 양성을 위한 강습회, 외국과의 교류사업을 전개하였으며, 1946년에는 국립도서관 내에 '국립도서관학교'를 설립하였다. 6·25사변 이후 인적, 물적 손실을 입은 도서관계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를 재건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발전에 법적 기반이 되는 '도서관법'이 1963년에 제정되어 1987년에 개정되었고, 1991년에 '도서관 진흥법'이, 1994년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370개 관이며, 대학도서관 408개 관, 학교도서관 8,716개 관, 전문·특수 도서관 542개 관보다 적어 전체 10,037개 관 중 약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이 다른 관종별 도서관 수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도서관협회 1999). 공공도서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근시적 문화발전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곧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을 이룬 것은 아니며 공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국가 주도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토 전반에 걸쳐 경제, 정치, 산업 등에

불균형이 나타난 것처럼, 공공 도서관 역시 사회기관인 관계로 지역별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지역별 공공도서관의 분포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지역별 공공도서관의 분포와 현황

(단위: 개, 명, 명, 원)

구분 / 시도별	공공도서관수	사서수	1관당 인구수	1인당 예산액
서 울	25	320	413,240	2,574
부 산	18	144	213,889	1,903
대 구	11	86	226,091	3,500
인 천	8	63	305,500	2,292
광 주	7	93	189,000	8,036
대 전	8	115	164,750	5,115
울 산	5	63	201,800	1,799
경 기	46	200	184,043	2,062
강 원	31	81	49,581	4,683
충 북	21	58	70,000	3,644
충 남	33	63	57,455	2,065
전 북	28	58	71,464	2,991
전 남	36	99	60,056	4,766
경 북	46	101	60,826	3,019
경 남	35	132	86,914	3,457
제 주	12	32	43,917	8,028
계	370	1,708	126,111	3,018

자료 : 한국도서관협회, 1999, 한국도서관통계

위의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분포는 지역간에 또는 대도시와 농촌간에 커다란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경북과 경기는 공공도서관 수가 46개인 것에 비해 충북은 21개로 절반도 안되며 제주도는 약 1/4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수의 절대 비교는 인구학적, 지리적 요소에 의해서 달리 설명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편중된 지역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할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도 공공도서관의 수가 5개에서 25개까지 편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서수의 경우 서울에 25개 공공도서관에 320명, 경기도 46개 공공도서관에 200명, 전북 28개 관에 58명 등으로 각각 공공도서관의 사서수가 일정한 기준없이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율적으로 볼 때 1개 공공도서관의 사서수는 2명에서 13명까지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정도이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재고케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하는 인구수도 43,917명에서 413,240명으로 약 10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주민 1인당 배정된 예산도 1,799원에서 8,036원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효과적인 봉사를 이루기 위한 지역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지역간 불균형은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이 주어진 기능을 다 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4.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문화프로그램은 보통 보는 각도에 따라 혹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윤영(1983)은 ①목적 및 기능 ②봉사대상 ③지역사회의 특성 ④강습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지원방법 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한윤옥(1985)은 ①봉사 대상별 프로그램 ②독서 프로그램 ③시청각 자료 프로그램 ④도서관 이동성 프로그램 ⑤문화, 예술 프로그램 ⑥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⑦주제별 프로그램 ⑧지역사회기관과의 협조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O'donnell과 Read (1977)는 프로그램을 형태에 따라 ①영화 ②강좌 ③희곡낭독 ④비디오테이프 ⑤토론과 심포지엄 ⑥프로젝트 및 견학 여행 ⑦무용 또는 음악 ⑧공예 및 기타 실연 ⑨전시 ⑩독서토론 ⑪분임토의 ⑫그룹인터뷰 ⑬역할연극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①주제별 프로그램 ②봉사대상별 프로그램 ③사용하는 미디어 형태별 프로그램 ④도서관 지원 방법별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기능이 '교육·정보·문화 및 여가센터'인 것과 관련지어, 기능별로 나누어 보면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여지듯이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첫째, 전통을 보존・계승하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통・지역 프로그램으로 여기에는 국악, 판소리, 향토연구, 전통문화교실, 민요가 속한다. 둘째, 지역주민에게 정

보를 제공하고, 교육적 기능을 위한 정보・교육 프로그램으로 봉사대상에 따라 주민대학, 주부교실, 노인교실, 여성상담교실이 있고 생활 및 교양과 관련된 건강교실, 교양강좌, 영어・일어・중국어 등과 같은 외국어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생활 예절과 관련된 충효교실 및 다도 등이 있다. 셋째, 지역간 문화수준의 성장을 도모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문학・예술 프로그램으로 주제에 따라 다시 음악・미술・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음악에는 기타교실, 노래부르기 교실, 가곡・가요, 크로마하프가 있으며, 미술에는 동판공예교실, 칼라믹스교실, 수채화, 유화, 현대 미술 등이, 그리고 문학에는 구연동화교실, 문학강좌, 고서강좌, 청소년문화강좌 등이 있다. 넷째, 취미활동 및 여가를 위한 취미・여가 프로그램으로 바둑, 탁구, 사진, 꽃꽂이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문화프로그램의 종류

전통・지역 프로그램	국악, 판소리, 향토연구, 전통문화교실, 민요, 고전무용	
정보・교육 프로그램	주민대학, 주부교실, 노인교실, 여성상담교실, 건강교실, 교양강좌,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한국어), 컴퓨터, 다도, 충효교실, 명심보감, 이야기교실, 비디오학습교실	
문학・예술 프로그램	음악	바이올린, 기타, 노래, 가곡가요, 크로마하프, 청소년연주
	미술	동판공예, 칼라믹스, 수채화, 유화, 현대미술, 도자기공예, 도예, 유점토, 사군자, 묵화, 산수화, 동양화, 민화, 독후감상그리기, 팝아트, 수직공예, 지공예, 칠보공예, 한지공예
	문학	구연동화교실, 문학강좌, 고서강좌, 청소년독서문화강좌, 독서문화교실, 산문교실, 고전읽기, 시교실, 문예창작, 글방아, 어린이 글짓기교실, 청소년논술
취미・여가 프로그램	바둑, 탁구, 헬스, 에어로빅, 건강기공, 덩더쿵체조, 생활요가, 포크댄스, 차밍디스코, 단학, 사진, 비디오카메라, 꽃꽂이, 종이접기, 아트플라워, 현대자수, 가정원예, 스탠실, 포장법, 퀼트, 홈패션, 메이크업, 피부관리, 한문, 서예, 수지침, 레크레이션강좌	

자료 : 문화체육부, 1997, 전국공공도서관현황, 재분류

이와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현황

	공공도서관 수	실시도서관 수	강좌 수	강좌 회수	참여인원
서울	30	20	163	15,024	401,965
부산	17	13	43	1,600	47,282
대구	11	9	43	4,138	236,885
인천	8	6	23	877	23,845
광주	6	6	28	1,049	371,882
대전	8	5	10	326	26,991
경기	41	16	56	2,941	77,003
강원	31	12	42	1,539	28,511
충북	19	10	17	732	18,509
충남	30	9	20	776	17,451
전북	28	8	12	488	12,003
전남	33	24	48	587	20,447
경북	43	10	35	2,539	55,430
경남	35	10	31	2,153	61,398
제주	10	4	13	266	6,794
계	350	162	584	35,035	1,406,396

자료 : 문화체육부, 1997, 전국공공도서관 및 문고현황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수는 전남이 24개, 서울이 20개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대도시의 반 이상이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의 경우 6개 관 모두 문화 활동을 하고 있어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경북의 경우 43개 관 중 10개 관이, 그리고 경남이 35개 관 중 10개 관이 실시하고 있어 경상도 지방이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좌수 면에서는 서울 163개, 경기 56개, 전남 48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수의 경우는 광주, 대전, 인천을 비교했을 경우 문화프로그램 실시도서관 수는 비슷하지만 참여인원수가 각각 371,882명, 26,991명, 23,845명을 보여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강좌회

수가 적어 참여기회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수와 마찬가지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수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시도서관 사이에서도 강좌수와 회수의 차이로 인해 참여기회와 다양성 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1. 전통・지역 프로그램

전통・지역 프로그램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특성화와 개성화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의 영향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지역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다양성이 부족하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공공도서관 수도 전국에서 <표 4>에 나와 있는 10개 관 밖에 되지 않아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표 4> 공공도서관의 전통・지역 프로그램 현황

	전통・문화프로그램 실시공공도서관	대상	참여인원
국악	경기(성남도서관)	일반	446
	전남(나주도서관)	지역주민	387
	서울(마포도서관-가야금)	지역주민	360
	서울(마포도서관-장고)	지역주민	1,053
	대구(중앙도서관-단소)	시민	2,070
판소리	서울(마포도서관)	지역주민	1,257
향토연구	경기(수원도서관)	일반	235
전통문화교실	광주(학생회관도서관)	지역주민	405
	서울(마포도서관-고전무용)	지역주민	1,401
민요	대구(북부도서관)	주부	1,450

자료 : 문화체육부, 1997, 전국공공도서관 및 문고현황

<표 4>를 살펴보면 경기, 서울, 전남, 대구 지역에서만 국악과 판소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 경기, 광주, 대구에서 향토연구, 전통문화교실, 민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도와 제주도, 강원도, 광주, 대구를 제외한 전라도와 경상도는 전통·지역 프로그램이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대구의 북부도서관의 경우 참여대상이 주부로 한정되어 있어 학생과 직장인의 경우는 봉사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향토연구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전통·지역 프로그램은 대개의 경우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와 저변확대를 높일 수 있는 전국문화 소집단 현황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전문문예단체, 문예동호인 및 애호가 모임, 문화관련 취미 형태의 모임 등 여러 형태를 띠고 있는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소집단의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지역별 문화소집단 현황

	문학	음악	미술	공연	전통	문화일반	계
서울위성권	13	20	47	21	4	12	117
경기도	55	64	111	45	15	40	330
강원권	69	59	101	23	15	30	297
충청권	97	74	195	61	22	62	511
전라권	119	105	288	79	52	86	729
경상권	259	204	554	176	59	137	1,389
제주권	13	26	39	10	6	20	114
합계	625	552	1,335	415	173	387	3,487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0, 문화소집단 조사연구

위의 표를 살펴보면 문화소집단은 미술 1,335개, 문학 625개, 음악 552개, 공연 415개, 문화일반 387개, 전통 173개로 대부분이 예술과 문학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통의 경우 단체수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경상권이 1,389개로 가장 많은 단체수를 가지고 있고, 전라권과 충청권이 729개, 511개를 가지고 있으며 제주가 114개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전통면에서 전라권과 경상권의 경우는 52개, 59개를 보인 반면 서울위성권 4개, 제주권 6개, 경기도 15개, 강원권 15개

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통·지역 프로그램의 경우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지역별 문화 소집단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심해 이에 대한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은 문화소집단은 물론 문화원·국악원·전수회관과 같은 문화 전수 시설과 상호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4.2. 정보·교육 프로그램

정보사회의 도서관에서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혹은 신문보다도 더 풍부한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지역시민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더구나 도서관의 자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서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각각의 자료는 다른 기록물과 관련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핵심적 기관인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정보와 사상에 대해 더욱 신속한 접근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것이 정보·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교육 프로그램에는 주민대학, 주부교실, 노인교실, 여성상담교실, 건강교실, 교양강좌, 외국어, 컴퓨터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정보화 시대와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인 외국어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 <표 6>, <표 7>과 같다.

아래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어의 경우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한국어가 있는데 영어는 45개 도서관, 일어는 41개 도서관, 중국어는 5개 도서관, 독일어, 한국어는 각각 1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영어, 일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경우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20개 도서관 중 17개 도서관이 외국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남, 강동, 개포도서관을 비롯한 12개 도서관이 영어와 일어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반면 충남지역의 경우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9개 도서관 중 단 1개관만이 일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였다. 또한 서울의 마포도서관, 중계도서관 그리고 경북의 안동도서관은 영어, 일어, 중국어를, 서울의 한국학생도서관은 영어, 독일어, 한국어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에는 2개의 도서관에서 각각 영어와 중국어 프로그램을, 그리고 충남지역에서는 1개의 도서관만이 일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어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영어, 일어를 제외한 중국어, 독일어 등 외국어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표 6> 외국어 프로그램의 지역별 현황

	영 어	일 어	중국어	독일어	한국어
서울	강남, 강동, 개포, 고덕, 고척, 구로, 도봉, 동작, 마포, 목동, 서대문, 정독, 종로, 중계, 한국학생도서관	강남, 강동, 강서, 개포, 고독, 고척, 구로, 도봉, 마포, 목동, 서대문, 어린이도서관, 종로, 중계도서관	마포, 중계도서관	한국학생 도서관	한국학생 도서관
부산	서동도서관	시민, 해운대, 구덕, 구포도서관	시민도서관		
대구	중앙, 서부, 남부도서관	중앙도서관			
인천	북구도서관		서구도서관		
광주	무등, 중앙, 금호교육문화관	중앙, 금호교육문화관			
경기	수원, 과천, 김포, 수원중앙, 안양시립, 안양평촌, 안산관산, 군포시립도서관	수원, 안산관산, 군포시립도서관			
강원	춘천중앙, 원주, 삼척도서관	춘천중앙, 원주, 강릉, 속초, 삼척도서관			
충남		웅진도서관			
전북	진안, 익산문화예술사업소				
전남	목포, 나주, 장흥, 무안, 완도교육문화관	목포, 여수현암, 완도교육문화관			
경북	구미시립, 안동, 상주도서관	안동, 상주, 의성도서관	안동도서관		
경남	창원시립도서관	창원, 김해, 양산, 창원시립, 밀양시립도서관			
계	45	41	5	1	1

자료 : 문화체육부, 1997, 전국공공도서관 및 문고현황

<표 7>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전국에서 19개 도서관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구와 대전, 전남이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반면, 서울을

비롯한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거나 그 수가 적어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외국어 프로그램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수가 적고,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국어 프로그램은 서울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대구, 대전, 전남이 우세하지만 그 수도 만족할 만한 상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정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상당수가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하거나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교양강좌 프로그램처럼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명사강연, 문학강좌, 생활 및 건강강좌, 시인과의 대화 등 교육・정보, 문학・예술, 취미・여가 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형편이다.

<표 7>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역별 현황

	도서관	대상	회수	참가인원
서울	영등포도서관	지역주민	1	85
부산	해운대도서관	주부	52	730
대구	중앙도서관	시민	270	31,378
	북부도서관	초・중학생, 일반	973	12,061
	서부도서관	학생, 일반	260	23,140
광주	무등도서관	일반시민	96	86,160
	금호교육문화관	지역주민	34	1,360
대전	한밭도서관	주부, 학생, 일반	6	1,547
	용운도서관	주부, 초등학생, 일반	160	21,440
	안산도서관	주부	1	20
충남	공주유구도서관	주부	26	650
전북	남원도서관	주부	15	430
	고창도서관	학생	90	400
	운봉도서관	주부	15	450
전남	목포도서관	지역주민	35	1,400
	나주도서관	지역주민	15	281
	진도도서관	주부, 초등학생, 공무원	28	1,484
경북	경북도립안동도서관	중・고등학생, 일반	590	14,091
	경북도립상주도서관	지역주민	84	1,579

자료 : 문화체육부, 1997, 전국공공도서관 및 문고현황

4.3. 문학・예술 프로그램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학・예술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문학으로 나뉘는데 음악은 기타교실, 노래부르기교실, 가곡・가요, 크로마하프가 있으며, 미술은 묵화, 유점토, 유화, 동판공예교실 등이 그리고 문학에는 구연동화교실, 고서강좌, 문학강좌 등이 포함된다. 이중 미술이 가장 많은 장르를 가지고 있고 교육 및 여가성을 동시에 갖춘 반면 음악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문성보다는 대중성을 중심으로 여가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학의 경우는 산문, 고서, 동화구연 등 장르별로 운영하고 있다. 문학・예술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종류가 많고 강좌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며 혹은 창작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술과 문학 분야에서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순수 아마추어 예술인을 발굴할 수도 있고 전문 예술인의 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어 다른 프로그램보다 체계적이고 지역주민에게 다방면에서의 봉사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청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와 지방의 문

<표 8> 도서관과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운 점

순위	1) 도서관 운영의 어려운 점	2)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	3)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	사서의 전문직 확보 부진 (41.3%)	예산부족 (31.1%)	프로그램 예산확보 (30.3%)
2	총 예산 규모의 절대 부족 (40.2%)	시설・공간의 부족 (17.5%)	강사 및 운영인력 확보 (16.9%)
3	도서관 자료 확보 부진 및 낙후성 (32.6%)	직원부족 (17.2%)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16.0%)
4	내・외곽시설 부족 및 낙후성 (25.0%)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12.1%)	자료 및 비품의 확충 (14.5%)
5	행정직, 관리직, 사무직 부족 (18.5%)	이용자의 인식부족 (11.8%)	적극적인 홍보 (12.5%)

자료 : 1) 서혜란, 1992. "공공도서관의 재원확보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23집(1986년도 조사 내용임)
2), 3) 김은정, 1995.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화 예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고 다른 공공서비스와 경쟁시 투자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액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문학·예술 프로그램의 경우 기타나 크로마하프 같은 악기, 혹은 미술 재료 등이 요구되어지고 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보다

<표 9> 문학·예술 프로그램의 지역별 현황

지역	도서관 및 프로그램 내용
서울	강남(묵화), 강동(사군자), 강서(묵화), 개포(사군자, 산수화, 어린이 글짓기 교실, 동화구연), 고덕(동양화, 가요교실), 고척(포크기타, 묵화), 구로(독후감 감상화그리기), 남산(독서와 논술), 도봉(사군자, 민화, 한지공예), 동작(묵화, 동양화), 마포(수필문학, 독서 및 글쓰기, 사군자, 서양화, 생활도예, 팝아트, 가요교실, 산수화, 바이올린), 목동(묵화, 노래교실), 서대문(묵화, 한국화), 송파(청소년 논술, 독서문화), 어린이도서관(사군자), 영등포(어머니 독서대학), 종로(도예, 묵화), 중계(한국화)
부산	시민(동양화, 노래부르기), 해운대(어린이글짓기), 구덕(토요독서학교), 연산(사군자)
대구	중앙(한지공예), 효목(사군자), 동부(가요)
인천	중앙(동양화), 부평(문예), 화도진(동양화), 주안(생활도예, 사군자, 미술, 독서), 서구(주부독서), 북구(동양화)
광주	무등(동양화), 사직(동·서양화), 중앙(건전가요), 송정(서화)
대전	시립(문학, 청소년독서지도)
경기	수원(문예, 동화구연), 성남(사군자, 동화구연, 미술), 과천(동화구연, 사군자, 수필), 수원 선경(동화구연), 광명 시립(동화구연, 할머니·손녀 공예), 고양 시립(어린이 구연동화), 군포 시립(동화구연), 의왕 시립(문학, 동화구연, 논술과 문학)
강원	춘천 중앙(시 창작, 신문 창작), 강릉(서양화, 문예 창작), 속초(한국화), 동해(사군자)
충북	영동(동양화), 금왕(한지 공예, 유화)
충남	천안(펄프 공예, 수채화), 천안 중앙(사군자), 웅진(도자기 공예)
전북	고창(영상·음악 문화)
전남	고흥(동판공예), 해남(어머니 독서, 공예), 순천 시립(문학)
경북	구미(한지 공예, 수필), 안동(서화, 한지 공예), 상주(한지 공예), 외동(글사랑 교실)
경남	창원(동양화, 미술교실, 어린이 구연동화), 울산 중부(동화구연), 삼천포(글짓기), 김해(청소년 연주), 창원 시립(주부 노래)
제주	제주(동화구연), 우당(수직 공예), 서귀포종합문예사업소(칠보공예, 한국화)

자료 : 문화체육부, 1997, 전국공공도서관 및 문고 현황

공공도서관 예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공공도서관 운영의 어려운 점,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운 점,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의 관계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이러한 예산 문제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모두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1986년의 도서관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 총예산 규모의 절대부족(40.2%), 도서관 자료 확보 부진 및 낙후성(32.6%), 내・외곽 시설 부족 및 낙후성(25.0%) 모두 예산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1995년도 문화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1, 2위가 예산과 관련된 예산부족(31.1%) 및 시설・공간의 부족(17.5%)으로 나타났고 활성화 방안 역시 프로그램 예산확보가 가장 많은 퍼센트인 30.3%를 보여 예산과 문화프로그램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예술 프로그램의 지역적 현황은 <표 9>와 같다.

문학・예술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도서관 수와 종류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고 미술 프로그램은 묵화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음악 프로그램은 포크기타와 가요, 노래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천의 경우는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예술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문학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시립도서관에서 문학・청소년 독서지도만을, 전북의 경우 고창도서관에서 영상・음악 문화만을 실시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문학・예술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4.4. 취미・여가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에는 서예, 꽃꽂이, 한문, 수지침, 바둑, 탁구, 종이접기 등 종류가 많은데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국 162개 도서관 중 144개 도서관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표 10>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서예, 꽃꽂이, 한문 프로그램의 지역적 현황을 보여준다.

취미・여가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서예는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국 162개 도서관 중 101개 도서관에서(62.3%), 꽃꽂이는 61개 도서관에서(37.7%), 한문은 43개 도서관에서(26.5%)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보다는 자관의 편의성 위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0> 서예, 꽃꽂이, 한문 프로그램의 지역적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서예	14	13	9	5	4	1	6	11	8	8	1	3	5	9	4	101
꽃꽂이	13	7	7	1	4	-	5	2	1	1	-	15	3	-	2	61
한문	8	3	8	-	-	-	4	8	1	3	-	-	6	1	1	43

자료 : 문화체육부, 1997, 전국공공도서관 및 문고 현황

지금까지 문화프로그램을 전통·지역 프로그램, 정보·교육 프로그램, 문학·예술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도서관 수 및 예산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문화프로그램 사이에서도 문학·예술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전통·지역 프로그램은 수적인 면에서나 지역주민의 지지도면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지역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이 요구되어 진다.

5.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지역간 균형 전략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문화적, 물질적 복지를 달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며,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 정보제공, 문화 및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공평성보다는 효율성 위주로 그리고 도시화 현상 및 경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정치 및 사회·문화 발전의 지역적 불균형은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경제 발전에 따른 지역간 격차를 경험한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맞는,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서의 문화적 기능은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격차가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주 봉사대상자는 지역주민이고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원거리 이용보다는 장서가 적더라도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어느 곳에서나 도서관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리적 여건과 인구수를 고려해서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있는 공공도서관 수가 바탕이 되어야만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 미국, 영국 등 공공도서관이 발전한 국가들은 지방세 중에서 일정비율을 도서관 운영비로 할당하고 주 정부는 인구비례에 의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공공도서관 중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재정이 모두 어려운 사정에 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의 실수요자가 지역사회의 주민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행정적 보장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국가에서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법적으로 일정금액을 반드시 보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예산은 문화프로그램의 수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특히 문화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독립 항목의 설정은 전체 도서관 예산 여부에 따른 문화프로그램의 영향을 최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문화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여 실시도서관 수 및 참여도를 늘려야 한다. 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 선정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도를 조사·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여러 문화프로그램 가운데 전통·지역 프로그램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는 전통·지역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태이며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에 속해있는 문화 소집단, 문화 전수 시설 및 그 이외의 다른 문화기관과 서로 상호 협력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 사이에서도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타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리적 괴리를 극소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단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기존에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참여를 저

해하고, 뿐만 아니라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도서관이 아닌 타 기관을 찾게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자체 직원을 교육시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인을 배출하도록 해야 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 사설기관과의 차별화를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프로그램에 대한 봉사대상자를 확대시켜야 한다. 상당수의 문화프로그램은 여성 특히 주부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과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 이용자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시급히 요구되어지며, 직장인의 경우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간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이는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6. 결 론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전통・지역프로그램, 정보・교육프로그램, 문학・예술프로그램, 취미・여가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지역간 불균형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도서관 수를 비롯해 프로그램의 종류 및 운영회수 등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나타났으며, 문화프로그램의 차체로도 전통・지역프로그램이 다른 문화프로그램보다 수적인 면에서나 지지도면에서 낮게 조사・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지역간 균형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 주민이 좀더 편리하게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수를 늘려야 하며, 둘째, 공공도서관의 예산 확충 및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독립항목이 설정되어야 하며, 셋째,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를 제고시켜 문화프로그램 실시도서관 수 및 참여도를 늘려야 하며, 넷째,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섯째,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봉사대상자를 확대시켜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확실하게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균형적인 발전은 지역사회의 요구, 특히

지역주민의 요구이며, 지역사회를 떠난 문화프로그램은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균형적인 문화프로그램의 확립은 공공도서관의 존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인식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의 초석이므로 공공도서관 및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의 계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능을 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간 문화수준의 성장을 도모하며, 문화적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현황과 그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과 방안은 문화프로그램의 관련기관 및 각각의 실무자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욕구 그리고 지역 환경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각 도서관 자체의 봉사내용 및 봉사형태와도 연계되어 연구·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도연. 1998.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고찰 : 아동 및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 교육대학원.

김은정. 1995.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정근, 장현덕. 1994.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 3-73.

김창수. 1998. "공공문화기능으로서의 공공도서관 : 영국공공도서관의 사례 연구" 『광주대 사회과학연구』, 8, .485-504.

노영숙. 1997.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 행정대학원.

문화체육부. 1997. 『전국공공도서관 및 문고 현황』. 서울: 문화관광부.

박윤기. 1999. 『설립주체에 따른 주부 컴퓨터 교실의 효율성 비교 연구 :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교육대학원.

백형배. 1988. 『한국경제계발계획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문정수. 1997. 『공공도서관 여성문화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서혜란. 1992. 『공공도서관 재원확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손정표. 1993. "지방자치체제하에서의 공공도서관 지역계획에 관한 고찰" 『도서관』, 48.

안효명. 1998. 『주부들의 사회교육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사회대학원.

유상덕. 1979. "도서관과 지역사회" 『도서관』, 34(8),

유만철. 1992. 『공공도서관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윤 영. 1983. "공공도서관의 평생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도서관학논집』, 10, 133-155.

이두영. 1991. "지역문화 발전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논단』, 23, 167-173.

이용남. 1990. "문화매체로서의 공공도서관" 『문화예술』, 128, 4-7.

장영희, 안재학. 1996. 『지역 정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정정식. 1998. "공공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디지틀도서관』, 11, 20-27.

한국도서관협회. 1990.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1992. 『도서관 백서』. 서울: 삼아.

한국도서관협회, 1999.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도서관협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 연구소. 1990. 『문화소집단 조사 연구』. 서울: 문예진흥원.

Davies, D. 1974. *Public Libraries as Cultural and Social Center : The Origin of the Concept*. Metuchen, NJ: Scarecrow Press.

IFLA. 1986. *Guideline for Public Libraries*. Paris: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Lynch, M. 1978. "Educational,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 of the library for adult" *Library Quarterly,* 48, 476-487.

O'connor, D. 1990. Library Education and Leadership : *Public Library as a Right of Citizen.* Metuchen, NJ: Scarecrow Press.

Robotham, J., LaFeleur, I. 1981. *Library Program: How to Select, Plan, and Produce Them*. New York: Knowledge Industry.

Roger, A., McChesney, K. 1984. *The Library in Society.*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중심으로 -

이 연 옥*

<목 차>

<Abstract>
1. 서론
2. 외적 조건
  1) 사회적 환경
  2) 도서관 정책과 현황
3. 내적 조건
  1) 제도 개선과 전문화를 위한 노력
    (1) 도서관법의 제정
    (2) 전국도서관대회의 개최
    (3) 지구협의회와 공공도서관부회 건설
    (4) 전국공공도서관장대회의 개최
  2) 성과와 한계
4. 운동의 양태
  1) 민간도서관 운동: 마을문고운동
    (1) 운동의 배경과 발전과정
    (2) 운동의 이념과 성격
    (3) 운동의 좌절 요인과 의의
  2) 공립 공공도서관 운동
    (1) 전국적 차원
    (2) 개별 단위 도서관
5. 결론: 정리와 평가
  1) 전체 운동의 흐름과 의미
  2) 인적자원 측면에서의 평가
  3) 조직 측면에서의 평가
  4) 한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ublic library movement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1960s and 1970s and especially to identify rises and fall of the movement in the context of library history in Korea. For this, the circumstances in the Korean library world and the process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are reviewed.

Finally the result and the limit of the movement are evaluated as well.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1. 서 론

우리나라에서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탄생한 것은 개화기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개화기 지식인들은 서구의 새로운 지식의 보급과 확산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서관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화기 지식인들은 지식과 정보의 대중적 보급의 실현을 보장하는 공간이 바로 공공도서관임을 자각하고 신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설립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식인들의 자각에서 출발한 공공도서관 운동은 일제 식민치하를 겪으면서 좌절을 겪게 된다. 민중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지식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민중과 유리된 제도적 기구로 전락하고 만다.

해방 직후, 현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도서관을 온전히 이관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우리 민중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서관운동은 또 한번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 이후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은 다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공공도서관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운동에서부터 민간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생적 운동들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 도서관운동 또한 바로 지식과 정보의 대중적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우리의 자생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 70년대를 초점에 두고 이 시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운동의 구체적 활동과 성과들을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시기 한국이라는 터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과 성과들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의 상황과 맥락에서 어떻게 공공도서관 운동이 일어나고 진행되어 왔는가를 과거와 오늘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땅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이를 토착화하려는 자생적인 경험과 도전과 성공과 좌절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조명함은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방향과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구체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6, 70년대 우리나라 도서관운동의 역사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문헌을 통한 고찰과 증언을 통한 고찰을 동시에 행하였다. 당시의 도서관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문헌과 도서관운동을 체험했거나 관찰한 인적 자원들을 중요한 사료원으로 활용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 시기의 도서관 현상과 도서관운동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규명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2. 외적 조건

1) 사회적 환경

6, 70년대의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다. 4・19혁명, 5・16군사 쿠데타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기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는 군부정권이 지속되었고, 경제면에서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개발독재가 추진됨으로써 큰 폭의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급격히 겪게 되었고 반면 농촌사회는 해체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1971년부터 농촌의 근대화라는 명목하에 전개된 새마을운동은 70년대에 있어 국정최고의 목표로 설정되어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이른바 '잘 살아보세'라는 대물결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 결과 우리 사회는 경제부문의 집중적 개발로 말미암아 물질적 부를 어느 정도 보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시민의 정신함양을 위한 사회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삶의 질은 주로 물질적 부에 의해 담보되는 것으로 여겼고, 궁극적으로 물질적 부를 가져오게 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의 접근과 보급을 보장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인색하였다. 또한 박정희정권이 군사정권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극심한 정보통제에서 찾으려 했기에 책과 언론에 대한 탄압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민중의 알권리와 읽을 권리의 보장은 요원하기만 하였다.

한편, 이 시기 우리 사회의 교육은 매우 숭상되고 존중되었으나 주로 '전문직과 관공리의 양성에 치중한 나머지 이른바 졸업장에 대한 병적 애착현상'[1]을 초래하였다. 또한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틀에서 못벗어났고, 교육방식에서도 '서적유도적 교수법'이 아니고 기계적인 암기식 교수법이라 학생들은 '교재-강의-복습-시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시기 공공도서관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까? 이 시기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자료와 정보의 접근지가 아니라 '학생과 재수생의 공부방'이란 기이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공공도서관이 공부방으로 뒤바뀌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 교육의 특징과 구조에 연유하는데 이를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데이비드 케이저 등저, 김두홍・정필모 옮김, "아시아 8개국의 도서관 발전", 『발전도상국의 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1970, 54쪽.

> 한국의 공공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용도의 종류는 서방제국의 최근 경험과는 판이하다. 여기에 있어서는 도서관 고객의 거의가 책보다는 오히려 자습할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기다란 고객의 줄-대개는 자기의 책을 소지한 학생들이다-이 개관하기 꼬박 한시간 전부터 도서관 바깥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의 책을 맨 먼저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습실의 좌석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이다. 하루종일 도서관이 만원이 되는 날이 많아서 새로 찾아온 고객은 먼저 온 고객이 퇴관해야만 입관할 수가 있다. 도서관을 큰 자습실로 이용하고 있는 이 현상은 주로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1) 각급 학교 및 관공서에서 시험에 합격하는 일을 강조하는 점, 그리고 (2) 많은 영세 가정에 있어서 정숙한 공부방이 부족한 점이다. … 도서관에서의 낮은 도서이용률은 한국이 과거에 초중등학교나 대학에 있어서 강력한 서적 유도적 전통을 갖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줄 안다.[2)]

이 글은 서양의 도서관 전문가 눈에 비춰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모습이다. 공공도서관을 공부방으로 전락시키는 주 요인이 바로 입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한국 교육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 서양 도서관인의 눈에도 그대로 읽히고 있다. 바로 우리의 전근대적 교육상황과 삐뚤어진 교육열은 도서관 문화가 뿌리내리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높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도서관은 교육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 오히려 공공도서관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이라는 교육 풍토 속에서 설자리를 잃고 방황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6, 70년대 우리사회의 제반 상황은 공공도서관 발전에 그다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경제적, 물질적 근대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추구가 부상하는 사회였고,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 교육, 문화의 전반적 모습은 전근대적 상황에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도서관 문화의 꽃을 피우는 사회적 분위기로 작용하기에는 불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전근대성이 팽배한 6, 70년대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정보와 지식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근대적 기관'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공부방'이라는 왜곡되고 기이한 전근대적 형태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

2) 위의 글, 59-60쪽.

2) 도서관 정책과 현황

앞서 살펴본 대로 6, 70년대 우리 사회는 도서관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그다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볼 때 이 시기 정부의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도서관정책 부재에 대한 도서관인들의 건의와 항의가 수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도서관발전을 논의하는 장에서 빠지지 않고 건의하였으나 오랜 동안 '정책부재'의 상태에 머물고 있어 도서관인들의 자탄은 거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인들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성과가 바로 도서관법의 제정이다.

정부는 1963년에 도서관법을 입법 공포하였고, 1965년에는 도서관법시행령을, 1966년에는 동시행령규칙을 공포하여 불완전하나마 도서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문화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외적인 강제력이며, 도서관봉사 활동의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도서관 정책과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법으로 표명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도서관 정책 구현의 적극성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라기보다는 순전히 도서관인들의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법은 당초 입안과정에서 전국 지방의 각 시, 군, 읍, 면에 공공도서관의 의무적 설립을 강조하였으나, 당시 국가의 국방력 강화와 긴축재정의 벽에 부딪쳐 실제 제정된 도서관법은 과대한 국고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미온적인 수준에 그쳤다. 강제력을 상실한 도서관법은 그후 25년간 적용되어 오는 동안 법규상의 미비점이 점차 심화되어 결국 공공도서관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3] 결국 도서관법의 미비로 인해 도서관의 발전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낙후된 법을 개선하기 위한 도서관인들의 운동은 도서관법 공포 직후부터 또 다시 시작된다.

도서관법제정과 더불어 이 시기 정부에 의해 마련된 도서관정책으로는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인「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안」이 수립되었다. 이 또한 도서관인들의 노력과 건의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먼저 1966년 12월 전국 공공도서관장 회의에서 「전구 시・구・군 단위 공공도서관 설치 3개년 계획안」을 마련하여 당국에 건의하자 문교부에서 「도서관정책수립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였다.[4] 이는

---

3) 김포옥, 「광복이후 한국 공공도서관사 연구: 일제하 공공도서관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1990, 27-28쪽.

4) 신학균, "1967년도에 있어서 한국 도서관계를 돌아보며",《도서관》, 23권 1호(1968. 1・2), 7-8쪽.

시, 군, 구 단위로 최소한도 1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중에서 시설 기준 미달인 것은 그 기준에 올려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1968년을 기점으로 신설과 확충을 합하여 연차적으로 1968년 28개관, 1969년 42개관, 1970년 47개관, 1971년 40개관, 1972년 25개관의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신설 및 확충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군 단위 도서관은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 부담토록 하는 원칙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필요한 예산에 훨씬 미달하는 보조와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에 따라 당초의 5개년 계획은 차질을 가져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5개년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연장하였는데 1974년부터는 국가보조마저도 중단되어 버렸다. 결국 정부에 의해 추진된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은 국가가 도서관은 '건물만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한 전형적 사례이다. 결국 국가에 의한 도서관설립과 운영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 속에서 국가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황폐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럼 이 즈음에서 이 시기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표>에 의하면 도서관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진 시기가 1964년도와 1974년도라는 것이 확인된다. 1963년도에 27개관이던 것이 1964년에 48개관으로 21개관이 증설되었고, 또 1973년에 61개관이던 것이 1974년에 101개관으로 40개관이 증설되었다. 1964년도의 대폭적 증설은 그 해 교육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경기도 지방에서만 1군 1도서관제의 실시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내무부 소속의 군립도서관 12개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이다.[5] 또 1974년의 공공도서관 증가는 당초 국가적 계획에 비해 미미한 성과이긴 하였으나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에 따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원래 132개관을 신설하기로 하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32개관만이 증설되었다.[6] 결국 5개년 계획은 이 시기 공공도서관의 수적 증가를 미흡하나마 이루어냈다는 것이 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5) 김포옥, 앞의 글, 30쪽.
6) 위의 글, 같은 쪽.

<표> 6, 70년대 공공도서관 연도별 현황

연도	도서관 수	직원 수	장서 수	예산(단위:원)
1960	18	143	576,260	
1962	21	211	604,231	
1963	27	237	634,268	
1964	48	341	691,898	7,166,714
1965	49	412	694,515	9,106,936
1966	53	455	772,619	77,967,314
1967	57	456	820,954	132,335,700
1968	59	463	864,402	124,434,572
1969	61	556	927,684	183,125,555
1970	59	561	1,001,745	248,162,450
1971	64	643	1,039,103	367,476,000
1972	71	675	1,167,116	413,141,690
1973	69	742	1,271,444	531,339,473
1974	101	828	1,136,363	538,428,316
1975	109	962	1,498,336	807,508,000
1977	107	1,117	1,584,706	2,005,829,000
1979	119	1,228	1,851,384	3,849,550,000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결론적으로 6, 70년대 우리 사회의 도서관은 그 수적으로도 매우 부족하였고 국가의 도서관정책 또한 미흡하기 그지없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기획하거나 국가 도서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 하나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도서관행정의 부진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이 시기 정부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의 도서관정책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에 머물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땅에 도서관문화를 세우기 위한 도서관인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은 거듭된다. 그럼 다음절에서 이 시기 도서관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활동을 추적해보자.

3. 내적 조건

이제 6, 70년대 공공도서관계의 내부적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이 시기 도서관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도서관계 내부의 활동과 그 성과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시기 도서관인들의 내부적 활동은 도서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는 활동으로 집약될 수 있다. 동시에 도서관인들 스스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이루어진다. 도서관계 내부적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 공공도서관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계 내부의 조건과 역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제도 개선과 전문화를 위한 노력

(1) 도서관법의 제정

이 시기에 도서관계에 있어서 획기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서관법의 제정이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이의 제정은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일선에서 여러 해 동안 애태우고 목마르게 갈망하여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법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55년 4월 16일 한국도서관협회의 창립총회에서이다. 한국에서 도서관봉사의 성과를 내어오기 위해서는 도서관 발전의 기본적 조건을 법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한국도서관협회의 창립을 계기로 도서관법 제정 활동을 착수하게 된다. 창립총회에서 도서관법 제정 공포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결의한 후 1955년 5월 1일 건의서를 문교부와 국회문교분과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서 법제정에 대한 본격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1963년 10월 28일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8년 동안 7회에 걸친 초안작성과 20여 회에 걸친 건의와 진정이 있었다.[7] 정치적 사회적 혼돈 속에서 도서관법제정운동은 수없이 좌절을 겪었으나 도서관인들의 끝없는 활동과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로 도서관법이 공포되고, 이후 1965년 3월 26일 도서관법시행령이 공포된다. 도서관법의 제정으로써 도서관봉사 활동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셈이 되며, 이로써 국가에 의한 도서관정책이 마련되어 도서관문화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외적인 강제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

7) 이종문, "도서관발전의 당면과제: 도서관법을 중심으로" 《출판문화》, 1(1965, 3・4), 11쪽.

그러나 '이 법의 제정 경위는 실로 문자 그대로 수난의 연속'[8]이었다. 법제정에 대한 도서관인들의 끊임없는 건의와 노력이 있었기에 도서관에 무지한 행정당국을 설득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도서관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 도서관법 제정 실무에 참여한 문교부 법무관 김강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내가 이 법을 취급하면서 처음 느낀 것은 법제정에 있어서의 과정입니다. 대개 법이란 어떤 동기에 원인하여 만들어지는데 과거 제정된 대부분의 법은 관청내부의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껴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서관법을 제정하면서 주무과장이 세분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무 보는 사람들 자체는 직접 이 도서관법에 대한 절실한 요망을 느끼지 못한 것을 실제적인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의 열성 있는 건의와 추진으로 결국은 행정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성공시켰다고 봅니다.[9]

이처럼 도서관인들의 다각적 노력에 힘입어 제정된 당시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하고, 직원과 시설, 장서 등 운영 요소에 대한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10]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고, 통일적인 행정체제가 미비하였으며, 관장을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화에 소극적이었다는 흠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 법에는 도서관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어 공공도서관 존립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무료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도 지녔다. 특히 당초 입안과정에서는 전국의 시·군·구에 공공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도서관 육성을 국가시책으로 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국가의 재정사정을 이유로 다만 도서관활동을 권고하는 미온적인 법률로 확정, 공포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도서관인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었다. 당시 도서관계는 도서관 육성에 대한 국가의 시책이 표현되지 않은 이러한 법제정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내용의 법률일지라도 법제정 자체로써 도서관육성을 강구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입

---

8) "도서관법좌담회 회의록", 《도협월보》, 4(1963. 9·10), 12쪽.
9) 위의 글, 13쪽.
10)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 제1장 제1조(1963년 10월 28일 공포)

안을 환영하였다.[11] 그럼 법제정 당시의 도서관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

> 이것은 우리들의 기대에 비해 결국 미흡한 입법 조치가 되고 말았지만, 아쉬운 대로 우리 도서관인들이 10년을 두고 울부짖던 한탄은 다소나마 해소된 셈이다. … 아무튼 이러한 입법조치는 그래도 국가가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나머지 그를 육성발전 내지 전파시키려는 최소한의 의사표시라 보아 앞날을 위해 기쁜 일이라 하겠다. 이제 정부나 지역당국은 이 미흡한 법령이나마 그 입법정신을 최대한으로 알뜰히 살려 도서관사업을 신장시키고, 도서관인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으며, 도서관인은 이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주민의 지식추구와 두뇌계발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새로운 전진을 촉진시켜 갈 수 있는 原動者가 되어야 할 것이다.[12]

이와 같이 도서관인들에게는 아쉽고 미흡한 법이었지만 도서관법제정은 국가가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도서관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나타냈다는 측면에서 당시 도서관인들은 부족하나마 위안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후 도서관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 제정된 도서관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의하여 그것의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또다시 전개하게 된다.

(2) 전국도서관대회의 개최

도서관인들은 도서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마련하는 활동과 더불어 스스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서관이 당면한 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인 도서관 진흥책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한다. 바로 전국 도서관인들의 모임의 장인 「전국도서관대회」의 개최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도서관인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나름의 노력으로 사서들 스스로 도서관문제를 모색하고 해결하려는 의도 속에서 개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전국도서관대회는 1962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중앙교육연구소와 숭의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피바디 교육사절단에서 경비 3분의 2를 지원하였는데 250여명의 도서관인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관종부회 및 전체회의를 통하여 도서관계의 총결산과 아울러 앞으로의 진로에 대

---

11) 지민, 「도서관정책 형성에 있어서 한국도서관협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41쪽.
12) 장인식, "지역사회개발과 공공도서관", 《도협월보》, 6권 4호(1965. 5), 2쪽.

한 모색이 논의되었다.[13] 그럼 제1회 도서관대회 개최를 주도한 도서관협회의 상무이사인 박희영의 말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 1962년에 처음으로 도서관인이 모여 도서관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도서관협회에 와서 느낀 점이 과연 한국에 도서관법만이 없어서 도서관이 발전 못한 것이냐 그러면 도서관법이 나오기까지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법이 불원 나왔을 때에 대비하여 우리가 먼저 해결할 것은 없느냐, 있다면 무엇이냐 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대회를 개최하였고 전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246명이란 현직 도서관인이 모여 현재 어느 시점에 서 있느냐, 그리고 도서관법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시키느냐, 또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면서 일면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를 2일간 진솔하게 회의를 가진 겁니다.[14]

도서관대회는 1962년 이후 매년 개최되었다. 이는 당면한 도서관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임과 동시에 도서관현실을 개선하고 건의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그것을 대정부 건의로써 촉구하는 결의의 장이기도 하였다. 도서관대회를 통해 도서관인들은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도서관대회라는 공간에서 주로 논의된 문제는 도서관소속청 일원화문제, 사서직 정원확보, 재정확보, 입관료 폐지, 국가기구 도서관담당관 배치, 시・구・군 단위로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문제, 사서직 대우개선, 열람시간과 휴관문제, 지방공무원령에 사서직을 규정하는 문제, 공공도서관 홍보활동의 지원 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의들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아주 미미하기만 하였다. 결국 도서관대회마다 똑같은 건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상황이 거듭되었다. 따라서 사서들 스스로 도서관대회의 목적이 '건의문 채택과 푸념을 늘어놓기 위한'[15]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을 하기에 이르게 된다. 다음을 보자.

> 비단 공공도서관대회 뿐만 아니라 현금 우리나라에서 각종 도서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한곳에 모여 각자가 가진 바 문제를 공동의 의제로서 토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아직도 인식

---

13) 김석순, "1962년도의 도서관계 개괄", 《도협월보》, 3권 8호(1962), 1쪽.
14) 이는 1963년 10월 8일 도서관법 좌담회 회의에서 박희영 당시 도서관협회 상무이사가 한 말이다.("도서관법좌담회 회의록", 《도협월보》, 4(1963. 9・10), 14-5쪽.)
15) 조상현, "1965년도 공공도서관의 회고",《도협월보》, 6권 10호(1965. 12), 5쪽.

이 부족한 사회를 계몽하려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극히 피상적인 단견일지도 모른다. 아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재고할 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한국적 도서관대회의 슬픈 현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실제 있어서 올해도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못한 채 다섯 번째 공공도서관대회를 갖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현금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 양과 질에 있어서 가장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계의 현실, 안팎곱사등이가 되어 일어서지도 주저앉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들 공공도서관인들은 「해보고야 말겠다」는 의욕하나를 기둥 삼아 해마다 「그래도 좀 무언가 변화가 있겠지」하는 기대를 가져보나 으레 이런 기대들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마니 이제는 우리들 자신도 기진맥진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해를 거듭해도 상정되는 의제는 변함이 없고 마치 녹음장치라도 해놓은 것처럼 같은 발언에, 같은 하소연, 그리고 작성된 프로그램처럼 대회의 「엔드・마크」는 메아리 없는 건의문 작성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16]

이와 같이 성과 없이 매년 되풀이되기만 하는 도서관대회에 대한 도서관인들 스스로의 자조 어린 푸념에도 불구하고 대회는 매년 계속되었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정기총회나 공공도서관대회에서 채택, 건의하는 일 또한 지속되었다. 당시 도서관인들은 도서관대회가 단지 도서관인들의 친목회가 아니라 도서관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도확립을 촉구하는 대화의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으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가를 상대로 펼친 건의와 항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으며, '쇠귀에 경읽기'에 불과하였다. 결국 도서관대회를 통해 "절벽처럼 우뚝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의 몰인식과 제반 악조건을 깨치고 도서관인 뜻을 밝은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한"[17] 도서관인들의 노력은 거듭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도서관인들은 도서관대회에서 주로 입법이나 행정 당국과 관련을 갖는 재정문제, 직제개편, 소속청문제 등의 정책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별다른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자 차츰 도서관운영과 서비스에 관련한 것을 함께 연구하고 발표하여 공유하는 자리로 활용하게 된다.

---

16) 백영수, "공공도서관 대회의 방향", 《도서관》, 105호(1966. 5), 5-6쪽.
17) 위의 글, 같은 쪽.

(3) 지구협의회와 공공도서관부회 건설

도서관대회 외 당시 도서관인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서관계의 세부조직 건설 및 그와 관련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 또한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다. 도서관협회는 각 지역에 지구협의회를 건설하고, 각 관종별로 도서관부회를 건설하는 데 매진한다.

먼저 지구협의회는 한국도서관협회의 지방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63년 1월 20일 도서관협회 제9차 정기총회에서 각 지방에 지구협의회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게 됨으로써 탄생하게 된다. 이로써 1963년 3월에 부산지구도서관협의회가, 6월에 대구・경북지구도서관협의회가, 9월에는 광주・전남지구도서관협의회가 결성되었다.[18]

지구협의회는 모든 관종의 도서관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연구하기 위한 의도에서 설립되었다. 이들 지구협의회는 지역별 도서관이 처한 당면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아울러「도서관보」를 발간한다든지,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홍보하는 역할, 도서관운영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다.[19]

한편, 공공도서관부회는 1968년 4월 25일 개최된 제4회 도서관대회에서 채택된 부회 설치 건의에 따라 탄생하게 되는데 부회의 공식적 발족은 1968년 10월 30일과 31일 부산시립도서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이루어졌다.[20]

공공도서관부회는 '도서관협회에 가입 등록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며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업수행을 목적'[21]으로 한다. 부회는 당시 어느 관종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공공도서관계의 당면과제를 조직적으로 논의하는 공간으로, 또한 공공도서관의 지난날을 회고하고, 반성하며, 마무리 짓는 자리로, 더불어서 도서관계의 각오와 전진을 기약할 수 있는 도약판"[22]이 되는 담론의 장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봄가을의 세미나 활동을 통해 논의되었다. 이러한 정기적 세미나는 그 당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23]

---

18) 도서관협회 3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글, 139쪽.
19) "지구협의회・부회・협의회의 활동현황과 계획", 《도협월보》, 15권 5호(1974. 5), 2-9쪽.
20) 위의 글, 10쪽.
21)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부회 규정", 《도협월보》, 9권 6호(1968. 7・8), 217쪽.
22) 황천성, "1979년도 추계 전국공공도서관 세미나 式辭", 《도서관》, 34권 9호(1979. 11・12), 4쪽.
23) 장일세, "공공도서관의 오늘과 내일", 《도협월보》, 12권 2호(1971. 12), 3-4쪽.

(4) 전국공공도서관장대회의 개최

이 시기 도서관인들에 의해 진행된 전문화를 위한 노력은 '전국공공도서관장대회'라는 공간에서도 이루어진다. 1966년 4월 22일 개최된 제5회 전국 공공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인 '도서관장회의'를 개최하자고 결의한 후 1966년 5월부터 '전국공공도서관장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된다.[24] 이 모임에서 이뤄낸 대표적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국 시·구·군 단위 공공도서관 설치 3개년 계획안'이다. 이것은 제1회와 제2회 전국공공도서관장대회에서 마련된 도서관건립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계획안이다.[25]

당시 도서관인들은 이 계획안을 청와대,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문교부장관, 내무부장관, 국회 정·부의장, 문공위원 전원, 내무위원 전원, 각시도지사, 각시교육감에게 보내어 도서관에 대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후 이 안은 문교부에서 구성한 「도서관정책수립실무위원회」에서의 검토 후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안」으로 확정되어 제1차년도인 1968년 예산에 1억원 이상의 공공도서관 건립보조비를 계상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최종에 가서는 3천만으로 확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당시 여당인 공화당에서 '도시와 지방에 걸쳐 공공도서관을 늘리고 농어촌문고를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라는 선거공약이 채택되기도 하였다.[26]

이 이외에도 공공도서관장대회에서는 「도서관헌장」[27]을 재정, 배포하여 "도서관자체로서 가져야 할 신조와 나아갈 방향을 다짐하게 하여 법이 규제하지 못한 폭넓은 도서관의 사명을 재인식시키는 계기"[28]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4) 제1회 '전국도서관장대회'는 1966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제2회부터는 명칭이 '전국공공도서관회의'로 바뀌게 된다.

25) 신학균, "1967년도에 있어서 한국 도서관계를 돌아보며" 《도서관》, 23권 1호(1968. 1·2월), 7-8쪽.

26) "제3회 전국공공도서관회의 회의록", 《도서관》, 117호(1967. 5), 7쪽.

27) 당시 제정된 「도서관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헌장: 인류문화의 유산을 보존하고 새 문화창조의 온상인 도서관의 사회성과 공익성을 재확인하면서 서기 1967년 4월 6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공공도서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그 원칙을 천명한다. 1.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 2.도서관은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케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한다. 3.도서관은 생활인의 터전으로서 지역사회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4.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自主自活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한다. 5.도서관은 국제문화의 교량으로서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증진에 이바지한다.("제3회 전국공공도서관회의 회의록", 《도서관》, 117호(1967. 5), 8쪽.)

28) 신학균, 앞의 글, 10쪽.

이상과 같이 이 시기 도서관인들은 열악한 한국 도서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실천을 모색하고, 도서관인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생적인 노력을 다각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활동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일까? 다음에서 고찰해보자.

2) 성과와 한계

이 시기 도서관계 내부의 활동은 도서관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운동과 도서관인 스스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동으로 집약될 수 있다. 우선은 도서관인들의 다각적인 논의와 노력에 힘입어 1963년 도서관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가져왔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도서관 불모지인 당시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서관의 육성과 발전을 내어오기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불안전하고 미온적인 법제정으로 말미암아 도서관 발전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낙후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 도서관인들은 또다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의 개정을 촉구해야 하는 운동과제를 떠 안게 된다.

도서관법이 가지는 문제점과 불합리성은 도서관인들의 마당인 도서관대회에서 지속적인 논의거리로 등장한다. 도서관대회는 도서관이 처한 외적 상황의 개선과 아울러 도서관인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모색하고 연구하는 광장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도서관대회는 도서관이 처한 법적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서관인들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건의를 하였으나 정부의 인식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는 미흡하기만 하였다.

이 시기에 개최된 도서관대회는 주로 도서관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측면 즉 도서관의 외부적 상황에 중점을 두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그 당시 도서관인들이 우리나라 도서관의 열악성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함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고 이의 개선에 초점을 모았던 것이다. 이후 외부환경의 개선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점차 도서관인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논의하고 발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는 주로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각 지역에 지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을 시작하였고, 공공도서관부회를 건설하여 공공도서관 발전을 중점적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장대회를 통해 당시 도서관계의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조직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도서관상황의 개선은 그다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글에서도 이것이 확인된다.

> 조국이 광복된 지 20년! 그 동안 우리는 하나의 도서관이라도 더 세우자, 더 연구하여 유능한 일꾼을 길러내자, 도서관을 보다 충실하게 운영해 보자는 지표아래 안간힘과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그 성과는 우리의 노력에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양적 증가에서도 그랬고 질적 향상에서도 그러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개최되는 관종별 도서관대회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매년 되풀이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29]

당시 도서관인들은 도서관이 처한 법적 제도적 환경의 개선과 도서관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으나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정비례하지는 못한 것 같다. 하나의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면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는 그 운동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간접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힘찬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가적 지원의 경미함으로 말미암아 도서관계의 내부적 상황의 개선은 미미한 차이만 있을 뿐 답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도서관계의 내부적 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운동은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고 이 운동은 다음 시기에서도 계속되어야 했다.

4. 운동의 양태

앞서의 도서관계 내외부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제는 6, 70년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된 도서관인들의 구체적 활동을 추적하고 한국의 상황과 맥락에서 어떻게 운동이 일어나고 진행되었는가를 정리하고 분석할 것이다. 바로 이는 이 땅에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토착화하려는 도서관인들의 자생적인 경험의 역사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이 시기 공공도서관 운동의 양태는 전국적 단위에서 전개된 민간도서관운동인 마을문고운동과 각 지역 단위 공립 공공도서관에서 전개된 운동으로 나뉜다. 각각을 살펴보자.

1) 민간도서관운동: 마을문고운동

마을문고운동은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난 민간의 자발적 운동이다. 이는 농어촌 마을 단위에 문고를 설치하고, 주민이 공동의 힘으

29) 신학균, "도서관운동에서 본 1996년", 《도서관》, 112(1966. 12), 482쪽.

로 관리, 운영하게 하여 전 주민이 독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벌여나간 민간도서관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독서를 통한 민중의 삶의 질 확보'라는 공공도서관 이념을 줄기로 하는 것으로 6, 70년대 공공도서관운동의 주요한 흐름으로 드러난다. 그럼 이 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후 운동의 이념과 성격의 분석을 통해 마을문고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해보도록 하자.

(1) 운동의 배경과 발전과정

60년대 초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스무 여 개 정도의 극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1963년도 제정된 도서관법도 공공도서관 증설을 뒷받침해줄 강력한 법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도서관봉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대섭은 마을문고를 통한 독서운동만이 농어촌의 민중들에게 도서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믿고 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그는 각 마을마다 문고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책과 독서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을 무지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였다. 바로 '마을문고'는 엄대섭이라는 한 개인의 경험과 사상에서 형성되었고 농촌계몽운동으로 출발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마을문고가 탄생되었는지 그 배경을 마을문고 창시자이며 운동가인 엄대섭의 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 나는 1951년 6월 경남 울산군에 개인 장서 3,000여 권을 토대로 사립 무료도서관을 세우고 근처 주민들에게 이용시키는 반면 군내 전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50여 개의 순회문고를 마련하여 농어촌 지대에 봉사했다. 이때 순회문고함으로는 폐품 탄환 상자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오늘의 마을문고를 창안하게 된 동기인 이 탄환상자에 도서관 책 10권 정도씩을 넣어 농어촌 주민들에 돌려가며 읽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운동은 그 당시 농어촌의 독서인구가 아주 적었고, 또한 그들에게 읽힐 도서가 적어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울산도서관의 모든 도서 및 시설을 경주시에 기증하여 그로써 경주시립도서관을 세우고 10년간 관장직을 맡아보았다.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직의 심부름을 맡고 연세대학교에서 도서관학을 연구하면서도 계속 농촌문고란 이름으로 농어촌에 '책보내기'운동을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실패하였다. 이렇듯 책보내기 운동이 실패한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즉 농어촌의 독서운동은 주민 스스로가 자조, 자립적인 운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뒤떨어진 사회의 농어촌일수록 독서운동은 책을 무료로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10여 년간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드디어 1960년 12월에 「마을문고 아이디어」를 창안하게 되었다.[30]

이와 같이 마을문고는 엄대섭이라는 한 개인의 오랜 도서관경험에서 창안된 것이다. 엄대섭은 "가난한 후진국에 있어서는 하나의 장식으로써 소수 형식만의 도서관이 있을 뿐 광범위한 농촌지역 대중들이 지식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밑바닥의 민중들을 조직하여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독서하는 권리'를 쟁취하는 하나의 문화혁명"[31]으로 마을문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바로 농어촌 민중들을 위한 그리고 민중들에 의한 자주적인 독서, 자율적인 독서 운동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으로 소도서관 설립운동으로서 마을문고 운동을을 전개했던 것이다.

엄대섭은 마을문고에 대한 아이디어가 창안되자 곧 경주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변두리 농촌 마을에 문고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독서회를 조직하고 문고함을 비치하여 책을 자치적으로 늘여 가는 동안에 전 부락의 호응을 얻게 됨으로써 실험적으로 설치한 20여 문고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여기에 확신을 얻게 되어 엄대섭은 전국적인 규모로 마을문고 보급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961년 2월 1일 「마을문고본부」(당시는「농어촌마을문고보급회」)[32]를 조직하게 된다.

마을문고운동 초창기에는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마을문고 설립안내서를 배포하여 이들의 고향이나 연고지에 마을문고를 설치하는 일을 권유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당시 전남방적 상무이사인 이종기에 의해 마을문고 1호가 건설되었고, 서울 지방법원수도부장판사인 정영조에 의해 2호 문고가 탄생하는 등 마을문고 다섯 곳이 설치되는 성과를 올렸다.[33] 또한 아동작가인 마해송 등을 비롯한 당시의 저명인사들을 찾아가 마을문고본부 회장 및 이사로 초대하여 문고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1963년에 이르면 마을문고 운동이 전국의 일간신문과 방송의 집중조명을 받게 된다. 이후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호응과 더불어 재정적 후원을 받게 되면서 마을문고는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엄대섭은 마을문고운동이 언론에 보도된 계기와 그 당시 사회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30) 엄대섭, "마을문고의 활동",《도서관》, 108(1966. 8.), 13-14쪽.

31) 엄대섭, "농어촌에 심는 독서의 씨앗: 마을문고 설치 일만 개를 돌파하고", 《신동아》, 1968년 7월호, 253쪽.

32) 「농어촌마을문고보급회」는 1962년 6월 25일 「마을문고진흥회」로 그 명칭이 바뀌고, 1968년 1월에는 다시 「마을문고본부」로 개명된다. (日本圖書館協會, "マウル文庫乃び關聯年表",『マウル(村落)文庫調査研究報告書』, 1987. pp.163-170.)

33) 위의 글, 같은 쪽.

마을문고의 오늘을 결정짓는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정부의 자금보조를 받고자 문교부에 부지런히 출입하던 때였다. 1962년 6월 30일 아침, 문교부관계자로부터 마을문고의 실물이 어떠한 것인지 모양을 보여달라기에 당일로 문고함 하나를 지게로 지고 가서 문교부 현관에 두었다. 마침 이것이 문교부 출입기자단의 눈에 띄게 되었다. 한 기자가 기발한 착상을 인정하는 듯 기자실에 와서 취지설명을 해달라고 청했다. 나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마치 재판관 앞에서 무죄를 애원하는 피고처럼 정성을 다해서 설명하였다. … 바로 그날 오후에 여러 신문사의 출입기자가 사진기자와 같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취재해 갔다. 다음날부터 3일에 걸쳐 모든 중앙지에 대문짝 만하게 크게 보도되었고 통신을 통해서 지방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에서도 여러 각도로 보도되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나와 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줄이야 미처 생각해본 일조차 없었다. 사무실에서는 자기 고향이나 연고지에 문고를 설치하겠다는 독지가가 연달아 찾아 왔다. 미처 목공소에서 문고함을 만들어 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일로 해서 나는 보따리 행상으로 취급받다가 마치 대단한 애국운동이나 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분에 넘치는 인정과 언론계의 계속적인 협조를 받게 되었고, 이것이 마을문고사업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모 신문사로부터 신문사 사업으로 문고설치기금을 모집해 줄 터이니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나는 특정언론기관이 아니라 여러 언론기관의 공동후원이 유익하다 싶어서 각 신문사에 의뢰했더니 다행히 전 중앙지와 방송국 그리고 일부 지방신문이 고맙게도 이에 응해주었다. 각 신문사에서 사고를 내고 문고설치기금을 모금하고 기탁자의 명단을 발표, 또 사설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34]

이와 같이 매일 신문에 마을문고 설치자의 명단이 게재되고 방송되는 등 언론계의 전례 없는 공동후원이 2년에 걸쳐 계속되자 정부에서도 마을문고를 후원하기로 하여 문교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내무부에서는 시・군비로 문고설치를 지원하게 된다.[35] 아울러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마을문고를 지도사업으로 채택, 지원하였다.[36] 이른바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독서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고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던 마을문고운동은 매스컴의 집중적

34) 엄대섭, "농어촌에 심는 독서의 씨앗: 마을문고설치 일만 개를 돌파하고", 《신동아》, 1968. 7, 253-4쪽.
35) 김중한, 『마을문고 운영과 이용자에 관한 연구: 풀브라이트-헤이즈 프로그램 연구보고서』, 마을문고본부, 1978, 13쪽.
36) 日本圖書館協會, "マウル文庫乃び關聯年表",『マウル(村落)文庫調査研究報告書』, 1987, p.166.

보도를 통해 여론이 활기를 띄게 되었고 결국에는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마을문고운동은 보다 확산되었고, 행정지원으로 농어촌의 문고보급과 지도육성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 시기 마을문고가 설립된 농어촌에서는 "청년남녀가 독서회에 모여 책을 사기 위한 회비를 서로 내기도 하고, 오랜 농법을 개혁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37] 등 마을문고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다음의 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마을문고는 잔잔한 마을 안에 풍파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평온한 마을에 문고가 설치되자 청소년들이 다투어 책을 읽고 독서회를 조직한다.… 집집마다 등잔기름이 표가 나게 줄어든다. 밤을 세워 책을 읽고 나무하러 가는 데도 책을 가져간다.… 농사책을 읽고는 농사법에 간섭한다. 축산에 관한 책을 읽고는 닭, 돼지 치는 일에도 간섭을 하고 곡식이나 채소 종자 그리고 농약 치는 일까지 참여하고, 그리고 생활개선독본을 읽고는 변소개량이니, 부엌개량이니, 식생활개선이니 하는 일까지 말하게 된다.[38]

이처럼 마을문고는 독서여건이나 기회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책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농촌사람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독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농촌주민들은 독서를 통해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

이러는 과정에서 마을문고는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언급되어지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그 위력을 떨치기 시작하였다.[39] 그러나 1966년에 이르면 문고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엄대섭은 재정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갖 방법을 시도한 끝에 최후의 방법으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후락을 설득하여 마을문고본부 회장으로 추대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이 시기 상황을 엄대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967년 1월부터 마을문고본부는 재정난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66년도까지는 사업비와 사무비를 정부보조로 충당하였으나 67년부터는 문고수가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에 보조금 전액을 사업비에 충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 직원 8명의 인건비와 통신비 등 일체의 사무비를 마련할 길이 막혔다.

---

37) 위의 글, p.11.
38) 엄대섭, 앞의 글, 255-256쪽.
39) 日本圖書館協會, 앞의 글, p.12.

본부는 발족 후 최악의 수난기를 맞은 것이다. 나는 비관하지 않았다. 일만 개의 문고는 하나의 거대한 민중대학으로 볼 수 있다는 신념 아래 다수의 재벌에 지원을 호소했다. 나의 매일의 일과가 재벌의 간부방문이었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 나는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쓸 결심을 하였다. 대통령께 호소하려는 것이었다. 청와대 김학열 수석비서관을 방문 호소했다. 자기도 적극 협력할 터이니 이후락비서실장께 호소해보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이실장과 동향친지라는 고태진(상업은행 상무이사)씨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괴롭혔다. 그렇지만 나는 구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투쟁하는 자세로 간청했다. … 드디어 6개월만에 이실장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40]

이후락 비서실장 설득 이후 당시 기업인들로 구성되는 재단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또한 당시의 재벌들을 마을문고본부 임원진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이 때 구성된 임원진을 살펴보면 회장에 이후락(당시 청와대비서실장), 상무이사에 엄대섭, 이사진에는 고태진(은행가), 방일영(조선일보회장), 서정귀(호남정유사장), 조성욱(문교부 문예체능국장), 감사에는 김상수(실업가), 정택락(실업가)[41]으로 그 시절 유명 기업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당시 마을문고본부 총무부장으로 활동했던 이용남은 이 시기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42]

이후락씨의 회장 취임 승낙을 받은 후 첫이사회가 국립도서관의 한 귀퉁이 마을문고본부 사무실에서 열렸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유명 재벌들이 모이는 장소라 당시 국립도서관은 난리가 났었다. 당시 나의 직함은 총무부장이었는데 나는 임원으로 위촉된 재벌들에게 출연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일이었다. 이것은 마을문고운동의 위력이기보다는 엄대섭 개인의 대단한 정열과 노력과 집념의 결과였다.[43]

---

40) 엄대섭, 앞의 글, 256-257쪽.
41) 日本圖書館協會, 앞의 글, p.167.
42) 이후 장상태(동국제강사장), 유찬우(풍산금속사장), 최성모(신동아그룹회장), 최종현(선경그룹회장) 등의 경제계 인사들도 이사진에 참여하게 된다.
43)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용남 교수와의 대담, 2000. 2. 8. 16:00-19:00, 서울 광화문 근처 찻집.

이후 마을문고설치사업은 점차 속도를 내어 1968년에 그 수가 1만을 돌파하였고, 1971년에 2만을 넘어섰으며, 74년 말에는 30,206의 촌락에 35,011의 문고가 만들어지는 성과를 올렸다.

1975년부터는 문고를 설치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주로 설치된 문고의 육성 사업에 전력하였다. 문고회의 조직과 지도, 문고지도자교육, 새마을 총서의 발간[44]과 기증도서의 수집과 배포, 「월간 마을문고」기관지[45]의 활용강화가 주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해에 마을문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새마을운동의 단위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한편, 1977년에 이르러 마을문고운동은 또다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된다. 마을문고본부의 운영비는 임원으로 취임하였던 사람들에 의해 주로 충당되었는데 대개 재계 임원진의 출연금이 많았다. 그런데 1977년 유력한 후원자를 찾지 못해 마을문고본부는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46] 마을문고본부는 결국 1억원 기금의 재단을 만들어 기금 이자로 모임을 운영할 방책을 세웠으나 이 또한 생각했던 만큼 되지 않았다. 다급한 나머지 엄대섭은 국내 1백개의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인수 호소'를 펼치게 된다. 돌린 호소문을 일부 신문에 독자 투고형식으로 발표, 숨은 독지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기도 했다. 또 몇몇 재벌을 찾아가 후원재단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성과는 별로 없었다.[47]

이러는 과정에서 다행히도 1978년부터 마을문고운동사업이 내무부 소관이 되어 내무부 보조금을 운영비로 조달해 문고육성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978년을 '마을문고 육성 및 기반 조성의 해'로 정하고, 내무부 산하 각 지방행정기관이 마을문고운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 마을문고

---

44) 새마을 총서는 1973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 획기적 사업이었다. 일반적으로 출판되었던 농업기술서는 대부분이 학교 교재식이었기에 문고에 비치되어도 이용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마을문고본부는 초등학교 졸업수준의 사람들이 농어업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을 만화로 설명하여 독서하는 흥미를 불어넣어 주고자 했다. 매년 십여 종을 발간해 79년까지 농어업기술부문 42점, 생활교양부분 10점, 총 책수로 152만 책을 모든 문고에 기증했다. 이 총서에 대한 당시 주민의 반응과 효과는 상당히 높았다.(日本圖書館協會, 앞의 글, p.12.)

45) 마을문고본부의 기관지 「월간 마을문고」는 1964년에 창간되었다.「월간 마을문고」에는 문고사업을 홍보하고 모범 문고를 소개하는 내용, 신간안내, 독서지도 등 일선 문고에 대한 개별지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간행함으로써 개별 문고에 대한 지도의 효과를 거두고 문고사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46) 1969년 이후락이 재일대사로 발령나자 1970년 후임에 경향신문사장인 김제원이 추대되었고, 1975년에는 은행가인 고태진이 새로운 이사장에 앉게 된다. 1977년에 이르러서는 고태진마저도 물러나자 재계 임원진 구성이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日本圖書館協會, "マウル文庫乃び關聯年表", 『マウル(村落)文庫調査硏究報告書』, 1987, pp.164-170. 참조)

47) 박경용,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들의 외길 한평생』, 장학사, 1981, 289쪽.

실태조사 및 일제정비, 도·시·군 지부의 결성, 지방비에 의한 지원, 지역별 도서발송 등의 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48]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79년에 이르게 되면 전국 리동수의 거의 95%에 해당하는 36,303개의 마을문고가 설치된다.[49]

1980년 8월에 이르러 엄대섭은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다. 이로 인해 또다시 언론과 사회로부터 집중적 조명을 받게 되었고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도 마을문고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엄대섭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활용하고자 청와대와 다시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 상황을 이용남에게서 들어보자.

> 엄대섭선생의 막사이사이상 수상으로 인해 사회분위기와 여론이 매우 좋아졌다. 국가에서 사무국의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하자 싶어서 엄선생은 청와대와 접촉을 시도했다. 청와대에 마을문고본부 재단법인을 만들어달라고 진정했다. 즉 마을문고기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두환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고 마을문고본부를 여기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이 청와대에서 결정되었다. 그래서 통합하게 된 것이다. 이후는 새마을 체제로 전환하였다.[50]

이렇게 해서 1981년도에 이르러 마을문고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산하단체로 흡수된다. 1982년 마을문고본부는 「사단법인 새마을문고 중앙회」로 단체명이 바뀌게 되는 등 이후 마을문고운동은 새마을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는 과정에서 마을문고운동의 성격과 방향이 조금씩 변하게 된다. "마을문고운동의 신념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죽기살기로 하던 사업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하의 여러 가지 사업에 묻혀버리게 되었고, 도서관적 시각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51] 이렇게 되자 6, 70년대 마을문고운동에 진력했던 운동인자들도 하나 둘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에 20여 년 동안 농어촌의 민중들에게 알권리와 읽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개했던 민중도서관운동인 6, 70년대식 마을문고운동은 그 성격과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현재 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라는 이름과

---

48) 日本圖書館協會, 앞의 글, p.13.
49) 최정식,「마을문고의 실태와 사회교육적 기능」, 석사학위논문(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6쪽.
50) 이용남 교수와의 대담.
51) 이용남 교수와의 대담.

형식으로 남아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52]

(2) 운동의 이념과 성격

마을문고 운동은 6, 70년대의 도서관운동의 큰 줄기로서 '민중의 알권리와 읽을 권리 확보' 차원에서 독서환경을 조성한 민중 도서관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이 시기 우리 사회 도서관운동의 물꼬를 튼 대사회운동으로서 20여 년 넘게 우리 사회에서 '독서를 통한 민중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매진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마을문고운동을 있게 하였는가? 마을문고운동을 일으킨 정신적 동인은 무엇이고, 마을문고운동이 20여 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을문고운동의 이념적 특색과 성격을 고찰해봄으로써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을문고는 도서관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이념에 특색이 있다. 도서관문화가 발달한 나라의 경우 시민들이 도서관봉사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반해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 의한 도서관봉사를 기대하기 힘든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간에서 자발적인 운동으로 세계 공통의 공공도서관이념을 구현하려고 일어난 것이 마을문고운동이었다. 즉 정부가 공비로 개설 운영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밑바탕의 독서인구를 규합하여 도서관을 세워나감으로써 민중들이 스스로 읽을 권리를 쟁취하는 '상향식 운동'[53]으로서 마을문고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당시 마을문고운동에 참여하였던 이용남은 마을문고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마을문고는 농어촌 마을 단위에 설치되어 마을 주민이 공동의 힘으로 책을 늘려나가고 이를 관리・운영하여 전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함으로써 생산기술과 생활문화 향상을 촉진하는 마을단위 「민중도서관」운동이다. 우리나라 농어민 대다수는 정부의 의무교육에 힘입어 독서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너무나 적은 실정이다. … 이러한 한국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1960년에 창안된 것이「마을문고」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양향상이나 생활정보, 경제발전과 자기향상을 위한 모든 지식이 책 없이는 바로 얻어질 수 없는 오늘날, 농어촌 마을 단위에 설치된 마을문고는 공

52) 현재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산하 단체인 「새마을문고중앙회」의 관리와 지원을 받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고수는 1999년 12월 현재 2,856개로 드러난다. 새마을문고는 전국에 걸쳐 농어촌과 대도시의 직장이나 공장에 소도서관 구실을 하는 마을문고와 역대합실, 터미널, 민원실, 공원 등에 특수문고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새마을문고현황」(1999. 12. 31))

53) 엄대섭, "새마을운동과 마을문고", 《국회도서관보》, 10권 1호(1973. 1・2), 5쪽.

공도서관이 절대 부족한 우리 현실에 알맞은「마을도서관」의 구실을 할 수 있다.[54]

이처럼 마을문고운동은 민중에게 독서 및 도서관 보급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직업적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세계 공통의 공공도서관 이념을 한국적 상황에서 실천한 운동이다.

이와 동시에 마을문고운동은 지식대중화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의 실천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이 일반대중에게로 확산되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라 간주하고 지식의 대중적 보급과 확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한 사회운동이었다. 마을문고운동이 6, 70년대 우리 사회의 지식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용남의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을문고운동은 책과 인연이 먼 민중, 특히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대중이 전통적으로 책과 인연이 먼 원인은 첫째로 독서에 대한 가치관이 전근대적이란 점과 둘째로 읽고 싶은 책을 손쉽게 구해 읽을 수 있는 사회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책이 관념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으로 지나치게 강조되어 실생활의 도구로 인식되지 못했고, 인쇄의 기계화가 늦어 책이 대중화되지도 못했다. 근래에도 출판이 대형화된 장식용에 치중하고, 도서관의 수나 이용습관이 부족하여 일반대중이 책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대중이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책을 구독토록 권장하거나, 독서의 인식을 새롭게 고취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우선 대중 가까이에 독서시설을 마련해 주어 잠재독자를 개발하는 것만이 가장 구체적이고 영속적인 독서운동이라 믿어 1961년부터 농어촌에 마을문고란 간이 독서시설 보급운동이 전개되었다.[55]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을문고운동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지식의 대중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나름의 운동이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바로 '지식대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지식 접근의 혜택을 받기에는 그 시대 사회제반 여건이 너무도 열악하였기에 농어촌 주민들의 '알권리'와 '읽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을문고운동이 전개되었

54) 이용남, "마을문고의 이념과 원리: 공공도서관의 운동적 측면에서", 《국회도서관보》, 16권3호(1979. 4), 63-69쪽.
55) 이용남, "마을문고의 오늘과 내일", 《도협월보》, 14권 9호(1973. 9), 9쪽.

던 것이다.

한편, 마을문고는 농어민 스스로의 힘으로 조직, 운영된다는 점에서 주요한 특징을 가진다. 독지가와 정부의 지원으로 마을문고를 설치한 후 그 마을의 청장년 층으로 조직된 독서회에서 협동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체제를 가진다. 이와 같은 운영원리에 따라 마을문고는「자립」,「협동」,「봉사」,「실천」의 4가지 기본원칙을 전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마을문고운동에 관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日本圖書館協會의 『マウル(村落)文庫調査研究報告書』(1987)에는 마을문고의 운영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 자립의 원칙: 마을문고는 세계 공공도서관 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나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 발전되어 오던 우리나라 특유의 독서운동이기에 자립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협동의 원칙: 제1의 자립의 정신을 육성하는 기본조건은 주민의 협동정신이다. (3) 봉사의 원칙: 마을문고는 책장과 도서와 문고의 삼자로 구성되나, 문고회는 주민으로부터 문고관리운영을 위임받은 봉사조직체이다. (4) 실천의 원칙: 마을문고를 설치해 모두가 책을 읽는 궁극적 목표는 얻은 지식을 실천에 옮겨 자신의 가치관・의식・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 위인의 전기 등을 읽으면 자신의 가정과 사회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고 예술성 높은 문학작품에 감동하면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농업도서를 읽으면 그것을 실행한다. 그와 같은 마을문고는 자기를 변화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독서운동인 것이다.[56]

이와 같이 마을문고는 주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 운영관리 되는 체제라는 점에서 자조와 협동의 정신을 그 기조로 하며, 동시에 '독서의 결과는 지식의 습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의식,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의거해서 배운 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한다는 실천의 원리를 가진다.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해서 마을문고는 '적극적 도서관봉사'의 구현이라는 입장에서 실천된 것이다. 특히 마을문고운동은 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민중들에게 도서관 봉사의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공공도서관의 수적 열악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회의 도서관인식을 끌어내고, 국가의 도서관건립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마을문고운동과 공공도서관과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마을문고운동은 도서관봉사의 확대와 강화, 공공도서관의 육성과 확산의 일환으로 진행된 운동이었다. 이에 대해서 이용남은 다음과 같이 설

56) 日本圖書館協會, 『マウル(村落)文庫調査研究報告書』, 1987, pp.14-15.

명한다.

>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보완적 운동이다. 공공도서관이 마을마다 서있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운동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에 주민들 스스로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 자조 자립적 형태의 도서관을 세우는 운동을 어느 시점까지 해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어느 시점이란 마을문고가 공공도서관과 연계되거나 공공도서관이 곳곳에 만들어지거나 할 때를 말한다. 그 시점이 되면 마을문고는 공공도서관으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을문고가 공공도서관 분관체제로 흡수되든가 아니면 공공도서관이라는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을문고운동의 최종목표였다. 그렇기에 과도기적 성격으로 마을문고 운동을 설정했다.[57]

이처럼 마을문고운동은 과도기적 운동으로서 그 궁극적 목적은 공공도서관이 육성되는 것, 마을문고가 공공도서관 체제로 편입되는 것, 마을문고와 공공도서관이 완전 결합되어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바로 마을문고는 지역 사회 공공도서관의 일선 조직으로서 우리 사회에 공공도서관 봉사의 혜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당시의 실천방안이었다. 마을문고운동은 공공도서관이 열악한 한국의 특수한 사정에서 도래된 것으로 급변하는 6, 70년대 지식에 대한 접근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 농촌사회 민중들의 지식 접근의 거점을 확보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6, 70년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마을문고운동은 지금은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다. 6, 70년대 식의 마을문고 이념과 성격은 많이 엷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여 년 넘게 우리 사회 민중들에게 알권리와 읽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개했던 민중도서관 운동인 마을문고운동은 왜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이 좌절의 요인이었나? 마을문고가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과의 연대를 꿈꾸었는데 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그리고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다음 글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3) 운동의 좌절 요인과 의의

앞서도 언급했듯이 마을문고운동의 목적은 마을문고를 통해 공공도서관적 기능이 지역 사회 전체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문고는 지역사회 공공

57) 이용남 교수와의 대담.

도서관 말단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과 연대하여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존재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마을문고 발전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공공도서관과의 연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58] 그렇다면 왜 마을주민에 의해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도서관 형태인 마을문고는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지 못했는가? 당시 마을문고운동가였던 이용남은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마을문고는 공공도서관 설립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편입해서 하나의 서비스 포인트로 활용되는 임무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마을문고는 어느 순간까지 작은집으로서 도서관의 기능 한 측면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다가 공공도서관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표방하였다. 그런데 새마을운동본부에 통합되면서 공공도서관으로 통합되는 마무리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엄대섭 선생이나 나의 입장에서 매우 아쉽다. 그 당시 공공도서관이 면단위 정도만이라도 있었다면 공공도서관에서 마을문고를 껴안기가 쉬웠을 텐데…. 당시 한 군의 문고수가 200-300개 정도였는데 군 단위 공공도서관이 200-300개를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과제였다. 80년대 초의 경우 마을문고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에 대한 모색을 계속해야 했으나 실제 마을문고의 존립자체에 전전긍긍하던 때라 연계문제를 고려할 수가 없었다.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도 없었고 존립이냐 해산이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냥 흘러가 버렸다. 재정문제 때문에 끝낼 수가 없었다. 결국 도서관적 입장과 시각으로 문고운동을 마무리하는 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새로운 단체에 흡수된 것이다.[59]

바로 마을문고가 공공도서관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은 문고운동의 기반이 부진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정문제는 마을문고운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이 운동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았을 때도 재정위기는 마을문고운동의 과정 고비 고비마다 등장하였으나 엄대섭의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기업이나 정부의 부분적 지원과 보조를 끌어냄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0년대 초에 이르게 되면 사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끌어내는 데 그 어려움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문고는 재정적 악순환으로 인해 존립 그 자체 문제에

---

58)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의 성공적 연대를 보여준 사례도 물론 존재한다. 경주시립도서관과 강진군립도서관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 사례는 개별 도서관운동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59) 이용남 교수와의 대담.

전전긍긍하였기에 연계문제를 고려할 조직적 환경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결국 1981년 마을문고본부가 새마을운동본부로 통합되어버렸고 이후 마을문고운동은 소진되어 운동의 성격과 방향이 점차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마을문고는 공공도서관과 연결되거나 공공도서관체제로 편입되는 작업이 해결되지 못한 채 변색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6, 70년대 20여 년간 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3만여 개의 마을문고가 공공도서관과 연계되거나 공공도서관을 만들어내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하나 마을문고 운동이 80년대에 이르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우리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을문고운동이 20여 년 넘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른바 이 시기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공업화의 육성과 도시화 정책이 보다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농촌의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가는 등 농촌단위의 마을은 점차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우리 사회가 보다 광역화됨으로써 마을단위의 조직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6, 70년대 마을문고는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농촌의 마을단위에서 민중의 독서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관으로 존재해 온 마을문고는 60년대 농촌중심의 우리 사회에 적합한 형태였던 것이다. 농촌이 해체되는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농촌 마을단위의 운동은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 이에 대해 당시 마을문고운동가였던 이용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80년대에 이르게 되면서 과거 마을문고 식의 자연부락 단위에 설치운영하는 방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회가 급변하면서 한 마을 주민들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책 수가 많아야 했다. 60년대는 독서욕구가 다양하지 않기에 몇 십 권, 몇 백 권 가져다 놓고 운영해도 무리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면서 한 마을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이 있어야 했다. 문고가 마을단위에서 다양한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기존 마을문고 체제로는 불가능하였다. 결국 대형화된 문고로서 광역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변화가 80년대부터 시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60]

60) 이용남 교수와의 대담.

이와 같이 마을문고의 소규모 장서로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독서욕구에 부응하기에 한계가 드러났으며 동시에 마을문고운동의 거점인 농촌의 해체 속에서 운동의 위력은 상실되어갔던 것이다. 결국 마을문고는 공공도서관과의 체계적인 연계 속에서 사회적 변화에 보다 부응하는 체제로 탈바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문고운동이 도시화라는 우리 사회 구조의 변화와 독서욕구의 다양화란 시대적 요구에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80년대에 이르러 운동은 존립 위기를 맞게 되어 결국 새마을운동본부로 통합되고 만다.

민에 의해 추진된 자발적 도서관운동인 마을문고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공공도서관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수순이었으나 공공도서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부족과 이 당시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마을문고는 결국 방치되고 말았던 것이다.

미국의 초기 공공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민간에 의해 제기된 도서관운동이 결국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운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운동의 주체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미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도서관운동이 개인의 활동으로 시작되어, 사적인 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 후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단계"[61]를 밟아 가는 양상을 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마을문고운동이 이와 같은 수순을 따를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비록 마을문고운동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그 존재는 미약해졌지만 마을문고운동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마을문고운동은 6, 70년대 우리 사회 지식과 정보의 민중적 거점을 전국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도서관운동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마을문고운동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지식의 대중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민중의 지식 접근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1970년 9월 5일「UNESCO 동경출판센터」에서 출판된 「아시아의 출판문화」(Book development in Asia)에 실린 유네스코 사절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문고」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61) Sidney Ditzion, "The Research and Writing of Library History", 『Toward a Theory of Librarianship』, Conrad H. Rawski ed. Scarecrow, 1973, p.60. 홍의균, 「근대 공공도서관 발전의 배경에 관한 연구: 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1986, 64쪽에서 재인용.

> 한국에서는 단일민족이 단일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은 비교적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국어 해독율도 70%로 아시아 국가 중 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말하듯이 문맹이 많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이 적다라는 이유는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독서습관의 부족에 있다. 한국의 마을문고는 세계에 전례가 없는 독창성과 우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마을문고운동이 일견 미미한 운동 같이 보이지만 독서습관을 양성하는데 극히 귀중한 운동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62]

이와 같이 마을문고는 6, 70년대에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독서시설"[63]로서 존재하며, 이 운동은 이 시기 도서관운동의 물꼬를 튼 "민간주도의 풀뿌리운동'[64]으로 20여 년 넘게 우리 사회에서 '독서를 통한 민중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매진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공공도서관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2) 공립 공공도서관 운동

이 시기 민간도서관운동과는 별도로 공립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된 운동은 도서관서비스를 민중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전개된 운동이 주를 이룬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축이 되어 전국적으로 전개한 독서운동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별 단위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도서관문화의 확산을 시도한 성공적 사례들도 등장한다. 그럼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전국적 차원

이 시기 전국 단위의 도서관운동은 주로 독서운동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민중의 독서습관 함양을 위하여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임무라고 여기고 독서운동을 대사회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단순히 '책을 읽자'라는 구호적인 차원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대중 가까이에 독서시설을 마련해 주어 잠재독자를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독서운동 전개 과정에서 도서관 홍보를 이끌어내고 또 대중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

62) 강예권, "새마을 운동과 군 단위 공공도서관의 봉사", 《도협월보》, 14권 11호(1973), 12쪽.
63) 이용남, "마을문고의 오늘과 내일", 《도협월보》, 14권 9호(1973. 9), 9쪽.
64) David Kaser, "Korean micro-libraries and private reading room", 《Library Journal》, vol.91 no.2(1966), pp.6035-6038.

진작에 힘쓰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민중의 '읽을 권리'를 찾는다는 의도에서 도서관 확보운동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매년 봄가을 도서관주간과 독서주간을 통해 독서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여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사회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독서정책을 수립하고 독서인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독서상담실의 설치, 어린이 독서회의 개최, 독서의 노래 제정・보급, 전국 독서실태조사'[65])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또한 독서주간을 통해 집중적 독서운동을 전개하였다. 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한 독서주간은 한국전쟁 전해인 1949년에 제1회를 가진 이후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 창설 후 매년 개최되었다. 협회 또한 독서주간 중 도서전시회, 전국 도서관 무료공개, 방송강연, 방송드라마, 좌담회, 신문특집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독서열을 고취시키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66])

이처럼 독서운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의 지도 아래 전국 개별 단위 도서관에서 지역사회 독서 대중들을 묶어내고 동시에 대중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진행된 독서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 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춘추계 도서관주간과 독서주간에 한해서 벌이는 도서관인들만의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67]) 중앙 중심의 기관이 아니라 각 개별 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그들의 일상적인 삶과 상시적으로 결합되는 독서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드러난다. 특히 이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책을 주민들 가까이 제공함으로써 일상적인 독서운동을 가장 최전방에서 전개한 민간 도서관인 마을문고의 활동과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개별 단위 도서관

독서운동과 같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도서관운동 사례와 더불어 개별 단위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서비스의 보급과 확산을 시도한 성공적 사례들도 나타난다. 이제 개별 단위 도서관에서의 운동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65) 김경일, "도서관인이 본 독서운동의 현황과 방향" , 《도협월보》, 12권 9호(1971. 9), 2쪽.

66) 엄대섭, "도협 5년의 발자취(상)", 《도협월보》, 1권 2호(1960. 4), 30쪽.

67) 김경일, 앞의 글, 같은 쪽.

① '지역사회 속으로'

먼저, 진주시립연암도서관은 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과 협조를 끌어내고 행정기관인 진주시의 지원을 끌어들여 지역사회 속에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낸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국민적 운동으로 불붙고 있을 때 연암도서관은 도서관을 새마을운동의 기지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도서관이란 존재를 부각시켜 내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새마을운동이 추구하는 '농촌사회의 물질적 개선'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적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정신개발의 일차적인 도구가 되는 지식자원의 보급을 담당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여 도서관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범시민적으로 벌여냈다. 당시 연암도서관장인 김문현의 말에서 이 도서관의 구체적인 성공담을 확인할 수 있다.

> 진주시의 새마을 운동은 <학원도시 진주건설운동>이라 불린다. 이는 도서관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범시민적 운동이다. … 도서관이 운동과정에서 그 사무국기능을 맡고 도서관장이 사무국장직을 맡아서 모든 계획 및 실천의 핵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과 협조가 일변되기 시작했으며 행정기관(진주시)의 지원체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을 고루하던 행정기관에서나 무관심하던 일반시민이 재인식하게 된 것은 통쾌한 도서관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 매스컴기관과 전 교육기관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으로 민이 주도하는 도시형의 특색 있는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68]

이와 같이 진주연암도서관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서관운동을 전개시켰다.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불붙고 있을 때 "도서관이야말로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전초기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마을문고운동, 가정문고운동, 독서써클운동, 시민독서운동, 시민계몽을 위한 교양강좌 등의 도서관 운동을 활발히 전개"[69]하였다.

이 도서관이 이와 같은 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김문현 관장의 공이 큰 것으로 드러난다. 그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호감을 가지고 도서관에 발을 들여놓은 후 나름의 사명의식과 열의로써 도서관을 개척해나갔다. 그의 도서관운영 체험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

68) 김문현, "새마을운동과 도서관: 진주시의 새마을운동인 학원도시운동을 중심으로", 《도서관》, 27권 3호(1972. 3), 11쪽.

69) 위의 글, 14쪽.

도서관이 행정적인 불모지 속이라 고독한 창의적인 노력 없이는 도서관은 완전히 그 기능이 마비될 슬픈 현실 속에 있음을 차츰 알게 되었다. 시청이나 교육청에도 도서관운영에 밝은 사람은 없었고 준공식이 지난 후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나는 밤이면 잠을 못이루었고 멋모르고 도서관에 뛰어든 것이 후회하기까지 했다. … 도서관예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청, 교육청을 뛰어 다니면 자체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도서관에 붙어 있으면 예산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이러한 딱한 상황 속에서 시청, 교육청, 도서관 사이를 무수히 왕복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다. 도서관 운영자의 주체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없이는 시청, 교육청 실무관리의 시녀로 굽신거려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처지라는 것이다. 시민들과 유지 및 사회 각 기관의 정신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 입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능동적인 선수를 쳐야 한다는 뱃심 경영론의 자세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우직한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매월 도서관 운영현황을 프린트해서 각 기관 유지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신문, 방송을 통한 도서관 PR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유력한 동지들을 통하여 간접 지원을 하도록 했다. … 이용자나 뜻있는 시민들이 도서관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행정체제의 불모지적인 여건 속에서도 반항하는 선인장처럼 굴레 없는 성난 말처럼 오직 도서관 육성을 위한 미치광이가 되어 오히려 부조리한 여건을 역이용하여 도서관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도서관공부를 밤이면 책자를 뒤적이면서 익혀야 했고, 매스컴에 종사하는 동지들이나 사회 유력 인사를 만나서 초창기 도서관의 어려운 여건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시장실문을 다시 노크하여 도서관은 좌천당한 사람들의 대기소나 안일한 근무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항의했고 도서구입비의 책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청에 가서는 도서관현장을 시찰하고 감사를 하거나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면초가가 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고독한 돈키호테가 되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다. 10월 들어 차츰 변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70]

위 인용문에서 바로 연암도서관의 성공은 경영자의 도서관에 대한 개척자적인 정신과 투철한 사명감과 열의에 근거한 것임이 확인된다. 김문현 관장은 "도서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파역을 맡아야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과 사람에게

70) 위의 글, 같은 쪽.

기관과 기관 사이에 개인과 사회를 잇는 커뮤니케이션 중재자가 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71]는 의도에서 당시 지역사회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과제를 도서관을 통해서 해결하였고 동시에 도서관을 지역사회 지식접근의 전초기지로 부각시켰다. 이렇게 해서 진주시립연암도서관은 성공적 도서관운영 사례로서 도서관인들의 한마당인 도서관대회에서 발표되기도 하였다.

진주시립연암도서관과 더불어 이 시기 도서관운영의 모범을 보여준 곳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춘천시립도서관이다. 춘천시립도서관의 경우도 바로 '지역사회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민과 결합하여 도서관운영의 혁신을 도모한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도서관의 성공 또한 조상현이라는 행정직 관장의 역할이 컸다. 이 도서관의 운동을 조상현 관장으로부터 들어보자.

> 1963년 11월 춘천시립도서관의 신축관 준공과 함께 움트기 시작한 이 고장의 도서관 활동은 참으로 눈부신 바 있다. 동도서관이 2년 동안 꾸준히 전개하여 온 도서관운동의 성과는 급기야 1966년 6월에 500만원을 들여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과 인식이 시민생활에 완전히 밀착되고 말았다. 특히 새벽 4시에 개관하여 밤 9시까지 1일 17시간을 개관함으로써 도서관 봉사는 시민생활에 뿌리를 깊이 박게 된 것이다. … 이렇게 장시간 개관 봉사를 하면서도 참고실을 개설하여 각종 Catalog와 Vertical File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연중 쉬지 않고 가정순회문고대출을 했고, 신문사, 방송국을 통하여 전개한 P.R.은 이 고장 주민들이 도서관을 알고 도서관을 인식시키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동도서관이 주민생활에 넓고 깊게 자리잡으려고 애쓴 의도는 도서관에 대한 소개가 뒤늦은 이곳 주민들에게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을 인식시킴으로써 농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 이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부업을, 보건위생, 교양, 사회상식, 생활개선 등 지역사회 개발에 도서관이 리더로서의 구심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72]

이와 같이 연암시립도서관과 춘천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켜내어 도서관이 지역사회 공간 속에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

71) 위의 글, 같은 쪽.

72) 조상현, "지방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활동사항: 강원도 편 ", 《도서관》, 111(1966. 11), 13쪽.

② 마을문고운동과의 성공적 결합

이 시기 도서관운동의 성공으로 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형은 바로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운동과의 성공적 결합을 통해 도서관운영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이다. 강진군립도서관과 경주시립도서관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강진군립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마을문고를 통해 군립도서관을 세워 낸 대표적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도서관은 도서관과 마을문고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어 마을주민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럼 강진군에 도서관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자.

> 전라남도 남단에 위치한 1읍 8개 면의 행정구역을 지닌 강진군은 인구 124,156명에 21개의 국민학교, 5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를 가진 조그마한 지역사회로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도 아니고 학교가 많은 교육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데 왜 도서관설립운동이 싹트게 되었는가는 오로지 이 땅의 낙후된 지역사회의 발전 첩경을 도서관운동을 통한 지식의 함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역사회발전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갈증을 풀어주어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복지사업으로써 강진군의 유지와 관민이 도서관설치운동을 서둘게 되었던 것이다.[73]

이와 같이 강진군은 지역 사회의 지식 갈증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에서 도서관을 세우는 운동을 벌여나갔다. 김재호 군수를 필두로 하여 도서관건립에 뜻을 둔 지역주민들은 전라남도당국, 군 당국, 공무원, 유지들의 지원을 끌어냈고, 당시 아세아 재단의 한국대표인 스타인버그라는 사람에게서 지원을 받았으며,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원, 학생들의 모금에 힘입어 1965년, 마침내 도서관 개관을 이루어냈다.[74] 강진군은 1965년도까지 지역 내에 산재한 281개소의 전 자연부락에 군자치사업으로 마을문고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강진군립도서관 개관 이후는 군립도서관과 마을문고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 지역 곳곳에 독서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강진군립도서관의 성공은 김재호라는 엘리트 군수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군수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주민의 단결된 힘에 의해 마을문고에 기반한 군립도서관이 건립되었고, 그것의 성공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는 농촌 근대화를 위한 군정의 좌표를 농어민의 지능개발에 두고 도서관건설에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마을문고와 독서회 조직이 없는 군립도서관은 제구실

73) "전국도서관순례: 강진군립도서관 편", 《국회도서관보》, 2권 8호(1965. 8), 82쪽.
74) 위의 글, 82-83쪽.

을 할 수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하면서 문화행정의 필요성과 가치관으로 도서관운동에 앞장섰던 것이다.[75]

당시 강진군의 마을문고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독서활동을 보장하는 주요한 사회교육기관으로 존재하였고, 동시에 지방공공도서관의 봉사활동의 거점으로서 존재했다. 이는 도서관과 마을문고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지역사회 지식의 보급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모범적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강진군립도서관은 지역사회가 그 문화적 성장을 이룩하는 첩경은 도서관운동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시기 전국의 낙후된 지역사회에 일깨워 주었다고 평가된다.[76]

강진군립도서관 이외에 도서관과 마을문고운동의 성공적 결합을 보여준 사례가 또 하나 더 있다. 경주시립도서관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경주시립도서관은 엄대섭이 울산에서 사립도서관을 운영하다 1953년 경주시에 위탁함으로써 탄생하였다.[77] 1961년 마을문고 창안 이후 엄대섭은 경주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관내 101개의 변두리 농촌자연부락에 마을문고를 설치하는 사업에 주력하였다. 경주시립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이 모체가 되어 분관이나 열람소 구실을 하는 마을문고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의 확대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주시립도서관과 강진군립도서관은 마을문고와의 결합을 통한 도서관서비스의 확대를 만들어낸 대표적 도서관으로 꼽힌다. 이같은 성공적 결합에 대해 외국의 한 도서관 전문가는 당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일부 '마을문고'가 그들 자신의 봉사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거니와, 다른 일부는 전통적인 도서관봉사와 흥미로운 제휴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진군립도서관은 그 봉사구역 내에 산재한 285개 마을문고를 지니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주시립도서관은 101개의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3개월마다 산하의 각 마을문고에 대하여 그들의 중앙도서관은 25권의 도서를 보내어 이미 거기 보내져 있는 도서와 교환한다. 이리하여, 이 두 행운의 지역사회의 지적 요구는 하늘 위의 빗물과 또한 하늘 밑의 빗물에 의하여 복되게 양육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협동적 노력은 민간에서 주관하는 도서관봉사와 관

75) 강예권, "마을문고 독서회 운영과 지방공공도서관의 활동", 《도서관》, 25권 6호(1970. 6), 28-29쪽.
76) "전국도서관순례: 강진군립도서관 편", 《국회도서관보》, 2권 8호(1965. 8), 84쪽.
77) 개관 당시는 엄대섭을 관장으로 하는 읍립도서관으로 출발하였다.

의 도서관봉사 사이의 갭을 메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입증되기를 기대한다.[78]

그러나 강진군립도서관과 경주시립도서관의 경우 "군수가 바뀌고, 도서관장도 바뀌고, 좀더 세월이 흘러 문고지도자들도 바뀌자 도서관과 마을문고의 연계 사업은 다시 흐지부지 되었고, 도서관은 시설로서만 유지되고 말았다."[79]

③ '움직이는 도서관'

또 이 시기에 개별 도서관활동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자동차 이동문고 사업의 실시이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문고사업은 당시 공공도서관계에 있어서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1971년에 이르러서야 두 개의 자동차 문고가 창설된다. 서울시립종로도서관이 1971년 4월 24일 처음으로 자동차 문고를 설치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5일 전남 광주의 사립도서관인 전일도서관에서 자동차 문고를 설치 운영하였다.[80] 뒤이어 서울시립 남대문도서관, 남산도서관에서도 이를 실시하였다.[81] 이를 통해 관내위주의 봉사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곳곳으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도서관'으로의 변모를 꾀하고자 하였다.

④ 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공부방' 이미지 탈피

한편, 당시 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이용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단위도서관이 공부방이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자체적으로 행하여 성공한 사례도 등장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대구시립도서관의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은 1966년 학생들의 공부방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조사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참고봉사에 주력하여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과 이용자의 거리를 좁혀내고, 도서관이 시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그 본래적 기능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참고봉사가 매우 효과적인 운동"[82]이라는 것을 인식하

78) 데이비드 케이지 등, 앞의 글, 61-62쪽.
79) 이용남 교수와의 대담
80) 장일세, "공공도서관의 오늘과 내일", 《도협월보》, 12권 12호(1971. 12), 4쪽.
81) 민영기, "발간사",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보》, 7호(1978), 4쪽.
82) 조원호, "참고업무의 이론과 실제(완)", 《도서관》, 120(1967. 9), 22쪽.

고 이를 대대적으로 벌여낸 결과 당시 사회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게 된다. 그럼 참고봉사가 시작되던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 국립중앙도서관이 하나의 공공도서관으로서 본격적인 참고봉사의 기초작업을 착수한 것은 1965년의 일이었다. 「참고열람실」을 「참고실」로 개칭하고 1월 18일 전화 1대를 가설한 후 7월 16일에는 「참고실 업무규정」이 결재되어 참고업무가 제도화되었다. 이후 다시 반년간의 계속적인 노력과 시험이 쌓은 후 반개가제를 완전개가제로 바꾸고, 신문과 계속간행물을 참고실 아래 흡수하는 등 변화를 치른 후에 1966년초 마침내 <매스・콤>에 알렸던 것이다.[83]

1966년 초 신문 방송을 비롯한 주요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참고봉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봉사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이용자들에게서 국립중앙도서관 참고실의 명칭은 '백과의 집', '백과센터', '만물박사', '지식센터', '앎의 집', '뭐든지 물어보세요' 등 다채로운 이름으로 불려졌다. 이와 같은 대사회적 서비스는 일반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책만을 보관하고 사서는 곧 책지기'라는 전근대적인 도서관 이미지를 탈피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한편, 대구시립도서관의 경우도 자체 도서관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공부방이란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의 정보와 문화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여 당시 도서관계와 지역사회의 열띤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대구시립도서관은 "연구하는 도서관, 움직이는 도서관, 봉사하는 도서관이라는 목표 하에 9개 지역에 이동문고를 설치 운영하였고, 시민과 도서관이 가까워질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창의적으로 실시"[84]하였다. 특히 참고서비스에 주력하여 당시 지역주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이로써 지역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었다. 이 도서관도 당시 모범 도서관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이외 경기도립도서관, 인천시립도서관의 경우도 도서관봉사의 적극성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열띤 호응 받은 사례로 꼽힌다.

---

83) 위의 글, 21쪽.
84) "한국도서관협회 제10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도협월보》, 19, 3(1978. 4), 8쪽.

5. 결론: 정리와 평가

1) 전체 운동의 흐름과 의미

해방 직후 우리 민중들에게 '지식의 보급과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도서관운동은 한국전쟁으로 일시적 좌절을 겪게 된다. 전쟁 이후 도서관운동은 다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6, 70년대 한국 사회는 전란을 겪은 후 이의 재건에 바빴고, 경제성장과 안보에 온 국력을 기울이는 동안 도서관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또한 우리의 전근대적 교육상황과 삐뚤어진 교육열도 도서관 문화를 꽃피우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에 보기 드물 정도라는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지만 입시에 당장 도움이 안되고, 졸업장과 같은 간판을 제공할 수 없는 사회교육시설이라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을 열망하거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85] 오히려 공공도서관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이라는 교육 풍토 속에서 설자리를 잃고 방황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한국의 전근대적 교육상황은 공공도서관을 독서와 정보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공부방이란 기이한 형태로 내몰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공공도서관은 일반 민중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며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로 작용하기에는 그 수적으로 너무도 열악하였고, 그나마 있는 공공도서관 마저도 학생들의 공부방이라는 왜곡된 공간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근대적 공공도서관을 세우기 위한 도서관인들의 자생적 몸부림은 거듭되었다. 먼저 도서관계 내부적으로는 도서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도서관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얻어냈다. 또한 도서관인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토착화하려는 도서관인들의 자생적인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우선은 민간영역에서 엄대섭을 중심으로 전개된 마을문고운동이 6, 70년대 공공도서관 운동의 주요한 흐름으로 나타난다. 마을문고운동은 독서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이 시기 우리 사회에 민중의 읽을 권리와 알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민중도서관운동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도서관운동의 물꼬를 튼 대사회적 운동으로서 '지식과 정보를 통한 삶의 질 확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기 위한 자생적 몸부림이었다는 측면에서 한국 공공도서관운동사에서 매우 의미로운 경험이다.

---

85) 이용남, "마을문고의 이념과 원리: 공공도서관 운동의 측면에서", 《국회도서관보》, 16권 3호(1979. 4), 65쪽.

민간도서관운동이 전개되는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서비스를 민중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었다. 전국적 도서관 차원에서는 독서운동이란 형태로 '전국민 책읽기'를 진행하여 우리 사회 독서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독서운동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 도서관 문화의 확산을 꾀한 개별 단위도서관의 성공적 사례들도 등장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을 필두로 하여 진주시립연암도서관, 강진군립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서울시립 남대문도서관, 종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대구시립도서관, 춘천시립도서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도서관의 서비스 혁신은 관장을 비롯한 해당도서관 지도자들의 운동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개별 도서관 리더들의 개척자적인 정신과 탁월한 헌신성에 의해 도서관서비스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 이들 사례도서관에서 바로 '단위 도서관운동의 성공'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전개된 6, 70년대 도서관운동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럼 여기서 전체 운동의 특징과 사회적 의미를 고찰해보고 이후 이 시기 운동을 평가하도록 하자.

이 시기 도서관운동은 먼저 지식자원의 사회적 확산과 보급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6, 70년대 우리사회의 지상목표는 물질적 근대화의 달성이었다.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생산과 건설은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였다. 또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이제는 잘 살아보자'는 의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농지를 넓히는 등의 농촌소득증대를 목표로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른바 이 시기 우리는 물질적 근대화를 향해 질주하는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이 물적 자원의 개발에 치중하는 사회적 풍토 속에서 인간의 지적자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그것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을 모색한 것이 바로 도서관 운동이었다. "참다운 근대화는 물적 자원의 개발과 지적자원의 개발이 동시에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86]고 보고 물질적 개선과 동시에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적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정신개발의 일차적인 도구인 지식자원 보급을 담당하는 도서관을 뿌리내리려는 운동을 사회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

86) 엄대섭, "마을문고와 국민독서", 《도서관》, 25권 7호 (1970. 7), 8쪽.

둘째, 이 시기 도서관운동은 우리 사회 소외된 계층에게 정보와 지식자원의 접근을 보장하고 보급하려는 사회운동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전개된 마을문고운동은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접근할 수 없는 불평등한 입장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게 지식자원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벌여진 전형적 운동사례라 할 수 있다. 바로 소외된 민중의 '알권리와 읽을 권리'를 도서관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민권운동이 이 시기 도서관운동이었다.

셋째, 당시 도서관 운동은 근대적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6, 70년대 우리 사회는 물질적 근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문화적, 정신적 성숙을 보장하는 사회 여건을 보장하는 데는 소홀한 감이 많았다. 특히 독서에 대한 가치관이 전근대적이었고, 책을 읽을 사회적 여건 또한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더불어 학교교육마저도 독서를 유도하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의 교과서와 칠판, 백묵 중심의 입시위주의 평면적 교육으로 일관했기에 당시 독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방기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대신하여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독서교육을 책임지고자 독서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냈던 것이다. 독서란 지식인을 비롯한 사회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낮은 교육의 농어민에서부터 모든 계층에 이르기까지 지식 습득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신개발 영역임을 강조하였고, 도서관확보를 통해 책을 주민들 가까이 제공하고, 독서회를 조직하는 등 읽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잠재적 독서인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 시기 전개되었던 도서관운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인지하고 이 시기 운동의 전반을 평가해보도록 하자.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운동의 주체역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와 조직적 측면에서 평가한다.

2) 인적자원 측면에서의 평가

도서관운동의 이면에는 항상 그 운동을 이끈 운동주체가 존재한다. 6, 70년대 도서관운동에서도 다양한 운동인자들이 등장한다. 우리나라 마을문고운동의 대가인 엄대섭, 이용남을 비롯하여, 도서관법 제정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도서관협회 2대 상무이사인 이종문,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외국어대학교,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도서관협회 상무이사로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박희영, 인천시립도서관장을 역임하고 도서관협회 상무이사로서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운동을 이끈 장인식 등의 인물은 6,

70년대 도서관운동을 이끌어나간 주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위도서관 관리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한 인자들도 존재한다. 대구시립도서관장 최재원, 서울시립종로도서관장 이홍구, 춘천시립도서관장 조상현, 진주시립연암도서관장 김문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무에서 유를 형성해야만 하는 창조자적 긍지로, 또 황무지를 개간하는 개척자적 정신"[87]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도서관 문화를 세우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문고운동의 창시자이며 이를 20여 년간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끌어낸 엄대섭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동사에서 독보적인 운동가로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다. 엄대섭은 "후진사회의 공공도서관은 정부시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도서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88]며 도서관을 민중과 함께 건설해나는 운동으로 『마을문고』운동을 벌여나갔다. 국가가 도서관을 건립해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도 요원하기에 "위로부터의 혜택에 의지하지 않고 밑에 깔린 민중 스스로의 힘을 조직하여 '읽을 권리' '알 권리'를 戰取"[89]한다는 차원에서 민중과 함께 민중에 의한 도서관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엄대섭이란 개인의 도서관 경험과 사상에 의해서 마을문고운동이라는 개념이 창출되어 전국 곳곳에 농촌문고의 거점이 메워져 나갔던 것이다. 앞서 마을문고운동의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을문고가 전국적으로 건립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엄대섭이라는 개인의 희생적인 노력과 정열에 기초한 것이었다. 더불어 마을문고가 6, 70년대 위력을 떨치며 전국적 규모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물질적 사회적 출세를 희생해 가며 동분서주하며 사업에 봉사하는 마을문고본부 직원들의 공이 무엇보다도 컸다.[90] 엄대섭을 비롯하여 마을문고운동에 종사한 당시 운동인자들의 희생적 노력에 힘입어 마을문고운동은 6, 70년대 한국의 민간 공공도서관운동의 큰 맥을 형성할 수 있었다.[91]

한편, 장인식은 인천시립도서관장을 역임하고 당시 도협 상무이사로서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이 시기 도서관운동을 전개한 핵심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인식이 관장으로 일할 당시의 인천시립도서관은 한국 공공도서관의 모범으로 도서관계에 널리 알려졌다. 인천시립도서관 성공의 원천은 바로 장인식 관장

87) 김진수, "동대문도서관보 창간사", 《서울특별시립동대문도서관》, 창간호(1971), 9쪽.
88) 엄대섭,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 《도서관》, 105(1965. 5), 212쪽.
89) 위의 글, 같은 쪽.
90) 김중한, 『마을문고 운영과 이용자에 관한 연구: 폴브라이트-헤이즈 프로그램 연구보고서』, 마을문고본부, 1978, 3-4쪽.
91) 엄대섭의 도서관운동은 80년대에도 「대한도서관연구회」를 중심으로 이어진다.

에게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엄대섭은 장인식관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인천시립도서관은 현재 한국공공도서관 중 가장 모범적이고 선구적인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인천시립도서관이 오늘날 이처럼 지도적인 공공도서관으로 자타가 공인하게끔 된 이면에는 장인식 관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성이 가장 큰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도서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천시립도서관이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지도적인 공공도서관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관장자리에 적임자를 얻었다는 데 있다고 본다.[92]

이홍구도 당시 공공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손꼽힌다. 그는 자동차이동문고를 개설하는 등 종로시립도서관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타도서관에 귀감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한국 도서관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그외 행정직관장으로서 단위도서관의 발전과 당시 도서관계의 발전에 힘을 쏟았던 인물로는 대구시립도서관장인 최재원과 춘천시립도서관장인 조상현이 있다. 이들은 전문 사서가 아닌 행정직 출신이면서도 도서관에 대한 남다른 인식을 가지고 탁월한 리더십을 동원하여 자체 도서관서비스 혁신을 도모하였고 지역사회 공간에 도서관을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계에 있어서 이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지도자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도서관운동에서 드러나는 아쉬운 점은 도서관을 이끌어나갈 주체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도서관이란 일상적 공간에서 서비스혁신을 내어오고 단위 도서관운동을 이끌어나갈 인력의 부족함은 당시 도서관운동 세력을 형성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큰 난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현장의 인적자원의 열악성을 장인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공공도서관에서 전문직의 부족 내지는 그 인재를 얻지 못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을 침체케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의 하나이다. 어느 기관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매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며, 발전시키는 일이다. 매년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도서관학과 졸업생을 내고 있으나, 모두가 서울에 머물러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으로 진출할 뿐 지방도서관에는 전혀 투신하려고 하지

92) 엄대섭, "관계에서 본 인천시립도서관", 《인천시립도서관 관지》, 창간호(1961), 63쪽.

> 않는다. 지방의 공공도서관은 대우가 박하고, 그것도 대개의 경우 임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등의 신분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도리밖에 없다. 여간한 의협심과, 희생정신과 그리고 상록수와 같은 정열의 소유자가 아닌 바엔 현대와 같이 공리적이고, 상업주의적으로 이해 타산이 밝은 세상에서는 참으로 九牛一毛격으로 찾아보기 힘들다.[93]

도서관 운동에 있어서 운동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의 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엄대섭이라는 한 개인의 요소가 마을문고운동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었는가는 앞서의 언급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운동주체세력의 형성은 전체 운동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공공도서관계는 일할만한 젊은 사람이 적었다. 4년제 도서관학과 출신은 현장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공공도서관 사서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꺼려하여"[94] 현장의 개척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었다. 공공도서관 현장은 열악함을 개척할 '도서관인으로서의 신념과 이념으로 무장된 인자들'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그 대신에 비전문가들로 채워지는 암울한 상황이었다. 공공도서관이 비전문가들로 채워져 도서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글은 당시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인력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가 있으니 소위 놀고먹으려는 망족들과 사서란 직제를 만들어 전문성을 인정한다면서 행정 혹은 재경직이 판을 치는 현실, 일일이 말하자면 할말이 너무 많다. 적은 도서관에 두고 근무는 상급기관에 가서 하는 것은 오히려 나은 편이다. 기구가 확장이 되거나 증원이 되어 상위직이라도 생길 양이면 혹은 진급을 위하여 등등의 이유로 전문직 아닌 전문직이 책임자가 되어서 회전의자에 앉아 도장이나 찍고 심지어는 그 도서관의 방향마저 그들의 손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공공도서관은 없는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치바람에 의하여, 부지의 사고에 의하여, 무능력하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직장에 등외품으로 취급된 사람이 오고, 어떠 어떠하니 채용하여야 하겠는데(임시직원), 지방에 있는 누구를 도시로 끌어와야겠는데(타 직종의 공무원)하여 공공도서관의 인사관리는 '～하여야겠는데'부터 시작하여 일반적인 안식처, 대기소, 휴식소, 매개소, 피난처로 취급되어오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만 하다. 이들 전부는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도서관에 쫓겨왔다는 열등감, 잠

93) 장인식, "공공도서관 침체의 원인", 《도서관》, 162(1966. 2), 12쪽.
94) 이용남 교수와의 대담.

깐 쉬었다 간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언제나 이곳을 떠날까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할 때 이 말을 듣는 우리 관원의 심정은 어떨까? 이와 같이 한국적인 풍토에서 일어나는 인사관리의 악순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망각지대라면 과장된 표현일까? …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실정을 살펴보면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비율은 약 1:7 정도의 한심한 형편이며 한 두 사람의 전문직은 정리부문에 앉아 자료정리에 급급하고, 행정직 혹은 공공도서관의 기능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의 방향을 강요당하고 있으니 공공도서관의 앞날은 암담할 뿐이다.[95]

이처럼 일선 도서관 현장은 비전문직들이 거쳐가는 하나의 휴식처로써 이들 비전문직들에 의해 도서관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전근대적 인력 구조가 지배했었고, 여기다 그나마 "유능한 공공도서관 직원은 전직해 가거나 좋은 자리를 찾아 대학이나 학교 혹은 특수도서관으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96] 상황이 거듭되었다. 사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천박함과 대우의 열악함을 현장사서들은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전직으로 해결하려 하였고, 그나마 남아 있는 사서라도 체념과 자포자기로 일관했다. 그렇기에 공공도서관 현장은 바로 운동인자의 부족함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원호는 도서관의 인적 자원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도서관발전을 해치고 있는 제도적 요인들은 그릇된 사회인식의 결과이고 동시에 그것은 부정적 직업의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도의 결함이 소위 일할 사람을 도서관이 확보하기에 어렵게 만들고, 사람이 없으니 사회의 인식을 고치기 어렵다. 하나의 슬픈 결과는 그 원인의 꼬리를 물고 있는데, 「결과」그것이 다시 원인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슬픈 결과를 달고 있다. 이리하여 도서관 발전의 저해요인들은 원인・결과로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순환의 논리를 갖게 된다.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염원하고 그리하여 도전의 결의를 품은 자가, 이제 여기서 우선 하여야 할 일은 이와 같은 악순환의 동그라미 선상에서 과연 어느 지점부터 잘라 들어가야 옳은가 하는 바로 그 지점 즉 도서관의 출발점을 현명하게 찾아내는 일이다. 나는 그 도전의 실마리를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그것이 돌아서 가는 길이오, 늦은 길이오, 험난한 길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길만이 문제의 원천에 접근하는 길이오, 악순환의 뿌리를 고치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이

95) 최성락, "1965년도 공공도서관의 회고", 《국회도서관보》, 3권 1호(1965, 1・2), 15-16쪽.
96) 조상현, "1965년도 공공도서관의 회고", 《도협월보》, 6권 10호(1965. 12), 6쪽.

다.[97]

조원호는 도서관발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도서관 현장 사서이고, 한국 도서관의 발전은 바로 그 운동인자들의 헌신적 활동에 의해서만 담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서들이 도서관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개척기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운명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도자들은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도서관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도서관일군들에게 촉구하였다. 그러나 전문직으로서의 사명의식을 견지하고 도서관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도서관 현장일군들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 시기 공공도서관계는 현장 사서들에 의한 조직적이고 주체적인 도서관 개척 운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높았으나 극소수 몇몇 선진 사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현장사서들의 일반적인 행태는 현장 개척보다는 현장의 열악함과 자신의 처우에 한숨짓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조적인 수준에 그쳤고, 현장을 떠남으로서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98] 이와 같은 인력 상황은 한국의 도서관계를 개척할 주체 세력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장은 도서관운동을 이끌어갈 주체 세력의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현장 운동인자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 도서관의 후진성 극복은 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조직 측면에서의 평가

도서관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개인이나 단일 도서관 등에 의한 개별적인 운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보다 범국민적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과 단위조직을 묶어주고 전체 운동을 이끌어갈 전국적 조직이 요구된다. 그럼 이 시기 도서관운동 조직의 운동역량을 가늠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시기 우리나라 도서관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으로는 먼저「한국도서관협회」를 꼽을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쟁으로 그 활동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1955년에 재창립되었다. 1945년 설립되었던 조선도서관협회의 대다수 임원들이 납북, 퇴직, 전직, 행방불명되어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던 중, 당시 경주

97) 조원호, "도서관과 도서관인 윤리", 『동대문도서관보』, 7호(1978-79), 28쪽.
98) 80년대 후반에 가서야 현장개선을 위한 사서들의 조직적 운동들이 나타난다. 바로 전국사서협회의 출현이 그것이다.

읍립도서관을 운영하던 엄대섭이 각 도서관을 순방, 회합하여 도서관협회의 재건에 진력한 결과 1955년 4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협회가 탄생하였다.[99] 이후 도서관협회는 도서관의 보급과 설립경영지도, 도서관실태 조사연구, 사서직의 교육과 연수, 독서운동, 각종 서지 간행 사업을 실시하는 등 개척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도서관법 제정의 과정에서 한국도서관협회의 역할은 실로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협회는 창립과 더불어 도서관법제정에 몰두하여 8년이라는 기간동안의 긴 노력 끝에 법제정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전국도서관대회를 열어내는 산파역을 하고 이후 대회를 주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도서관대회를 통하여 당면한 도서관문제를 논의하고 동시에 도서관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그것을 대정부 건의로써 촉구하는 결의를 이끌어 내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동시에 협회는 조직력 강화를 위해 각 지역별 지구협의회와 부회를 건설하는 등 이 시기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도서관계 대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협회는 도서관계의 대표조직으로서 이 시기 도서관운동을 리더하는데 조직력과 결속력의 측면에서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장일세는 이 시기 도서관협회가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점으로 협회에 가입한 공공도서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전국적으로 조직되지 못해서 운동을 전국화하는 데 미약했다는 점, 재정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100]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도서관협회는 사서와 도서관의 조직체로서 사서직의 자질향상을 위한 운동과 도서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6, 70년대 도서관운동사에서 이 조직이 가지는 역할은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하나 이 시기 도서관운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을문고운동을 이끌어 간 핵심 조직인 「마을문고본부」이다. 이는 1961년 「농어촌마을문고보급회」라는 이름으로 엄대섭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실질적으로 마을문고운동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을문고본부에서는 주로 사회를 대상으로 문고를 설치할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에 문고를 설치해 주고 그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문고를 스스로 운영하게 하는데 주력하였다. 주로 각 시·도, 시·군 단위에 마을문고 지부를 건설하여 문고회의 조직, 지원, 육성을 도모하였고, 문고운영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마을문고 기관지를 발간하여 각 문고마다 배포하였으며, 최신농업기술을 제작 보급하기도 하고 마을문고에 알맞은 우량도서

99) 김세익, 『도서·인쇄·도서관사』, 종로서적, 1982, 247쪽.
100) 장일세, "도서관운동과 도서관협회", 《도서관》, 29권 2호(1974. 2.), 212-18쪽.

를 선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101]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끌어오는 것으로 충당하였다. 엄대섭을 필두로 하여 마을문고본부는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재원과 사회적 지원을 끌어오는데 주력한 결과 그 당시의 권력가, 재력가, 명망가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언론을 동원하는 데도 탁월한 재량을 발휘하였다. 마을문고운동이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엄대섭 개인의 운동성에 기인하는 것과 더불어 마을문고본부의 조직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문고운동이 진행되는 20여 년간의 과정 속에서 마을문고본부는 수차례 재정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사회의 지원을 끌어냄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곤 했으나 위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마을문고본부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80년대 초에 이르러 마을문고본부는「새마을운동중앙본부」산하단체로 흡수되어 20여 년간 마을문고운동을 지도하는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생명을 다하게 되고 이후는 새마을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마을문고본부는 6, 70년대 마을문고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끈 운동조직체로서 우리나라에 민간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 핵심 단체로 공공도서관운동사에 존재한다.

4) 한계

6,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공공도서관운동은 '민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의 대중적 접근을 보장한다'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의 알 권리와 읽을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민중의 자료공급소이며, 민중의 교육기관'[102]인 공공도서관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도서관인들의 다각적인 몸부림이 지속되었다.

우선은 도서관후진성의 원인이 도서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의 개선 운동에 주력하였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는 민중도서관운동으로서 마을문고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관 차원에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별 도서관의 운동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우리 사회 지식과 정보의 대중적 접근지며, 시민의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공도서관은 수적 측면에서의 절대적 부족 하에 장서의 양적 질적 빈곤성, 예산의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속에서 학생과 재수생의 시험공부방으로 전락하여 전체적으로 정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101) 이중한, 앞의 글, 14-15쪽.
102) 김영모, "공공도서관을 위한 몇 가지 구상", 《도서관》, 35권 3호(1980. 4・5), 35쪽.

이 시기 우리나라 도서관의 황폐성에 대한 지적은 지루하리만큼 반복해서 논의되고, 건의되어왔던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반응은 미약하였고, 정책적인 반영 또한 지지부진하였다.

또한 자발적 민간도서관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문고운동이 20여 년간 넘게 우리 사회에 지속되어 전국 마을 곳곳에 마을문고가 설치, 육성되어 민중 독서공간으로서의 위력을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절하고 말았다. 동시에 개별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도서관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파급효과는 전체 도서관계로 확산되지 못하였고 지역사회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몇몇 도서관운동 지도자들이 도서관 개척과 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냈지만 공공도서관 현장의 대부분의 사서들이 도서관운동의 주체세력으로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도서관현장에서 서비스혁신을 내어오고 단위 도서관운동과 전체 도서관운동을 동시에 도모할 인력의 부재함은 당시 도서관운동의 세력을 형성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한계로 드러난다. 공공도서관은 주로 비전문적 인력구조로 채워졌었고, 그나마 확보된 전문 인력도 공공도서관의 열악성을 외면하였기에 도서관운동의 위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 도서관계를 개척할 주체 세력의 부진은 조직적 도서관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큰 난제로 작용하였다. 바로 이는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 이룩된 운동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산적이며 개인적인 운동에 머물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장 운동인자에 의한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도서관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이 시기 운동의 한계로 남는다.

또 한 가지 이 시기 공공도서관운동의 전개과정에 드러나는 아쉬운 점은 운동의 진행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서관은 바로 일반 민중의 요구에 의해서 형성되고 부응하는 사회적 기관이기에 도서관운동 또한 바로 광범위한 대중적 요구와 참여에 힘입을 때만이 그것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소수의 정책입안자나 몇몇 운동인자들의 헌신적이고 선도적인 운동만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보다 많은 전문가, 단체, 시민들의 참여가 확보되는, 그야말로 범국민적인 공공도서관 운동이 되어야 사회운동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물론 엄대섭, 이용남을 중심으로 진행된 마을문고운동은 민중들의 읽을 권리를 쟁취한다는 차원에서 농어민 스스로의 힘으로 도서관을 조직, 운영하도록 도모한 사회운동으로 존재하지만 마을문고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대중들은 도서관에 대한 조직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와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실질적 차원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계점

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6, 70년대 도서관운동의 이러한 한계점은 다음 시기 도서관운동에서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각주로 대신함

MARC는 아직 죽지 않았다

Alan Hopkinson 저
김 영 귀 역*

<목 차>

1. 토론의 주제
2. 아직도 MARC는 필요한가?
  2.1 MARC 개관
  2.2 MARC의 장점과 단점
    2.2.1 장점
    2.2.2 단점
    2.2.3 MARC는 표준인가?
    2.2.4 21세기에 데이터를 교환한다
3. MARC와 다른 포맷은 같은 역할로 경쟁하는가?
4. 결론

1. 토론의 주제

이 논문과 바로 다음 호에 실릴 Metadata에 관한 논문은 "Traditional Communication Formats v SGML. Metadata, Dublin Core"에 관한 토론의 일부이다. 토론의 형태는 전통적인 포맷과 최신 포맷 사이에 토론할 필요가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이다.

사실, 주창자들은 전통적인 포맷과 최근의 포맷은 상호보완적이지 결코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은,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반대될 수도 있다고 느끼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도대체 왜 그런 의문이 제기되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이 논문은 Alan Hopkinson, "Traditional communication formats : MARC is far from dead," ICBC(International Cataloguing and Bibliographic Control) Vol. 29, No.1(Jan./Mar. 1999), 17-21을 번역한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여전히 기계가독형 목록인 MARC(Machine Readable Cataloging)가 필요한가? ; 그리고 MARC와 다른 '포맷'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쟁할 것인가? 라는 두 개의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겠다.

그러나 토론을 하기 전, 먼저 '포맷'의 의미를 아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포맷은 자동화 시스템 사이에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시스템은 두 개의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일 수 있고, 또는 웹서버(Web server)와 그 웹서버에 접근하는 개인컴퓨터일 수 있고, 서지를 생산하는 개인 컴퓨터일 수 있으며, 그리고 서지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서버로서 원격컴퓨터일 수도 있다.

포맷은 데이터의 구조와 내용을 관리하는 규칙의 집합이다. 어떤 포맷은 구조만을 관리하고, 다른 포맷은 내용과 구조를 관리한다. MARC는 그 구조에 정보교환 포맷인 ISO 2709: Format for Information Interchange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MARC는 정의의 일부로서 이 구조를 필요로 하므로 구조가 없는 MARC는 MARC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목록자들은 그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자신이 MARC 전문가라고 믿고 있다. 사실 MARC와 관련된 이런 종류의 이례적인 것은 굉장히 많다. 1996년까지 磁氣테이프에 수록된 서지교환포맷(Format for Bibliographic Interchange on Magnetic Tape)을 표준이라 칭했지만, 오늘날엔 磁氣테이프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대부분의 MARC 포맷이 이 점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MARC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국립도서관들과 미국의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나 영국의 BLCMP (Birmingham Libraries Cooperative Mechanisation Project)를 활용하는 대량 데이터의 목록레코드는 서로 레코드를 전송하는데 여전히 테이프을 사용하므로 테이프를 다루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MARC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MARC, UNIMARC와 같은 포맷과 ISO 2709에 기초한 공통 레코드구조(3자리 태그와 서브필드를 가진)를 가지고 있는 다른 포맷을 포함한다.

미국 국가정보표준기구인 NISO(the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는 사실 레코드를 내려받기(download)할 때 필요한 포맷으로 새로운 표준인 Z39.80 Standard format for downloading record를 준비중에 있고, 이는 구조화된 서지레코드를 한 컴퓨터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에 보내고 받는 정의를 제공할 것이다.

MARC 보다 더 최근의 포맷들을 일반적으로 문헌형태 정의(document type definitions) 즉 'DTDs'라 부른다. 이 용어는 ISO 8879인 SGML(the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에 사용되었다. SGML은 다른 종류의 포맷으로 전통적인 도서관의 목록포맷은 아니다.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은

웹상의 '포맷'또는 코딩으로 SGML에 기초하였다. 'less than'(<)과 'greater than'(>)로 표시된 그 구조와 마찬가지로 HTML, HREF= NAME=과 같은 코드와 인용부호 "mailto:someone@univ.ac.uk" 사이에 데이터를 넣는 것과 같은 규약이 있다.

전통적인 포맷과 고려중인 다른 포맷 사이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ISO 2709 레코드 구조에 기초한 '전통적인' 것은 서지문헌의 全文은 포함하지 않고 대부분 서지데이터에만 사용되었다; 다른 포맷의 경우에, 서지 데이터는 많은 것 중의 하나로 적용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全文을 서지참조에만 사용할 것 같다.

2. 아직도 MARC는 필요한가?

지난 몇 년 동안 컴퓨터계는 만약 어떤 기기가 10년 이상 되었다면 그것은 낡았다고 믿어 왔다. 이것은 특히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사실이나, 이런 견해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행하고 있다. 물론 지금 desk top pc는 10년이 아니라 2년이면 낡은 것이 된다. 다행히, 오늘날 소프트웨어나 표준이 그렇게 빨리 못쓰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하여 초기 버전과 호환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MARC는 1967년 개발되었고 1985년경에는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져 대체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1998년 새로운 세대의 컴퓨터에도 불구하고 MARC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MARC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 좋아질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는가?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되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왜 MARC인가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

2.1 MARC 개관

MARC는 시스템간에 레코드 교환에 필요한 레코드 구조로서 개발되었고, 그것은 아무 때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반인치 크기의 磁氣테이프를 교환매체로 사용하였다. 비록 오늘날 많은 레코드들이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다른 매체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나, 대부분의 개별 레코드는 여전히 원래의 레코드 구조로 교환된다. 초기에 대부분의 파일이 디스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기 보다

테이프에 오프라인으로 처리되어 레코드는 습관적으로 MARC에 축적되었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그들의 레코드가 MARC 구조로 되어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

그 구조에 추가해서, MARC는 목록 레코드의 다른 요소들을 확인하는데 코드를 사용한다. 사실 목록 레코드는 기본기입, 서명, 출판사항, 연도와 개인명, 단체명과 서명의 부출기입, 또 주제와 분류에 관한 데이터 요소를 가진 목록카드의 '데이터 요소'에 기초하였다. 이점이 전문가인 MARC 목록자가 MARC 이어야 한다고 믿는 부분이다.

이런 코드의 보편적인 이용은 세계표준서지기술(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s, ISBDs)처럼 서지데이터를 레코드화 하는데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된 표준이 있으므로 가능했다. 사실 해가 지나면서 데이터의 교환이 증가함에 따라 더 엄격한 데이터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과 영국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과 같은 기관은 그들의 전거파일(Authority file)을 일치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미의회도서관 역시 검색 프로토콜인 Z39.50을 사용하는 초기 프로젝트에서 활동했고, the Linked Systems Project는 Z39.50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밤사이에 갱신된 전거데이터에서 레코드의 자동갱신을 가능케 했다.

사서들이 MARC를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한 1985년이래 엄청난 양의 업무가 도서관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고 그 대부분이 미국에서 생겼다. 그 당시 비슷한 시스템들이 영국과 다른 곳에서도 개발 중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대체로 회의나 전시회 때 영국 공급자들에게 MARC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알지 못했다. 만약 그들이 MARC에 대해 들어보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MARC 데이터를 발췌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데이터베이스에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들 시스템이 MARC와 호환성이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자신이 MARC 레코드 공급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스템 공급자들은 많은 사서들이 비록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MARC 레코드의 세부사항이나 레코드 구조가 아닌 그 내용을 축적하기를 바라면서도 복잡한 MARC는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MARC는 구식이고 곧 없어질 것이라고 암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얘기가 달랐다. 비록 소규모 도서관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MARC와 호환성이 있었다. 즉, 그들은 MARC 레코드에서 데이터를 발췌하고 자신들의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에서 MARC 레코드를 다시 만들어 다른 시스템에 보낼 수 있었다. 영국 시스템들도 훨씬 최근에

와서 MARC 호환성을 개발했다: 오늘날 도서관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MARC와 완전히 호환이 가능하다. 많은 시스템들은 목록자들이 MARC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용인하지만 그 저변은 MARC를 기반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스템은 MARC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영국에서 BLCMP 같은 분담목록에 기반을 한 시스템은 확실히 미국의 OCLC처럼 항상 참가도서관의 MARC 목록의 質적인 면을 요구했다.

물론 MARC는 레코드 구조이고 레코드 인식자 집합이나 그것은 그 데이터 요소 정의에 필요한 목록코드에 의존한다. USMARC, UKMARC와 많은 다른 국가 포맷들은 그들 데이터 요소를 記述하는데 영미목록규칙(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AACR)에 의존한다; AACR에 의존하지 않는 곳은 그들 데이터요소 정의에 국제표준서지기술(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ISBD)에 기반을 한 다른 목록코드를 사용한다. 영미세계에서 솔직히 MARC는 AACR 없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MARC의 존재는 AACR과 다른 목록 포맷이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래서 AACR은 MARC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MARC는 AACR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서 그들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호환성이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균등한 다른 부분은 레코드 구조이다. 그러나 규정된 레코드 구조의 의미는 시스템에 소장된 레코드는 특수한 구조로 출력될 수 있고 다른 시스템이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흥미로운 것은 MARC는 원래 국가서지를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최초부터 서지레코드에 있는 모든 것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포맷에 있어서 MARC는 항목의 표준으로서는 여전히 취약점이 있다.

사람들이 MARC의 죽음을 예언한 이래로 오히려 MARC의 사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래서 흥미롭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최근에 모든 회원대학교와 그들 분교를 관통하는 통합정보접근시스템(a Unified Information Access System)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것 역시 주목할만하다. 철저한 심의 끝에, 프로젝트팀은 인터넷 환경에서 통신에 필요한 규약인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Web Server 소통에 Web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HTTP/HTML(Hypertext Transfer Protocol/Hypertext Markup Languae), 서지레코드에 USMARC 그리고 컴퓨터가 정보탐색과 검색에 필요한 Z39.50의 공개 표준에 기반을 한 시스템이 현재로선 세계온라인서지접근(Universal Online Bibliographic Access)에 최적의 기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팀은 RFI(Request for Information)과정 중에 장래성 있는 업자로부터 이 접근법에 필요한 매우 긍정적인 입력을 받았다.

2.2 MARC의 장점과 단점

2.2.1 장점

1) MARC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보교환 포맷인 ISO 2709 구조를 사용하며, 지시기호와 식별기호의 실행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엄격히 정의된 레코드구조이다: MARC는 그 구조를 표준방식 중의 하나로 이행하고; 다른 셋은 사용하지 않으며 완전을 위해서만 언급되었다.

2) 시스템 설계자는 취급할 고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행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서지데이터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래머에게는 낯설게 보일 수 있다.

3) 현재 전 세계에는 MARC 포맷으로 된 엄청난 수의 서지레코드가 있다. 대부분의 이들 시스템은 적절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Software Interface)가 있으므로 이 포맷으로 레코드를 교환할 수 있다. 레코드가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쉽게 전송될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 ISO 2709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 자동화시스템 공급자가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upgrade)시킬 때 그 레코드들은 새 시스템에서 내보낼 수 있고 새 시스템에 가져 올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한 공급자의 하드웨어를 다른 공급자의 것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것 역시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다.

4) 그 포맷은 LCMARC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되긴 했지만 독점은 아니다. 시스템의 설계방식과 시스템이 사용한 하드웨어에 포함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5) 그 포맷은 고정장과 반복 가능한 필드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너무 고정된(그래서 프로그램하기 쉬운) 레코드구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2.2 단점

몇몇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 레코드 구조는 복잡한 디렉토리 구조로 인해 다른 구조와 비교해 볼 때 '읽기'어렵다. 목록자가 이 구조를 바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데이터 구조가 오직 교환이 목적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그들 시스템에서 그 레코드를 본다; 레코드 구조는 시스템간에 전송될 때만 사용되었다.

2) 레코드 구조는 프로그램하기 어렵다; 그러나 프로그래머가 ISO 2709 명세서(MARC 포맷 문서화 때 출판되었다)를 가지고 있다면 어렵지 않다.

3) 레코드 구조는 사용하기 어려운 제어문자(예. 식별자에 필요한 ASCII 31)를 필요로 한다: 내부적으로 시스템은 어떤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ASCII 31에 필요한 $, @ 또는 같은 다른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문자를 사용할 필요 없이 데이터 기입 편의(예. 다른 화면 입력창)라도 제공할 수 있다.

4) 거대 파일은 조작하기 어렵다.

5) MARC는 서지 레코드 사이의 연결이 쉽지 않다. 사용하기 쉬운 기능이 표준 2판인 ISO 2709-1981에 추가되었으나, 목록업무를 초월하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했다. 그것은 MARC와 비슷한 포맷인 UNESCO Common Communication Format으로 이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그 포맷 이용자는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레코드는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링크는 전거파일을 통해 만들어지고 전거파일에서 생성된 색인은 표준화된 MARC 레코드에 있는 일정한 데이터요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코드는 독립형이고 그들 사이의 지적인 연결은 그들에서 데이터요소를 발췌해서 만들며 그들을 색인에 배열한다.

UNIMARC 전거포맷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레코드에 필요한 링크는 궁극적으로 대상들 사이의 연결을 나타내므로 이를 위해 856 필드(Electronic Location and Acess field)의 사용과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았다. 이 필드는 全文과 같은 다른 정보원에 접근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6) MARC는 진정 표준인가? 세상에는 많은 다른 MARC 포맷이 있고 이것은 또한 MARC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여기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2.2.3 MARC는 표준인가?

상당한 수의 MARC 포맷은 표준으로서의 MARC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것은 정당한 비판이다. 그 구조는 원래 미국표준(ANSI Z39.2, 지금은 NISO Z39.2)으로 승인했고 그 다음에 ISO 표준으로 승인했다. 미국표준에 동의했을 때 즉 다른 정보사회 부문 관련 데이터요소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필요조건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데이터요소의 정의를 표준의 일부로 인식하기보다 부록으로서 포함하는 데도 동의했다. 물론 특정 부문에서는 어떤 포맷이 공식적인

포맷인가 아닌가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구조가 승인되었고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우나, 반면 데이터요소 정의가 같은 범위로 승인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먼저, 1960년대 후반 MARC가 개발되었을 때, 다른 국가도서관들은 원래의 LC MARC를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만약 누군가가 한 포맷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다른 포맷을 사용하는 시스템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대부분의 차이점은 사소하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 차이점이란 UKMARC '513 field Summary note'가 USMARC '520 field Summary 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같다고 인정되면, 한 포맷의 데이터를 다른 포맷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개입시키려면 태그를 변환해야 한다.

다른 차이점은 더 미묘하다. 예를 들면,

UKMARC에서 인명은 $aShakespeare$hWilliam으로,

UNIMARC에서는 $aShakespeare$bWilliam 또는

$aShakespeare, $bWilliam으로 그리고

USMARC에서는 $aShakespeare, William으로 코드화 된다. ($표시는 사실 특수문자 ASCII 31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유의하라)

이것은 한 MARC 포맷에서 단일 의미를 가지는 2개의 문자코드가 다른 포맷의 2개의 단일 문자열과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comma space(,)' 이다. 2번째 종류의 다른 예로서는 미국, 캐나다 포맷과 영국 포맷을 '조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는 점이다. 영국 사람들은 조화(Harmonisation)는 일치(Conformity)를 뜻하기를 바랬다. 음악이 발생한 점에서 볼 때, harmony란 용어는 '동시에 그리고 연속적인 조화된 소리의 결합'(옥스포드 영어사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조화는 꼭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많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일치된 데이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comma와 code의 양자택일의 경우처럼, 데이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쓰여져야만 색인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승인보다 일치와 불일치가 필요하다. 만약 색인에서 근원적인 차이에 대한 대안으로 Shakespeare, William에 대해 여러 순서가 있다면, 그것은 목록에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를테면 아래의 경우처럼.

Shakespeare$bWilliam

Shakespeare, William

Shakespeare,$bWilliam

자동화시스템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나 그들은 보통 선택적인 데이터표준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다.

R. H. Hill이 MARC 포맷에 관해서 쓴 Setting the Record Straight에서 말한 바와 같이, MARC 일치는 이용자 그룹의 요구조건과 관련해서 많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USMARC와 Canadian MARC는 충분히 조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치를 본 반면, UKMARC와는 부분적 조화가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문제는 위에서 표시된 것과 비슷한 차이점으로 생겨났다. UKMARC에서는 매우 일찍부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신축성을 주기 위해 인명에 추가 식별자가 도입되었다.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UKMARC 레코드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변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신축성을 상실할 것이다. 사실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데이터 형태 사이의 차이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고, 만약 당신이 다른 출처나 非영미목록규칙(non-AACR)에 의한 목록의 참고문헌과 서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으며, 그들은 자동으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당신이 USMARC와 UKMARC의 데이터 둘 다가 AACR과 호환성이 있으므로 서로 완전히 호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러니다.

비교 가능한 기관 사이에만 데이터가 교환될 때, 전송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보통 모든 나라는 국가표준을 채택하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국제수준에서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IMARC가 국가포맷 사이의 교량으로서 개발되었다. European Communities Telematics for Libraries Projects가 지원한 국제 프로젝트에서 이런 차이점은 그 프로젝트의 효율성 방식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UNIMARC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UNIMARC의 이념은 만약 모든 사람이 다른 나라에 UNIMARC로 데이터를 보낸다면 각 나라는 자기나라의 포맷을 UNIMARC로, UNIMARC를 자기나라 포맷으로 변환할 한 세트의 프로그램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이용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World Wide Web상에서 익숙하지 않는 포맷에서 레코드를 찾아야 하고 또 그들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포맷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수준에서 데이터 전송은 더 새로운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잘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시스템을 교차탐색할 때 역시 불편을 느꼈다. 이런 종류의 탐색은 시스템이 Z39.50 표준과 같은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용이해졌다. Z39.50 표준은 색인과 관련이 있는 속성집합에 달려 있다. 다른 목록시스템은 색인에 필요한 다른 MARC 필드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거나 필요하게 한다. 서로 다른

색인방법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교차탐색 하려면 표준이 필요하고, Z39.50 기능 중의 하나는 바로 이것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찾고 있는 서지레코드를 입수했으면, 그 레코드를 볼 필요가 있다. Z39.50은 시스템이 MARC 레코드를 다시 보내도록 요구한다. 때문에 탐색자의 소프트웨어는 MARC 포맷이 그 레코드를 처리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레코드구조는 표준이기 때문에 하나의 MARC 포맷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확한 레이블을 줄 수 없고 정확하게 구두점을 찍을 수 없다할지라도 다른 것도 읽을 수 있고 모든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량의 개발업무는 Z39.50을 이행하는 시스템들에게 적합한 다른 MARC 포맷으로 된 레코드의 구문해석을 조사하려고 한다. 비록 MARC가 훨씬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고 시스템들은 여전히 다른 MARC 필드에서 색인을 만들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코드화 된 Z39.50의 속성집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데이터(매우 높은 수준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와 표준화가 덜된 색인도 시스템에서 고려하고 참작해야 할 유일한 부분은 아니라는 표시이다.

그래서 MARC는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하고, AACR(오늘날 만약 MARC가 개발되었을 때 없다면)의 보편성을 염두에 둔 다른 국가 버젼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이 안되며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꼭 MARC가 약하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MARC 포맷이 자체의 단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표준들처럼 사용되어야 할 때 사용되지 못했던 점도 있다.

그 점은 MARC가 다른 포맷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레코드 구조는 죄인이 아니고 진정 MARC의 강점의 하나이므로, 변화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도서관계가 데이터요소 정의와 표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표준에 합의할 수 있거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조화롭게'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믿을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2.2.4 21세기에 데이터를 교환한다

MARC는 데이터 교환에 표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왔으며, MARC는 교환 포맷이다. 사실, 도서관은 다른 이유로 自館의 서지레코드에 표준이 필요하다: 적절한 수준의 내부일치를 제공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표준을 이해할 수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다. 이것은 MARC로 용이해졌으나 궁극적으로 목록코드의 사용이 제공되었다. 교환은 협력목록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 데이터는 역시 시스템이 이동(migration)되었을 때 전송되었다. 이동이 교환포맷에 필요한 주요 이유는 아니나 그런 포맷

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쉬운 것은 교환포맷의 훌륭한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장 복잡한 목록 데이터는 시스템이 이동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환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용자들은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어한다. 설령 일반사람들이 Internet과 World Wide Web의 표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더 이상 MARC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MARC가 World Wide Web에 맞지 않는 구조라는 것은 실제로 목록의 기법을 확신하지 않는 기술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MARC가 세계의 여러 곳에 있는 수백만 서지레코드를 표준화하려고 했던 방식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요소 디렉토리에 근접한 기초표준의 개발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 없다. 만약 지금 표준이 개발되었다면, 아마 그것은 세 자리 태그와 식별기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나, 데이터 기입이 이러한 목록자의 세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록카드에 기초를 한 좀 단조로운 구조이고 다른 서지레코드와 전거의 연결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구조와 데이터요소 정의는 통신포맷이 아닌 다른 포맷으로 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MARC는 향상될 수 있는가? 다른 국가포맷은 그동안 계속 발전하고 있었으나 레코드 연결에 필요한 논리적 방법과 같은 주요 발전은 항상 더 느리게 진행되었다. 변화보다 안정성이 우위에 있었으나,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3. MARC와 다른 포맷은 같은 역할로 경쟁하는가?

이것은 이 논문의 시작에 제기된 다음 질문으로 연결된다. MARC와 다른 포맷은 같은 역할로 경쟁하는가?

많은 비전통적인 포맷이 있으나, Dublin Core가 그런 포맷의 적당한 예로 보인다.

메타데이터(Metadata)라는 용어는 지금까지는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David Stoker의 논문 A Beginner's Guide to Metadata를 살펴보자.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그는 'ADAM Quick guide <URL http://adam.ac.uk/ adam/metadata.html>에 따르면 "그 용어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data about data), 다른 정보를 기술

하는 정보이다". 그것은 다른 출처나 문헌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동안에는 어떤 형태의 목록, 내용리스트, 장서점검, 비평, 초록이나 색인은 메타데이터의 집합이다' 라고 쓰고 있다. 그는 MARC 레코드를 포함할 수 있었다. '표제지'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Dublin Core는 인쇄자료의 표제지처럼 기계가독형 자료에 일종의 출처확인으로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기술하고, 인터넷에 접근해서 그 자체로 색인생산자에 접근할 수 있고, 동일 형태의 데이터(비록 같은 논리적 또는 물리적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는 그 데이터의 색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제지 뒷면에서 오래된 완전한 출판물목록정보(Cataloging in Publication, CIP) 기입을 따와서 목록카드에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Web상의 Dublin Core에 있는 데이터는 실제로 메타데이터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을지 모르나, 그 목적은 메타데이터의 생성을 더 쉽게 하는 것이다.

UKOLN(UK offic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networking)의 Michael Day는 European Communities Telematics Applications Programme Project인 'Biblink: Mapping Dublin Core to UNIMARC'에 대한 연구를 준비했다. Day의 그 연구는 이 논문에 필요했으며, 도출된 주요 결론은 UNIMARC의 정의가 Dublin Core 데이터가 UNIMARC로 변환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 문제들은 Dublin Core의 개인저자와 단체저자 그리고 코드화된 데이터의 생성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Day는 어떤 형태의 매뉴얼 중재가 필요하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결론지었다. 나의 견해는 오직 html 메타데이터에서만 얻은 컴퓨터 정보원을 기술해서 목록레코드를 입력하고자 한다면, 전통적 자료목록자 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다. html 메타데이터 header는 '記述'에 가깝다. 목록자는 自館의 요구에 따라 장서를 주제별로 색인하기를 바라는 목록자는 항상 있어 왔다. 저자별로 되어 있는 전자문헌에 주제용어를 추가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 색인에 적합할 것 같지 않다. 물론 Dublin Core는 확장될 수 있고 이미 UNIMARC와의 호환성을 증가하기 위해 확장되어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UNIMARC와 다른 MARC 포맷은 두 종류의 메타데이터를 소장하는 도구이다: 한 종류는 오리지널에서 생성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서들이 만든 전거데이터이다. 사서들이 접근점을 주는 주제색인 자료가 그들이 Dublin Core 데이터에서 찾은 주제색인을 전연 고려하지 않아도, 그들은 국가도서관 같은 중앙목록기관이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비판없이 사용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Day의 연구는 기관들이 목록레코드를 생산하면서 Dublin Core '식별자'를 이용하여 그들이 바라는 모든 종류의 자료원을 목록할 수 있도록 하려면 Dublin

Core가 어느 정도 UNIMARC로 변환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며 그 레코드는 더 일반적인 자료레코드의 목록에 통합될 수 있다. Dublin Core의 UNIMARC로의 변환 연습은 이 논문을 쓰면서 준비한 한 부분이나 대개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UNIMARC에 있는 (메타)데이터는 html 메타데이터로 변환할 이유가 없다. 목록카드를 보고 그 책의 표제지를 설계하려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다. 어떤 레코드를 목록에서 검색하고, 그것을 html로 변환하고, Dublin Core header로서 문헌의 레코드에 배열하는 것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4. 결론

MARC는 서지데이터 처리에 어느 정도 화석처럼 굳어져서 시스템 개발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AACR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 분야의 변화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표준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아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自館, 국가 그리고 국제네트워크, 시스템과 하드웨어 패키지에 안정적인 환경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표준은 고착된 예외를 가지고 있다: 표준은 개혁을 방해하나 또 모든 이용자가 같은 기준이나 안정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하여 그들 모두 함께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MARC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 주었다.

1) MARC는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록 구축을 증진하는 유용한 목적에 이바지한다.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매체와 방식은 변한 반면에, 그 표준은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결점이 생겨났다. 표준은 바뀔 수 있고 아마 지금보다 더 큰 실제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서지레코드 파일을 가짐으로써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다른 개발수준으로는 독립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도서관자동화시스템 공급자는 많은 다른 포맷을 고려해야 했었다. 지금 그들은 ISO 2709를 사용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고 MARC 포맷의 국가적인 차이점을 고려해서 그들 시스템을 약간 맞게 고칠 수 있다.

위에 기술한 어떤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음에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박한 시스템의 사서들은 도서관의 이용자에게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들 목록동

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거의 알 필요가 없는 외부 자료원 접근을 제공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MARC 구조의 경직성과 국가적으로 볼 때 MARC 데이터 정의는 시스템 이동과 협력목록에 필요한 시스템간의 데이터 전송이 MARC와 같은 표준이 없었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장했다.

2) MARC는 Dublin Core와 같은 이후의 포맷 생성에 다른 그러나 보완적인 목적에 이바지한다.

<References>

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Format for Bibliographic Information Interchange on Magnetic Tape*. Geneva, ISO, 1981 (ISO 2709-1981). 3rd edition: Format for Information Interchange. Geneva, ISO, 1996(ISO 2709-1996).
2. NISO. *Standard Format for Downloading Records (NISO Standards Committee AJ)*. [WWW] http://www.niso.commitaj.html(27.04.98)
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Geneva, ISO, 1986
4. ISB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s are cataloguing codes dealing with the description of documents. The main one on which the others are modelled is ISB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Rev. ed. Munich, K.G. Saur, 1992
5. Information Retrieval (Z39.50): *Application Service Definition and Protocol Specification*. Washington, DC, Z39.50 Maintenance Agency, July 1995
6. Dempsey, *Lorcan. Libraries, Networks and OSI.* Westport, Meckler, 1992
7.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1988 rev.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88. Looseleaf, updated,
8. Pollard, Marvi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Unified Information Access System: project report*. [WWW] http://uias.calstate.edu/uiasproject.html, 9 July 1997(27/04/98)
9. The latest version of CCF is defined in: *CCF/B: the Common Communication Format for Bibliographic Information.* Paris, UNESCO, 1992
10. Hill, R. W. *Setting the Record Straight: a Guide to the MARC Format.* 3rd ed. Boston Spa, British Library National Bibliographic Service, 1998
11. Stoker, David. *A Beginner's Guide to Metadata.* CIQM Newsletter 3(1) January 1998
12. Day, Michael. *Mapping Dublin Core to UNIMARC.*[WWW] http://www.ukoln.ac.uk/metadata/interoperability/dc_unimarc.html(25/04/98)

미국 대학도서관을 위한 기준, 2000

ACRL College Libraries Section Standards Committee 著
심 상 순 譯*

<목 차>

Ⅰ. 서 언
Ⅱ. 투입과 산출척도를 통한 비교항목
Ⅲ. 미국 대학도서관 기준
1. 기획, 평가, 성과평가
2. 서비스
3. 이용자교육
4. 자원
5. 접근
6. 직원
7. 시설
8.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9. 관리
10. 예산

Ⅰ. 서 언

미국의 대학도서관을 위한 기준은 미국도서관협회(ALA) 분과중의 하나인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RL)」의 대표적 위원회인 「대학도서관부 기준위원회(College Libraries Section Standards Committee, 이하 동위원회라 한다.)」주관으로 1959년에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이후 1975년, 1986년, 1995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여기에 소개하는 새 기준은 1999년 5월에 그 초안이 *C&RL News*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1999년 7월에 개최된 뉴 오를레앙 ALA 연차회의에서 이 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ALA 산하 각종 위원회와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2000년 1월에 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미국대학도서관의 기준을 개괄해 보고자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인터넷(http://www.ala.org/acrl/guides/index.html)과 *C&RL News*, V.61.N.3 (2000.3), pp.175-182에 게재된 것을 본고에서는 이 기준을 일부 편역하여 소개하였다.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본 기준은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수준의 학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에 적용하도록 마련된 것으로 이전의 대학도서관 기준들은 재정 지원, 공간, 자료, 직원 활동과 같은 자원 및 프로그램의 "투입(inputs)"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반해서 새로운 기준은 계속해서 "투입" 뿐만 아니라 "산출(outputs)"과 "성과(outcomes)"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의 장서, 직원, 시설에 대한 기준 공식은 없어지고 8개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켜 각 항목별로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제시한 것이 2000년 판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준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ACRL "대학도서관 성과평가 보고서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Academic Library Outcomes Assessment Report)"에서 기술한 정의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투입(Inputs)은 일반적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의 원자료(raw materials), 즉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예산, 공간, 장서, 설비, 직원으로 간주한다.

산출(Outputs)은 처리, 완료된 업무를 수량화하는 것, 즉 도서대출 수, 응답한 참고질문 수를 말한다.

성과(Outcomes)는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원과 프로그램에 접한 결과로서 변화된 방식을 말한다.[1)]

아울러 본 기준은 도서관과 사서들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 및 질적 접근을 제공하며 이 기준에서는 투입, 산출, 성과 측정을 기관의 사명성명서(mission statements)와 관련하여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측정치를 동료 기관의 측정치와 비교하는 것을 장려하는데 이 기준은 훌륭한 도서관 실무에 대한 성명서를 제공하고 이러한 실무를 기관의 우선 순위와 관련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은 전산소와 같이 보다 규모가 큰 조직이 아닌 도서관에만 적용된다.

---

1) ACRL Task Force on Academic Library Outcomes Assessment, June 27, 1998, <http://www.ala.org/acrl/outcome.html>.

이 기준의 적용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를 명심해야 한다. 전자출판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쇄 출판물과 마이크로자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서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저장, 제공,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기대는 실질적으로 증가해 왔다. 사서들에게는 이용자들이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원해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도서관 사서를 위한 발전된 역할, 즉 이용자와 보다 밀접한 협력과 교육과정을 위한 보다 큰 책임을 시사하는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Ⅱ. 투입과 산출척도를 통한 비교항목

각 대학도서관은 비교의 목적으로 자신들의 동료기관을 선택하도록 장려 받고 있는데 이미 대학당국이 벤치 마킹(bench marking)을 위해 동료기관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동료 기관은 대학의 사명, 명성, 입학을 위한 선택성, 예산 규모, 기부금 규모, 도서관 지원예산액, 장서 규모와 같은 기준을 사용해서 식별될 수 있다. 동료기관이 결정되면, 해당 도서관과 동료기관의 장점을 비교하기 위해 "비교 항목"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입 및 산출 측정을 위해 제안된 "비교 항목"들이 제공되는데 다음의 리스트는 비교 항목을 완벽하게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각 대학이 다른 비교 항목들을 정할 수 있다.

▨ 제안된 비교 항목: 투입 척도 ▨

- 전체 정규학생(학부 및 대학원 학생) 및 전임교수 수에 대한 장서의 비율
- 전체 정규학생 및 전임교수 수에 대한 장서의 연차증가 비율
- 전체 정규학생 및 전임교수 수에 대한 자료/정보자원의 지출 비율
- 전체 도서관 예산에서 다음의 3가지 범주가 차지하는 퍼센트
  1. 인쇄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원으로 구분한 자료/정보 자원 비용
  2. 직원(간부급 사서, 정규 및 파트타임 직원, 학생 보조원 비용을 포함함.--연방 기부금과 아웃소싱 비용이 있다면 포함시킴.) 인건비를 결정할 때 유사 직원(comparable staff, 즉 미디어, 시스템, 개발 직원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과 부수적인 수익(도서관 예산 범위 내 혹은 외에)을 고려해야 한다.

3. 다른 모든 운영비(예를 들어 네트워크 구조, 설비와 같은 범주를 포함시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규학생 및 전임교수 수에 대한 정규 도서관직원의 비율
•정규학생 및 전임교수 수에 대한 도서관 공간(평방 피트로 표시)의 비율
•대상 그룹의 전체 학생 수에서 도서관 이용자 교육에 참가한 학생 수의 비율
•정규학생 및 전임교수 수에 대한 도서관 열람 좌석수의 비율[2)]
•정규학생 및 전임교수 수에 대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대수의 비율(학생들의 데스크탑 및 휴대형 컴퓨터의 보유에 대한 대학의 요구는 도서관내 워크스테이션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 것임.)

▨ 제안된 비교 항목: 산출 척도 ▨

•정규학생 및 전임교수 수에 대한 대출 권수(예약은 제외)의 비율
•정규학생 및 전임교수 수에 대한 상호대차 요청 건수의 비율
(문헌 복사와 상호대출로 구분될 수 있다.)
•상호대차 의뢰에 대한 제공의 비율
•상호대차/문헌전달서비스의 의뢰 소요기간, 입수율, 건당 비용
•정규학생 및 전임교수 수에 대한 참고질문 건수의 비율

Ⅲ. 미국대학도서관 기준

1. 기획, 평가, 성과평가

1) 기획(Planning)

도서관은 도서관 활동을 위한 토대로서 역할을 하는 사명성명서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은 그 대학에서 개발한 사명성명서 및 목적과 호환성이 있으며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질과 효율성의 평가는 그 대학의 특정 사명 및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대학당국과 관련해서 도서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은 대학의 전반적

2) 보다 상세한 공간에 관한 정보는 "Metcalf, Keyes D. Planning Academic and Research Library Buildings. 3rd ed. Philip D. Leighton and David C. Weber.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9,c2000. Appendices B and C."를 참고.

인 기획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전략적 기획과 같은 공식적인 기획 절차와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기획 방법은 광범위한 대학사회로부터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 기획은 비전과 사명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들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특정 전략이나 행동 방침을 실행함으로써 대학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준다. 전략적 기획은 평가, 개정, 개선을 포함한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대학사회가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매일의 활동과 결정을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전체적인 방침을 제공해 준다.

2) 평가(Assessment)

포괄적인(종합) 평가는 모든 유형의 도서관 이용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조사대상 이용자의 선택과 문의할 질문은 적합한 자문위원회의 도움과 함께 도서관 경영진과 직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질문들은 도서관이 사명을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으며, 목적과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하고 있는지에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서명한 혹은 익명의 논평이나 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제안할 기회를 도서관내에서와 원격 전자접근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유형의 이용자들은 평가에 참여해야 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응답에 주어지는 중요성은 도서관의 초점 및 사명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측정과 평가 프로그램에는 변화하는 학년(academic year)의 리듬을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는, 아래에 열거된 기법들의 일부 혹은 모두가 필요하든지 간에,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평가도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다.

- 도서관의 이용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더 우수한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가진 학생을 배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도서관 인식 조사(혹은 "사전조사")를 처음 신입생 때, 다시 2～3학년 때, 졸업에 근접한 시기에 다시 한번 더 실시한다.
- 학생, 다른 사서,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얻기 위해 사서와 자율학습교육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평가
-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추적하는 데 이용되는 학생 저널 엔트리나 정보활용능력 일지

•특정 기간에 걸쳐 정보자원을 사용한 논평이나 경험들을 문의받게 되는 학생, 교수, 직원, 동창생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다른 대학의 사서 혹은 다른 적합한 자문가의 측정과 평가
•특정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분야 혹은 운영에 관한 비평

3) 성과 평가(Outcomes Assessment)

성과 평가는 점차 도서관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가와 그 영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학생의 성취와 비용 효율성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의 책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도서관의 정보기술에 대한 보다 큰 의존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의 증가, 정보활용능력 기술을 제공해야 할 책임의 증가, 컨소시엄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 증가, 장서개발비 감소의 가능성, 학술 정보가 출판되고 배포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새로운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성과 평가는 현재의 도서관 업무를 개선시키기 위한 유효한 장치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도서관 목적과 목표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어 왔던 성과의 달성에 중점을 둔다. 그것은 도서관이 성취하고자 명백히 규정해 왔던 것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성과 척도(performance measures)를 식별한다. 평가도구(assessment instruments)에는 실태조사, 테스트, 면접법과 다른 유효한 측정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도구는 측정대상이 되는 기능을 위해 특별하게 고안될 수도 있고 이전에 개발된 도구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평가도구, 표본 규모, 표본 추출에 주의 깊게 사용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구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도구가 사용된 방법이 그 직무에 적합해야 된다. 다른 동료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들은 평가 질문과 표본 규모를 제안하고, 경험담을 공유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대안이 되는 방법들을 제안함으로써 매우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질문:

1. 도서관의 사명성명서가 도서관 직원과 대학 경영자에 의해 분명하게 이해되는가? 도서관 사명성명서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가?
2. 도서관은 대학의 사명을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에 어떻게 부합시키는가?
3. 도서관은 성과를 평가하고, 대학사회에 알리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4. 도서관의 평가 계획이 모(母)기관의 평가 및 인가 전략의 구성요소인가? 예를 들어, 도서관은 대학 전체의 기획과 학술 부서의 활동에 관련해서 도서관의 평가절차를 수정하고 경신하는가?

5.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예를 들어, 도서관은 성과에 관하여 어떤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도서관은 신체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의 요구와 같은 특정 요구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
6. 도서관이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는 어떤 것이며,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7.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2. 서비스

도서관은 대학의 사명과 목적을 지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창안, 증진, 유지, 평가해야 한다.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유능하고 신속한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용자에게 적합하고 편리해야 된다. 참고봉사와 다른 특수한 원조가 대학의 주요 이용자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 학술 프로그램이 대학 캠퍼스 밖의 공간에서 제공된다면, 도서관 서비스는 ACRL "원격교육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지침(ACRL Guidelines for Distance Learning Library Services: http://www.ala.org/acrl/guides/distlrng.html)"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질문:

1. 도서관은 대학의 학술 프로그램과 최상의 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얼마나 잘 수립, 증진, 유지, 평가하고 있는가?
2. 참고봉사, 대출, 정부간행물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을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가?
3. 학생과 교수의 기대가 도서관 서비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4. 상호대차와 문헌배달서비스가 자격 있는 이용자의 요구를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는가?
5. 도서관은 접근 시간을 적합한 요구에 따라 일관되게 유지하는가?
6. 대학 캠퍼스 외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어떤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이 경우 이용자의 요구와 만족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7. 학생과 교수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8.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능력에 대한 양적, 질적 척도를 유지하고 활용하는가?

3. 이용자 교육

도서관은 참고면담을 포함해서 교과목-관련 교육과 교과목-통합 교육, 오리엔테이션, 실습교육, 정규 교과목, 자율학습, 패스파인더와 같은 다양한 참고 및 서지 봉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내 학술 부서로서의 도서관은 학술적인 성공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평생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새로운 기법과 기술을 전통적인 최상의 정보원과 결합함으로서, 사서들은 정보검색 방법, 평가, 도큐멘테이션에서 주요 이용자와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추가로 사서들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와 자주 협력해야 한다. 사서들은 교육적인 성과 평가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기획에 참여해야 한다. 정보활용능력 기술과 서지 교육은 지적 소유권, 저작권, 표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교과목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용자 교육 방법에는 흔히 교수 방법(teaching methods)으로서 언급되기도 하는데, "참고데스크에서의 개별지도, 깊이 있는 연구 상담, 개별 교육, 전자 혹은 인쇄 교육 보조, 전통적인 혹은 전자수업에서의 그룹교육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으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3)]

질문:

1. 도서관은 공식 및 비공식적인 이용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가?
2. 도서관은 대그룹 및 소그룹을 위한 적절한 이용자 교육공간을 제공하는가? 모든 유형의 자원을 소개할 뿐 아니라 실습 교육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간의 이용이 가능한가?
3. 도서관은 이용자 교육에 정보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4. 특정 교과목을 지원하는 도서관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수업담당 교수와 어떻게 일하는가?
5. 적용 가능하다면 도서관은 교수 연구를 어떻게 용이하도록 하는가?
6. 도서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7. 도서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증진하고 평가하는가?

---

3) ACRL Guidelines for Instruction Programs in Academic Libraries, <http://www.ala.org/acrl/guides/guiis.html>

4. 자원

도서관은 사명과 이용자의 요구를 지원하도록 다양하고 권위가 있으며 최신성이 있는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자원은 캠퍼스 내에서 혹은 원격 저장장치로부터 제공될 수 있으며 인쇄자료, 온라인 전자텍스트나 이미지 정보, 기타 다른 형태의 유형이 있다. 예산상의 압박 속에서 도서관은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장서의 최신성(currency)과 지속력(vitality)은 현명한 폐기를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질문:

1. 인쇄, 전자, 미디어 자원의 수서, 보유, 이용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기준이 사용되는가?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자원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2. 교수는 도서관 자원의 선정과 지속적인 장서 개발과 평가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3. 도서관은 장서, 자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양적 및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4. 인쇄, 미디어, 전자자원은 대학의 교과과정과 연구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5. 도서관은 캠퍼스 내 이용자와 원격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자자원에 대한 충분한 사용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가?
6. 컨소시엄 형태의 구매 및 라이센스 계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7. 도서관이 대학 간행물을 수집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면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8. 도서관의 장서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동료 기관의 것과 어떻게 비교하는가?
9. 도서관은 훌륭한 폐기 프로그램을 통해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5. 접근(Access)

도서관 자원에 대한 접근은 시기적절하고 규칙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관 장서와 이러한 장서에 접근하기 위한 목록은 국가서지표준을 사용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도서관 자원의 주요 목록은 동시에 사용하려는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하고, 모든 자원을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대차, 컨소

시엄 대출 협정(consortial borrowing agreements), 가상 전자장서에 대한 접근을 준비해야 한다. 더욱이 원격교육 프로그램은 장서에 대한 원격 전자접근,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의 준비, 원격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의 전자적 전송과 신속한 전달과 같은 수단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접근에 관한 정책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질문:

1. 도서관과 도서관 자원에 대한 최대의 지적이고 물리적인 접근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2. 목록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어떻게 보증되는가?
3. 장서의 배열이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가?
4. 도서관이 보유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호대차나 문헌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가?
5. 도서관은 이용가능한 컨소시엄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가?
6. 도서관은 전자자원의 접근에 적합한 성능을 지닌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의 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7. 목록과 다른 도서관 자원에 대한 접근은 대학 캠퍼스 내외에서 이용 가능한가?
8. 자료가 보존시설에 있다면 이러한 자료는 쉽게 접근가능한가?
9. 도서관은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6. 직원

직원은 주요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규모나 질에서 충분해야 한다. 도서관장을 포함한 사서들은 ALA에서 인정하는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추가로 적합한 훈련, 경험이나 학위를 가진 다른 전문직 직원을 둘 수도 있다. 모든 도서관 전문직원은 전문직 활동에 책임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보조 직원 및 학생 보조원들은 그들의 자격, 훈련, 경험, 능력에 적합한 책임을 부여받아야 한다. 보다 향상된 전문직 직원과 보조 직원의 개발은 안전, 긴급상황, 자료의 보존에 대한 훈련을 포함해서 계속교육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증진되어야 한다. 전문직 직원은 그들의 지위, 권리, 책임을 명백하게 설정해둔 성문화된 정책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ACRL 대학 및 대학교 사서를 위한 교수신분에 대한 기준

"(ACRL Standards for Faculty Status for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ans)과 일치하여야 한다.

질문:

1. 도서관은 전자자원을 포함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지원하고 전달할 능력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가?
2. 모든 직원의 계속교육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상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가?
3. 도서관은 자격을 갖춘 사서, 다른 전문직 직원, 숙련된 보조 직원과 학생 보조원을 도서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합한 수를 확보하고 있는가?
4. 대학은 도서관 전문직 직원이 합당한 인정을 받은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증하고 있으며 전문직 직원이 적절한 전문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장려하고 있는가?
5. 도서관 직원의 규모가 도서관의 목적과 서비스, 대학의 프로그램, 학위, 등록, 교수 및 직원의 규모, 보조 프로그램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6. 도서관 직원에 대한 정책과 절차는 대학의 지침과 확고한 인사관리와, 특히 고용, 신규모집, 임용, 계약 경신, 승진, 신분보장, 해고와 항소분야에서 어떻게 비교되는가?
7. 이용자 교육에 관한 책임을 가진 직원들은 효과적인 교육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8. 도서관은 직원에게 안전, 보존, 긴급상황 훈련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7. 시설

도서관 시설은 잘 계획되어야 한다. 도서관 시설은 도서관의 봉사와 직원, 자원 그리고 장서를 위해 적절한 환경을 마련하여 학습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 설비는 적절하고 기능적이어야 한다.

질문:

1.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해 훌륭하게 계획되고, 안전하고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2. 건물 기계 시스템(building mechanical systems)은 권장수준으로 온도와 습

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되고 유지되는가?

3. 충분한 좌석 수와 다양한 형태의 좌석을 포함해서 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간에 관한 이용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4. 도서관 장서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5. 직원들을 위한 충분한 업무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공간은 능률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는가?
6. 분관 도서관이 있다면 장서와 직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7. 도서관의 안내표시는 적절한가?
8.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와 직원을 위한 인간공학적인 컴퓨터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s)을 제공하고 있는가?
9. 전자적 접근과 관련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전기 및 네트워크 배선이 구축되어 있는가?
10. 도서관은 장애자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가?
11. ACRL 지침에 따라 원격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가?

8.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도서관장에서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직원에서부터 도서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은 대학 당국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정규적인 절차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도서관 직원은 대학의 다른 부서와 협력하고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전자정보원의 접근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도서관과 정보기술 담당 직원간의 특별한 관계는 장려되어야 한다. 몇몇 경우에 부총장, 학장 또는 정보서비스 부서장이 도서관과 정보기술부서의 운영과 봉사를 관리할 수도 있다. 도서관은 통상적으로 정보 컨텐츠(information content)를 선정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정보기술부서는 기술 하부구조(technical infrastructure)를 제공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직 모형은 없다. 따라서 봉사의 형태가 독립적이든 또는 통합적이든 간에 협력적인 봉사를 할 수 있고 상호간에 완전한 정보공유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문:

1. 관리 및 경영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하도록 도서관내에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가?
2. 도서관 구성원들이 도서관내에서 운영상 또는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절차를 제안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장려하는 절차가 있는가?
3. 도서관은 캠퍼스내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례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4. 도서관은 캠퍼스에서 다른 부서와 협조적인 업무를 확립하고 있는가?
5. 도서관과 정보기술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조직구조는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6. 한 명의 관리자가 도서관과 정보기술부서를 책임지고 있다면 어떻게 두 기능을 통합시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가?
7. 도서관은 캠퍼스내의 이용자와 원격 이용자에게 전자정보원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내 전문지식 형태로 정보기술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8. 캠퍼스 네트워크망의 용량은 자관 및 원격 정보원에 대한 적당한 응답시간을 제공하기에 충분한가?

9. 관리

도서관은 이용가능한 도서관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권장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도서관장은 총장 또는 적합한 대학의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서관에는 상설 도서관자문위원회가 있어야 하며, 도서관장의 책임과 권한이 문서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분관 도서관이 있다면 "대학과 대학교의 분관 도서관을 위한 ACRL 지침"에 따라 도서관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원격교육봉사를 제공해야 한다면 "원격교육 도서관 봉사를 위한 ACRL 지침"(ACRL Guidelines for Distance Learning Library Services)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도서관은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Rights)"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질문:

1. 이용가능한 도서관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권장하도록 도서관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2. 도서관활동에 대한 법규 혹은 법적 근거(예. 대학 내규)는 무엇인가?
3. 도서관장은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그러한 보고관계는 적절한가?
4. 도서관장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문서가 있는가?
5. 도서관에는 상설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이 위원회는 적합한 교수진과 학생대표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위원회는 얼마나 효과적인가?
6. 도서관 내부경영과 활동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7. 도서관은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10. 예산(Budget)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목표에 적합하도록 도서관 예산을 준비하고, 정당화시키며 관리하여야 한다. 도서관 예산은 다른 대학의 예산요구와 균형을 맞추고자 할 때 도서관 이용자의 타당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도서관은 재정자원을 호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대학의 정책에 맞추어 도서관 예산내에서 기금을 배정하고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산은 적절한 직원배치의 수준과 적합한 직원 보상을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

질문:

1. 도서관장은 설정된 목표에 맞추어 도서관 예산을 준비하고 정당화시켜 관리하는가?
2. 도서관 배정액은 도서관의 진행중인 적절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정한가?
3. 도서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대학의 교과과정을 고려하고 있는가?
4. 도서관 예산을 편성할 때 대학의 강의 방식, 특히 자율학습과 관련된 강의 방식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
5. 기존 장서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교과과정에 관련된 분야의 장서개발에 대한 적합율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은 적절한가?

6. 학생과 교수진의 실제규모와 예상규모는 도서관 예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7. 예산은 적절한 직원배치의 수준과 보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가?
8. 타 도서관 자원(예: 고문서 및 특수장서)을 위한 기금의 적절성과 이용가능성은 어떻게 결정하였는가?
9. 미디어와 컴퓨터 자원에 대한 접근을 획득, 처리, 봉사,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의 책임을 도서관 예산에 반영시켰는가?
10. 도서관장이 대학의 정책에 맞추어 도서관 예산내에서 기금을 배정하고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1. 도서관의 미불금 확인과 송장(invoices)에 대한 지불금은 어떠한가? 지출에 대한 선정과 계획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12. 예산에는 확장된 캠퍼스 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가?

전자출판물과 법적납본[1)]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CDNL) 著
이 숙 현 譯[2)]

<목 차>

서언, 배경, 도입
제1장 : 전자출판물의 정의
제2장 : 전자출판물의 법적 납본규정에 대한 방향 제시
제3장 : 전자출판물의 처리
제4장 : 결론
부록 A : 국립중앙도서관장회의 실무그룹위원
부록 B : 전세계 발전 현황 개요
부록 C : 사례연구 - 캐나다,프랑스,미국
부록 D : 장서개발 - 고려해야할 사항
부록 E : 서지통정과 레코드 작성
부록 F : 등록과정과 접수시 체킹작업 - 고려해야 할 사항
부록 G : 저장 - 고려해야 할 사항
부록 H : 보존 - 고려해야 할 사항

1) 이 보고서는 영국국립도서관 관장인 Brian Lang(현재는 퇴임)이 의장이 되어 국립도서관장회의 작업실무반에서 이루어진 연구보고서로 UNESCO의 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IT의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출판되었으며 도서관 제55권 제2호(2000년 여름호)에 서언에서부터 제4장까지 수록되었습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 열람관리부 자료조직과장, IFLA 수서・장서개발분과 상임위원

부록 A : 국립중앙도서관장회의 실무그룹위원

호 주 : Mr. David Tell (1995. 5까지)
캐나다 : Ms. Ingrid Parent
프랑스 : Mme. Marcelle Beaudiaquez
노르웨이 : Mr. Bendik Rugas
남아프리카공화국 : Dr. Peter Lor
영 국 : Dr. Brian Lang
의 장 : Dr. Brian Lang

부록 B : 전세계 발전 현황 개요

호주는 1968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에 납본법이 포함되어 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연방도서관법에 통합되어 있다. 연방법의 납본조항은 그 납본대상을 인쇄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몇몇 주의 규정에서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 1995년 국립도서관과 국립필름 사운드 보존소에서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미래에 개발되어 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가 광범위하게 납본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저작권법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은 국립도서관 웹 서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납본법을 적용하기전의 중간단계로 국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과 출판자가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제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CD-ROM과 플로피 디스크에 수록된 몇몇 전자출판물을 납본받고 있는 중이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납본자료의 이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했으며 1996년 도서관에서는 호주에서 발간되는 온라인 출판물 보존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캐나다에서는 법적납본규정을 국립도서관법에 포함하여 "책"을 납본한다는 것은 인쇄자료뿐 아니라 비도서형태의 출판물까지도 납본할 수 있도록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책이란 형태, 속성, 표현된 내용으로 보아 도서관 자료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문서, 보고서, 레코드, 테이프 등 기타 출판자들이 출판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CD-ROM과 CD-I 그리고 몇 가지 전자출판물들이 수집되고 있다. 국립도서관에서는 출판자들과 공동 협력하여 전자출판물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캐나다인이 발간한 전자잡지, 텍스트, 데이터

베이스를 찾아내어 인쇄형 혹은 전자출판물형태중 어느 한 가지로 자료를 보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주요사업의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자료식별, 수집, 저장 그리고 처리에 관해 많은 권장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확실한 법률이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때 온라인 출판물을 납본 요청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덴마크에서는 1927년 납본법을 제정하였는데 (계속해서 몇 번의 개정이 있었음) 이 법에서는 납본대상을 오직 인쇄물로만 하고 있다. 문화부 요청에 의해 인쇄물은 물론 자료, 라디오텔레비젼 방송물, 멀티미디어자료, 정·동 전자출판물까지 납본대상을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다. 다른 많은 형태의 전자출판물이 포함될 것이 제안되었으며 그리고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향후 새로운 형태의 자료가 개발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현재 도입한 법에 따라) 계속해서 자료의 내용이 경신되고 자료들(예를 들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경신이 끝날 때까지 납본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나 납본도서관에서는 적당한 조건으로 이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현재 실시중인 것으로 덴마크필름은 필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필름박물관에 납본되고 있다. 상업용으로 출판된 음성기록물들은 국립박물관에 보존되고 있고,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 테이프는 국립매체보관소에 보존되고 있다. 공공행정을 위해 생산되고 있는 전자 데이터 세트는 국립문서관에 납본되고 있으며 전자적 연구 결과물은 덴마크 데이터보관소에 소장되고 있다.

핀란드의 국립도서관에서는 1980년 법적납본 자료에 관한 법률과 정관에 의해 인쇄물, 사운드, 이미지 레코딩에 관한 자료를 납본받고 있다. 1984년에 법을 분리하여 영화필름, 필름, 비디오에 대해서는 핀란드 필름보존소에 납본하도록 규정하였다.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물이나 전자출판물을 납본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에서는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전자출판물과 신매체를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537년부터 납본법을 갖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오직 인쇄출판물만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1925년에는 축음자료 및 영화자료를, 1943, 1975, 1977년에는 사운드, 시청각자료를 납본하도록 법을 개정한 후 출판자들로부터 납본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하여 개정된 1992년 6.20일자 법률에 의하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납본되어진 모든 자료 그리고 다른 자료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자료의 수집, 보존, 국가서지의 준비와 발간 그리고 자료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되어있다.

납본 대상으로는 인쇄물, 그래픽자료, 사진자료, 사운드, 시청각 멀티미디어자료 등, 자료가 생산된 방법에 관계없이 발간된 자료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라면 납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적인 전자출판물에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동적인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그리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즉 오프라인 출판물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온라인 출판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94년에는 CD-ROM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료들이 약 700종이 납본되었다. 이들 자료중의 25%가 디스켓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이었는데 그중 250종은 상호호환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었다. 1995년 상반기에 접수된 자료가 1994년중에 접수된 자료와 수량이 거의 비슷했다. 1996년 후반기부터 새 건물인 똘비악에서 납본된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정할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1969년 제정된 독일국립도서관법이 통일이후 개정되어 문자로 표현된 모든 자료중 인쇄자료, 혹은 재생산과정에서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사운드, 삽화자료 등을 납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16개의 각각의 주에서는 법적으로 자료를 납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갖고 있다. "인쇄자료"란 물리적 형태를 지녀서 배포가 가능한 전자출판물 그리고 비도서자료를 포괄적으로 포함해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적인 자료는 납본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필름, 비디오 그리고 방송자료 등 비록 다양하고도 특별한 자료가 있을지라도 납본법에 의해 납본받지는 않는다.

이태리에서는 1939년에 오직 인쇄물과 그리고 책에 딸린자료로서 생산된 비디오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1945년 개정되었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읽고, 듣고, 보면서 공중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는 보존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마이크로형태자료, 지원형태의 온라인매체 이외의 데이터베이스자료, 멀티미디어자료, 사운드비디오 레코딩자료, 필름자료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프로그램들이 그 납본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다.

네덜란드에는 법적납본규정은 없고 대신 출판자들의 자의적인 납본에 의존하고 있다. 약 10년 동안 네델란드출판협회와 협상을 한 후 인쇄자료에 대해서는 거의 100% 네델란드 출판물을 납본받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협정을 맺기 위해 1994년부터 네델란드 출판업자들과 협상을 시작했다. 1993년 왕립도서관에서는 전자출판물의 수집 강화, 국가서지의 작성 그리고 자료보존을 위해 네델란드전자출판물납본소를 설립했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1년까지는 동 납본소가 정상 운영될 것이나 5~10년이내에는 100% 납본율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출판자들이 인쇄자료, 사운드 레코딩자료, 필름, 비디오 그리고 정·동적 전자출판물을 납본받도록 1990년부터 발효된 납본법을 5년 이상 시행해온 경험을 갖고 있다. 법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출판물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골격을 갖추고 있다. 법규정에서는 국립도서관이 무엇을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현재 처리가능한 자료 수의 범위내에서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서관이 기술적으로 처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수집가능 한 기타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립도서관에 그 재량을 부여해 놓고 있다.

최근 전자출판물의 법적납본과 관련하여 구성된 실무그룹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립도서관이 전자출판물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전자출판물의 보존, 목록, 기타 다른 문제들 그리고 전자출판물의 자료조직에 관해 논의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1994년 7월까지 약 240종의 전자출판물이 접수되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나 각각의 자료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문헌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호되고 있는 저장매체로는 골드플래트 CD-ROM으로 향후 납본자료는 이러한 형태의 매체로 확산될 것이다.

남아프리카에서는 1982년에 납본법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인쇄물 5부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납본 도서관위원회에서는 소송중에 발견될 수 있는 맹점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의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에서는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행정체제를 고려하여 시청각자료 및 전자출판물이 법적으로 납본될 수 있도록 시도할 계획이다.

스페인에는 1971년부터 도서와 정기간행물, 사운드레코딩, 영화작품을 납본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 국립도서관에서는 1996년 문화부에서 의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법에서는 자료가 생산되는 기술 혹은 생산품의 보급은 고려하지 않고 인쇄물, 그래픽, 포토그래픽, 사운드, 시청각자료, 멀티미디어자료까지 납본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전문시스템 그리고 기타 인위적으로 생산되어진 지적산물이 포함되어질 것이다. "문헌"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문화를 표현한 작품과 어떠한 형태로든 기록되어진 생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진다. 자료납본책임자는 전에는 인쇄업자로 한정했으나 법 개정내용에서는 출판자, 생산자 그리고 수입업자까지도 자료납본책임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도서관에서는 납본대상을 정적인 자료는 물론 동적인 자료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소량의 자료가 자의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661년이후 인쇄물에 대한 법적납본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왕립도서관과 6개의 다른 도서관에서 납본을 받고 있다. 1978년 납본법에 의해 특정 비디오 및 오디오 레코딩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국림음성.영화자료 보존소를 설립하였다. 1994년 1월부터 발효하기 시작한 1993년의 납본법은 마이크로형태와 같은 기타 비도서형태의 자료 및 핸드헬드(예 정적인 자료)전자출판물을 납본하도록 요구하였다. 동적인 전자출판물은 납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구상이 없다. 현재 모든 형태의 자료에 대한 납본 책임은 생산자들에 있으나(필름은 제외) 왕립도서관에서는 배포자와 생산자에게 전자출판물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왕립도서관에서는 전자출판물의 장기보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 연구가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법에 납본법을 포함하지 않으며 국립도서관에서 자료의 수집, 목록작성 그리고 매체형태에 관계없이 스위스에 관한 모든 자료는 수집 보존하여 가능하면 최대한 광범위하게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오직 인쇄물만을 납본대상으로 하고 있는 별도의 법적납본규정을 갖고 있을 뿐이다. 국립도서관은 정적인 전자출판물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그들 자료를 목록 작성하여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름은 루산지방의 별도기관에 저장하고 음악자료는 루가노 지방의 별도기관에 저장하고 있다.

영국의 법적납본에 관한 법률은 1911년 저작권법 15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법은 1956년과 1988년의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까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해 왔다. 이 법에 포함되어 있는 납본대상 자료는 도서, 학술잡지, 일반잡지, 계획서, 지도 그리고 악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세가지 법 중에서 인쇄형태가 아닌 자료를 납본하도록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아무 것도 없다. 1996년 1월 영국국립도서관은 온라인 출판물과 오프라인 출판물 그리고 동적, 정적인 출판물 등 모든 형태의 비도서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문화유산부에 법률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새 법률안에서는 납본대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의 적용은 안정적으로 출판되고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여 좀 더 새로운 출판매체로 확대해 나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내에서 출판되는 모든 자료가 저작권을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그 자료들이 "저작권에 대한 주의"(이 의미는 만약 어떠한 자료의 생산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등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여 납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미국의회도서관에 납본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저작권은 작품이 창작순간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등록과는 관계없이 출판된 모든 작품들은 납본해야만 한다. 저작권에 따른 자료의 범위는 문학작품, 음악작품, 희곡작품, 판토마임 그리고 안무작품, 사진, 그래픽, 조각작품, 영화 그리고 시청각자료, 사운드 레코딩자료, 건축작품이 납본대상에 포함된다. 비도서자료 중 의무적인 납본의 몇가지 범주로 기계가독자료 및 CD-ROM 등이 포함되고 있으나 1993년의 연방법에서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납본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국에서는 모든 종류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온라인 출판물에 대해서 "출판"과 "전송"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권한으로는 부족하다. 최근에 출판된 지적재산권과 국가정보 인프라에 관한 백서에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출판자의 불안함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의회도서관과 출판자대표기구에서는 CD-ROM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담은 4개 문서에 협정을 맺었다. 그 중 일개 문서는 미의회도서관에 납본된 CD-ROM을 이용할 때 적용하는 일반원칙의 개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서관 이용자가 CD-ROM을 이용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다운로드를 받을 때 이에 대한 제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마지막 두 개 문서는 출판자들을 위한 것으로 그들이 출판한 CD-ROM을 이용자들이 독립형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 혹은 5개의 자료실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내의 네트웍상에서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문서들은 1993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CD-ROM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 도서관과 이용자들은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CD-ROM이 다른 방법으로 수집되어 도서관의 주요 자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도서관의 일반정책과 협정서에 따라야 한다. 보존과접근위원회 그리고 연구도서관그룹에 의해 설립된 디지털 정보보존 특별작업반에서는 "디지탈 정보 보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많은 권장사항을 만들었다.

부록 C : 사례연구 - 캐나다, 프랑스, 미국 -

캐나다의 전자출판물 법적납본

법적 규정

연방차원에서 캐나다의 법적납본은 국립도서관법에 의해 관장되어지고 있다. 동법 제13조에서는 캐나다에서 출판자들이 "책"을 출판한 경우 캐나다국립도서관장에게 출판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자비로 2부를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이란 용어와 "캐나다에서 출판된"이란 용어에 대해 동법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책"이란 모든 종류의, 속성의, 그리고 표현된 도서관자료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정보가 매체에 쓰여졌거나, 기록되었거나, 저장되었거나, 재생산된 어떤 종류의 문서, 보고서, 기록물, 테이프 혹은 출판자가 출판한 기타 다른 자료로 광범위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장관에게 오직 한부를 납본할 필요가 있는 출판물과 국립도서관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납본할 필요가 없는 자료의 종류를 기술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역사

1953년 첫 번째 법령이 공포된 이후 납본에 관한 조항은 몇 번 수정되었다. 원래 법 13조에서는 두 부의 소매가격이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납본을 일부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9년 개정법에서는 납본 대상자료 1부의 소매 가격이 $50을 초과할 경우 그 1부만을 납본하도록 하였으니 1995년 개정법에서는 출판물의 가치를 소매가격과 연결시킨 항목을 모두 삭제시키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책"이란 용어의 정의 변경도 있었다. 원래 법에서 "책"이란 용어는 모든 종류의 책의 속성을 지닌, 그리고 표현된 도서관자료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1969년 법이 개정되었을 때 "어떠한 종류의 문서, 보고서, 레코드 그리고 출판자가 출판한 기타자료, 다른 매체에 정보가 쓰여졌거나, 기록되었거나, 저장되었거나, 재생산된 것"이 추가 보완되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규정변경이 좀 빈번했다고도 할 수 있다. 법에 의해 장관이 만든 국립도서관도서납본규정은 1953년 1월 최초로 만들어졌다. 동법은 1953년 3월, 1954년10월, 1958년5월, 1969년8월 그리고 최근에는 1995년 4월에 경신되어 다시 발행되었다. 법에 대한 대부분의 개정은 납본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판물의 목록을 추가시키거나 삭제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을 납본하도록 하는 제도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이었다. 새로운 형태 자료를 납본받기 위해서는 "도서"의 용어정의에 추가로 내용만 보완하면 되었다. 본래 정의된 용어에 추가 내용 보완이 없을지라도 모든 형태 그리고 모든 종류의 자료에까지 납본대상을 충분히 확대 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납본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경신없이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까지 납본 대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납본 대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규정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납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에 납본대상에서 제외시킨 대상이었다면 규정을 공식적으로 개정하여 납본대상으로 확대하면 되는 것이었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적용

상대적으로 법이나 규정의 속성이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도서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 납본을 요청하는 권한을 시험해 보기 위해 관례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1992년 국립도서관에서는 현재의 국립도서관법과 국립도서관 도서납본규정이 CD-ROM 출판물을 납본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법적 자문을 요청했다. 그 시기에 받았던 법적자문은 법에서의 "도서"라는 정의는 CD-ROM과 같은 전자매체의 출판물까지 충분히 확대하여 납본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CD-ROM이 규정으로 납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립도서관이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그들 자료를 충분히 납본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립도서관장은 도서관법과 납본규정에 의해 출판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을 납본할 것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립도서관이 CD-ROM의 대체판으로 최신판이 나올 때마다 납본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때때로 구입하여 수집한 자료에 붙여진 조건이 있다) 법적고문은 최신판은 새로운 출판물로 간주할 수 있으며(출판물의 개정판을 신판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이) 따라서 법적납본조항을 각각의 출판물에 별도로 적용할 수 있고 도서관은 개별 자료의 연속판으로서 납본된 자료를 보유할 자격이 있다.

국립도서관이 납본 수집한 CD-ROM에 첨부된 특허동의서에 서명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법적고문의 자문은 국립도서관이 서명할 의무는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나 자문관은 법적납본으로 받고 있는 어떠한 자료도 아직까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립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라도 저작권법을 저촉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국립도서관은 현재 오직 원격 접근 수단으로 배포되고 있는 온라인전자출판물에 납본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국립도서관이 구하고 있는 법적자문의 주요내용은 원격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제공물이 출판물과 동등한 것인지의 여부를 자문하는 것이다. 법에서 정의한 내용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출판된"이란 용어는 "공중에서 배포 혹은 판매를 목적으로 캐나다내에서 출판된"이라는 의미이다. 몇 년전 국립도서관에서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용으로 임대한 음악비디오에 대해 법적납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자문관에게 문의한 바 있는데 일반인이 구입할 수 없는 자료까지 법적납본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나 공공배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로서 법적기준과 부합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법적자문관은 "공공용 배포나 판매"란 문구는 물리적인 형태가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촉용비디오의 경우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실례에서 주어진 법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국립도서관은 테이프, 디스켓 혹은 CD-ROM과 같이 공중 이용되면서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아닌 형태가 없는 자료의 경우에 즉, 온라인으로 원격 접근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포되고 있는 전자출판물에 대해서 출판자들에게 납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립도서관입장에서는 온라인 출판물의 배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캐나다 저작권규정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다. 저작권법에서 "출판물"이란 용어는 "공공에게 배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작품"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의된 범주에서 명확하게 배제된 것은 공개된 희곡작품, 강연원고, 공공전시용 예술작품, 건축작품 등이다. 1993년 저작권법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요구에 따라 개정되었고 그리고 "원거리통신에 의해 공공에게 작품 전달"이란 조항도 "출판물"

이란 범위에서 배제되는 항목중의 하나로 되었다. 저작권법에서도 동법의 목적을 위해 정확히 "출판물"이란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 정의는 국립도서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출판된"이란 용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법적납본조항을 적용할 때 저항이 있다면 소송이 걸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따라서 국립도서관에서는 국립도서관법에서 "캐나다에서 출판된"이란 용어의 정의와는 별도로 저작권법에서 정의되어진 "출판물"이란 용어의 정의를 도입할 때에는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립도서관법의 법적 납본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오직 온라인으로 원격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포되는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국립도서관은 온라인 전자 출판물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인가조건과 제약조건이 동법의 법적납본조항에 의해 국립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법적 자문을 받을 때까지 납본법을 적용하여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수집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자출판물 시범사업

국립도서관에서 비록 온라인 출판물을 납본받기 위해 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법을 적용하기 이전 단계로 전자출판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출판업자와 접촉하여 제공된 자료를 이용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자료보존을 위해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하여왔다. 특히 캐나다국립도서관에서는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라인출판물의 수집에 초점을 기울이며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국립도서관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온라인전자출판물의 소재파악, 접근방법, 보존 그리고 접속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반대로, 출판업계에서는 다른 자료를 납본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출판물 납본 방법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도서관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거나 혹은 국립도서관의 권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간에 온라인출판물을 납본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화를 도입하기전에 출판업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자출판물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은 실무경험은 보다 의미있고 생산적인 협의과정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Library's Web site에는 국립도서관이 온라인출판물의 수집, 저장, 목록작성 그리고 이용자에게 접근방법을 제공하면서 얻은 경험이 간략하게 보고되어 있다.

프랑스에서의 전자출판물의 법적납본

Ⅰ. 법률

전자출판물에 대한 법적 납본대상으로의 확대는 1985년 7월3일 저작권에 관한 법률에서 소프트웨어보호를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발생된 필연적 결과이다. 최근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전자출판물도 법적 납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Ⅱ. 법적납본과 법적성격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형태

전자출판물은 법규정에서 언급되지 않고 대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시스템 그리고 지적산물로부터 생산된 기타문헌"과 같은 용어로 언급되어 있다. 전자문헌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매체로 공공에게 제공되어지는 한" 납본 되어져야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온라인 형태의 전자적 데이터는 프랑스법에서 납본대상의 범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형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손쉽게 더 많은 대상이 납본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시스템, 그리고 지적산물에서부터 추출되는 기타 다른 자료들은 그 자료를 생산할 때 사용한 매체나 배포시 사용하는 매체와 관계없이 납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컴퓨터디스켓, CD-ROM, CD-I, 포토CD, 마그네틱테이프 등) 실무를 할 때에는 납본 받은 자료를 읽기 위해 사용해야 할 마이크로컴퓨터에 관한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될 일이다(PC, 매킨토시, 윈도우즈95, 윈도우즈NT, Unix 등) 그렇다할지라도 주변기기와 소프트웨어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할 수 있다.

법적납본에 의해 제출된 전자출판물은 대금을 지불하거나 대여의 방법으로 혹은 무료로 일반공중에게 제공되어지며(그러나 회사 혹은 관공서에서 내부적으로 필요해서 생산한 자료들은 납본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납본 대상이 되는 자료들은 프랑스내에서 출판되었거나 생산된 자료이다. 그 경우 출판자나 생산자는 납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외국자료를 프랑스로 수입하는 수입업자들 또한 최소한 100부이상을 수입할 때에는 납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모든 출판물 혹은 개정판은 출판시에 각각 1종2책을 딸린 자료와 함께 납본을 해야하며 법에서는 전자출판물을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비록 이러한 구분이 구식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는 총망라적으로 수집되어진다.
* 소프트웨어 생산물(progiciels)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은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오직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생산물만 보존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식적인 선정 기준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멀티미디어자료의 법적납본

프랑스법률에서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특별한 범주에 두어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와 구분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자료의 납본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고(선별없이 2부 납본) 현재 시청각자료들은 납본되고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자료의 납본은 두가지 점에서 다른 면이 있다. 일반대중을 위해서 자료를 출판했을 때 뿐만아니라 특정대상을 위해 생산된 자료일지라도 납본을 해야 한다. 이는 일개 회사 혹은 행정기관의 내부용으로 출판된 자료까지 납본대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납본 대상의 범위가 데이터베이스의 납본대상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가지 다른 점은 수입된 자료도 50부 이상을 (데이터베이스자료로서 100부 혹은 그 이상)수입한 경우에는 납본을 해야한다.

현재 법적납본 규정에서는 전자출판물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때때로 이를 구분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긴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인지, 소프트웨어인지를 쉽게 분류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를 구분할 때 혼돈이 생긴다.

Ⅲ. 전자출판물에 대한 법적납본의 적용

전자출판물에 대한 서비스는 1993년에 법이 제정되고 1994년 1월부터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그 시기에는 데이터베이스만 수집하였다. 소프트웨어는 위에서 언급된 기준이 공표될 때 수집되기 시작할 것이다(추정하건데 1996말경). 1996년 5월 현재 3명의 직원(컴퓨터기술자 1명, 사서 2명)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새 법에서 규정한 납본대상과 관련하여 납본예정자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특히 새로운 납본대상을 출판하고 있는 출판자나 생산자, 전문가 그리고 새로운 법률 규정을 알지 못하는 출판자나 생산자들에게 새로 개정된 법내용을 통보하였다.

현재까지 연속간행물 약 35종(현재 발간중인)을 비롯하여 정부간행물, 참고자료, 사전류, CD-ROM이나 디스켓에 수록한 주요 프랑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약 1,800종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교육훈련용, 전문분야 응용(회계분야, 디자인분야 등)소프트웨어, 예술 그리고 레저 등 많은 분야의 자료가 제출되었다. 동서비스는 800개의 출판사/생산자(300명은 적극적인 납본자임)들에게도 참고가 되며 그리고 이 내용은 향후 출판될 자료의 파악을 위해 혹은 납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 데이터베이스로 작성되고 있다.

Ⅳ. 목록작성 및 처리

접수된 각각의 자료는 정확하게 설치한 후 설치주의서에 반하는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기술적인 내용이 수록된 부전지를 부착해 놓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형태를 기록해 문서로 남긴다. 문헌을 장착할 수 없거나 적당히 운영할 수 없다면 이는 다시 출판자나 생산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목록작성은 나타난 화면에 나타난 제목에 따라,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어 곧 이어 공식적인 표준이 될 프랑스목록규칙(AFNOR NF Z 44082 Catalogage des documents.....)을 따르게 된다. 이는 ISBD(CF)로부터 따온 것으로 이 또한 현재 개정중이다. 주요 초점은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서지데이타베이스인 BN-OPAL내에서 INTERMARC 포맷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제목록은 RAMEAU 주제명 표목을 따른다.(미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프랑스판)

Ⅴ. 보존

전자출판물은 일정기간동안 원래 매체대로 임시장소에 보존한다. 대부분의 자료는 향후 먼지가 없는 카드상자와 정전기예방 봉투에 들어있는 디스켓에 보존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마그네틱 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CD-ROM에 이전 수록한다. 이는 단기 저장 수단이다. 프랑스국가서지는 향후 이중의 보존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프랑스국립도서관 기술센터에서는 물리적 형태를 지닌 매체의 보존(원매체 및 딸린 자료의 보존)을 위해 고전적 보존 기술과 저장기술(온도, 습도측정)을 함께 적용할 것이다. 현재 연구하고 있는 기술적 방법에 따라 내용(데이타와 프로그램)을 보존하고 있다. (광학적인 저장과 검색을 위해 다양한 사양이 시험되고 있음)

Ⅵ. 자료 접근

일반규칙에 의하면 법적납본에 의해 수집된 문헌들은 일반인에게는 이용시키지 않고 오직 국립도서관내에서 이용자가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할 때만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에게만 자료접근 권한 부여
- 도서관내 지정 지역내에서 자료 찾아보기(대출 안됨)
- 도서관 기능직에 의해 이미 배치가 완료된 자료(이용자는 자료를 배치할 수 없음)
- 독립형 워크스테이션(인쇄 혹은 다운로딩은 안됨), 네트웍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료
- 공개 신청은 안됨(화면상 혹은 다른방법으로)

이러한 조항들은 저자나 출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해야 한다.

미국의회도서관과 기계가독자료의 납본

미국 저작권법하에서의 납본강화

미국에서는 미의회도서관 장서 수집을 위해 저작권법에 자료의 납본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법에서는 납본대상을 인쇄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러 형태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상황은 도서관이 전자형태 자료의 납본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미의회도서관에서는 현재 이러한 자료의 대출은 하고 있지 않다.

1976년의 저작권법407항에 Title 17 U.S.C. 즉 납본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1978년 1월이후부터는 이조항에 따라 미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는 미의회도서관의 사용 혹은 소장을 위해 저작권 소유자 혹은 그 출판물에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저작권국에 2부를 납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는 출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본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작권자가 저작권국의 납본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의회도서관에서 발간한 가장 양질의 판에 대한 성명서에는 출판된 자료가 재판인 경우에도 납본해야 할 자료에 대한 언급이 있다. 407조항에 의해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료도 있을 수 있고 1부만 납본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고 어떤 자료는 레코드판이 요청될 수도 있다. 202.19 연방법 37조에서 저작권국규정을 적절히 찾아볼 수 있다. 1978년 동규정들이 최초로 채택되었을 때 일반인에게 기계가독자료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도서관에서는 오직 기계가독형태의 출판물에 대해서는 의무적 납본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들이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408조 등록규정에 따라 자료식별서를 제출할 수는 있었다. (예 : 컴퓨터프로그램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규정의 25페이지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기계가독형 장서

컴퓨터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기계가독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만들고 연구자가 기계가독형태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국가문헌화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들은 이용자가 전통적으로 오직 인쇄형태로만 이용하던 자료(예 : 백과사전과 참고도서)들을 기계가독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계가독형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미래 학자들이 중앙에서 컴퓨터 혁명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계가독형의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접근도 가능하게 하였다.

도서관장서의 범위를 확장하고자하는 새로운 목표는 저작권국으로 하여금 1988년 10월16일 법률을 채택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기계가독자료의 납본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저작권국에서는 기계가독자료의 납본의무예외항목을 철회하고 IBM 혹은 매킨토시에서 출판한 기계가독자료를 납본하도록 요구하였다. 37 C.F.R.202.19의 납본의무조항에서 온라인으로 이용되는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자료의 기계가독본만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하고 복사보호시스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부가 아닌 한 부를 납본하도록 하였다.

출판자의 관심을 강조하면서 기계가독자료실에는 연구자들의 사용에 대해 제한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도서관은 연구자들이 본인의 디스크를 넣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도서관 직원은 사용을 감시하며, 특별한 디스크는 디스크드라이버슬롯을 잠글 수 있게 하였으며, 딸림자료로서 납본된 컴퓨터메뉴얼을 복사

할 수 없게 했다. 연구자들은 자료실에서 전자적으로 자료를 전송하여 외부로 갖고 나갈 수가 없다. 기계가독자료실은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그 자료실의 소장자료들은 각 자료실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유사한 제도가 자료의 안전을 위해 다른 자료실에 도입되고 있다.

CD-ROM의 납본등록

CD-ROM의 출판이 점점 유행함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저장이나 보존의 개선을 위해서 CD-ROM형태의 장서 증가를 희망했다. 1991년9월 19일 저작권국에서는 저작권법408조를 개정하여 CD-ROM형태의 자료를 납본받도록 하였다. 저작권국에서는 현재 소프트웨어와 딸림자료로서 메뉴얼이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인쇄형 자료가 있는 CD-ROM 패케이지 자료의 납본을 요청할 수 있다. 전에는 저작권국에서 기계가독자료대신에 단순히 식별 가능 분야의 자료만을 납본할 것을 요청했다. 법률개정은 CD-ROM 팩케이지가 저작권등록과 납본의무 양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료로서 선호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 오직 온라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편찬물 혹은 CD-ROM에서 이용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납본 필수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다.

CD-ROM 동의서

1992년 정보와 출판업계의 대표들은 이용자들이 CD-ROM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서관과 접촉을 시도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측면에서 또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도서관 이미 출판자와 이미 체결한 인가동의서에 따라 CD-ROM을 수집하였고 지금은 납본의무와 납본허가를 통해 CD-ROM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납본자료에 대해 출판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야하는 허가조건에 동의할 의사가 없었다. 뿐만아니라 도서관에서는 조건이 한가지로 단일화되기를 희망했다. 즉 각각의 CD-ROM 생산업자와 여러 가지 다른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희망하지 않았다.

출판자와 도서관 대표간의 계속된 회합은 1993년 CD-ROM 협정서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협정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LC Stand alone판과 Central file server 판 2가지가 있다. Central file sever 동의서는 도서관이 미의회도서관의 캐피탈힐 건물내 5개의 서로 다른 자료실에서 LAN으로 CD-ROM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Stand alone 협정서에 따라 의회도서관내 별개 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개의 CD-ROM을 접수받는다.

협정서에 근거하여 출판자는 60일 이내에 발행된 출판물을 납본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이용자는 자료를 검색하여 검색결과물을 인쇄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향후 상업적인 서비스를 위해 CD-ROM협정서를 이용할 수는 없다. CD-ROM을 안전한 장소에 보존하고 권한있는 도서관 직원의 감독하에 자료를 처리해야 한다. 최신판으로 대체되는 CD-ROM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반드시 별도로 보존은 되어야 하며, 그리고 보존하지 않는 자료들은 불필요한 자료로 처리되어야 한다.

납본자들은 불필요한 다운로딩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다운로딩을 허락한다면 납본자는 도서관이용자에게 도서관이 최소한 6개월동안 보관하는 다운로딩동의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납본자들은 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자료들을 해제하여야 한다. 즉 납본자들은 도서관이 교환으로 혹은 다른 기관에 기증용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정들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협정서 없이 CD-ROM을 납본한 저작권자들은 정상적인 납본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즉, 납본은 저작권을 위한 등록을 의미하며, 완질의 CD-ROM이 제출되어져야하고(1부, 딸린 소프트웨어자료 그리고 양쪽의 형태로 출판되었다면 인쇄판이 포함되어진) 그리고 납본의무를 위해 가장 양질의 판이 제출되어야 한다.(모든 딸린 자료가 포함된)

전자출판물형태 자료의 안전보존

도서관 장서 수집의 한 방법으로 납본되고 있는 전자형태 자료는 원자료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3년 저작권등록 및 납본에 관한 자문위원회(ACCORD)보고서에서는 도서관 자료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납본법 407조항을 보강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 법조항에서는 전송되는 프로그램과 온라인데이타베이스 등을 포함해 매체와는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작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CCORD의 몇몇 회원들은 도서관에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의지를 지지하였으나 특히 온라인 출판물과 같은 전자형태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연구와 안전장치가 법과 행정조치 변경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라디오와 텔레비젼과 같은 "프로그램 전송"과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인쇄자료 납본을 요구하는

대신 법으로 규정한 일정한 조건하에 방송되지 않는 자료를 기록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 관리 규정을 만들기 이전에 연구와 협의 과정을 도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 있을 수 있다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에 대한 연구도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한 토론들은 국가적 그리고 범세계적 정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지속적인 토의 과정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부록 D : 장서개발 - 고려해야 할 사항

- 납본법을 적용하여 수집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인쇄자료와 동일한 자료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자료선정시에는 납본될 인쇄형자료가 갖고 있는 내용과 지적가치가 비슷한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 자료의 손쉬운 처리가 가능한지, 표준화기법을 따라 제작된 자료(CD-ROM, CD-I)인지, 포맷이 표준화된 것인지, 경험이 축적 발전하면 다른 포맷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온라인출판물 등) 등을 초기에 확인한다.
- 초기에 새로운 출판사에서 전자출판물을 출판했는지를 확인한다. 인쇄자료와 동등하게 발행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따라서 인쇄형자료와 복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 전통적이고 오래된 출판사에서 발간한 자료인지를 확인하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출판사들과도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새로운 전자출판매체나 포맷을 사용한 출판물은 확실한 미래가 보일 때까지 수집하지 않는다.
- 납본도서관에서 수집·저장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을 선정한다. 납본 자료가 아닌 그 밖의 출판물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선정기준으로 데이터의 포맷이나 출판된 매체 혹은 매체의 내구성을 채택하지 않는다.
- 규정에서 지역적 범위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지리적으로 포괄해야 할 범위를 선정기준에 포함할 것인지 숙고한다.
  -자국내에서 이용가능한 출판물
  -자국내의 출판자/수입자/배포자를 기준으로 한 출판물
  -자국과 관련한 출판물 혹은 자국민 혹은 자국의 문화
  -자국적을 가진 작가와 관련된 출판물
  -다른 나라의 법적납본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출판물

(법적납본규정이 법규정내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야한다. 출판물이 수입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 이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있을 수는 없다).

인쇄형태와 전자형태 두 가지 방법으로 출판된 자료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의 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자료가 두 가지 이상의 전자형태로 출판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예를 들면 IBM과 Macintosh판,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판물) 또한 빈번하게 내용이 경신되는 자료의 경우 자료가 갖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납본주기을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부록E : 서지통정과 레코드 작성 - 고려해야 할 사항

- 국가서지에 전자출판물에 대한 기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 다른 자료와 마찬가지로 목록을 작성해서 국가서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용자에게는 편리하다. 이러한 자료들의 보존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몇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 레코드의 생산은 표준화된 목록규칙을 따른다.
- 다른 기관에서 이미 생산한 레코드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레코드를 생산하지 않는다.
- 전자출판물이 새롭게 납본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관의 장서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서지에 전자출판물 레코드를 포함시키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납본된 장서에서 이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좌우될 필요는 없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적당히 처리만 할 수 있다면 부가적으로 레코드의 정보를 찾아내야 한다.
- 표준서지목록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혹은 별도로 기술과 관련된 레코드를 생산한다.
  - 원출판물에 부수되는 모든 항목을 기록한다.
  - 저장포맷과 매체에 관해 기술해 둔다(원자료와 보존 사본을 위해)
  - 기술적인 설치에 필요한 지침서를 제공한다.
  - 원자료와 보존을 위한 사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기술해둔다.
  - 만약 전자출판물의 소장위치가 딸린 자료들의 소장 위치와 다를 경우 딸린 자료의 소장위치를 등록해둔다.

-보존을 위한 사본의 위치를 등록해둔다
-만약 자료가 온라인출판물이라면 원자료의 넷트웍위치를 명시해준다

- ISSN과 ISBN과 같은 국제표준등록번화가 있는 경우 이를 부여하고 기록해 둔다.
- 레코드가 생성된 자료가 빈번하게 그 내용이 바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연속간행물처럼 취급한다. 자료가 최초로 출판되었을 때 "열린(open)" 기입으로 레코들을 만들어 놓는다.

부록 F : 등록과정과 접수시 체킹작업 - 고려해야 할 사항

출판자가 납본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 전자출판물은 자료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든, 정기구독자료의 일부분이든, 무료구독이든, 허가구독 등에 관계없이 납본되어야 한다.
- 전자출판물을 납본할 때에는 딸린 자료 모두를 함께 납본해야 한다. 딸림자료들은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어야 하며, 자료를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자료들이다.
- 납본된 전자출판물을 이용할 때 개인소유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일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자료도 함께 납본해야 한다.
- 다른 매체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저작권보호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납본해야 한다 .
- 만약 납본법에 자료보존을 목적으로 보존도서관에서 복사할 권리 및 자료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출판자는 납본시 작성하는 서류에 이에 관한 권리 부여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 출판자가 전자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권리를 제삼자로부터 획득하였다하더라도 납본도서관이 납본법에 따라 이 자료를 시험한다면 이를 저지할 수 없다.
-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혹은 이 이후 단계에서 출판물이 미완성이거나 작동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보존도서관에서는 새 자료로 무료 교체할 수 있다.
- 영수증의 발급은 똑같은 절차를 적용하고, 자료의 외부면을 확인하고, 수납번호를 부여하고 및 대금청구절차를 알려준다.
- 규모가 큰 온라인 출판물을 위해서는 오프라인형태로 납본을 요구할 것인지 온라인 형태로 납본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출판물에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모든 딸림자료/ 자료를 접근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납본하도록 요청한다.

- 출판물과 같이 공급되는 개인소유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모두를 납본하도록 요청한다.
- 모든 출판물이 양질인지 및 기능이 확실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 외견상 하자가 있는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 자료가 내용상 문제가 없는지, 딸림자료가 완전한지를 확인한다.
  - 자료가 원하는 포맷 혹은 매체에 수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자료가 특수한 기술적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 자료에는 저작권보호장치가 없어야 한다.
  - 자료에는 암호장치가 없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에 바이러스 침투가 없어야 한다.
- 자료에 만족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 납본도서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 자료가 보존을 목적으로 다른 매체에 전송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문서로 남겨둔다.
- 보존을 목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자료전체를 다운로딩해야 한다면 우선 소단위 데이터의 다운로딩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 기술적으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술적 환경, 어떤 결함이나 기능적인 불완전함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둔다.
- 각 자료의 원주인을 표시해두어 미래의 이용자가 납본될 당시의 원출판물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 자료에 접근과 사용조건에 관한 협정서를 출판자와 함께 준비해서 계약한다.
- 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제삼자로부터 출판자가 획득한 권리라도 보존도서관이 자료를 납본받아 납본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엑세스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저지하지 않는다.

부 록 G : 저장 – 고려해야 할 사항

- 전자출판물을 납본자료 보존도서관에 저장해야 한다.
- 납본자료 보존도서관내에 딸림자료들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서 관리옵션 평가실험실시, 저장에 소요되는 비용, 접근 선택점을 생각해 둔다.

-기대되는 사용량
-안전에 필요한 준비사항(예: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후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접근을 하게 할 것인지, 직원이 자료를 대출해주고 반납을 받아 조치를 할 것인지 등이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저작권자가 작성해놓은 조건이 있는지(예: 네트웍으로는 자료접근이 안된다던지, 구사양이 된 전자출판물을 별도로 보관할 것인지)

- 납본된 모든 데이타는 한 개 혹은 그이상의 표준화된 포맷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출판자들이 특정포맷으로 적은 양을 발행하도록 허락을 해줄 것인지
  -출판자들이 표준포맷으로 자료를 변환하는 것을 허락해줄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많은 형태의 포맷보다 한가지 형태의 포맷으로 저장하는 것이 자료를 유지, 보존하는데 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는지
-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료가 저장이 되고 있는지. 바람직한 온도와 습도는 다음과 같다
  -마그네틱 매체 : 18℃ 35~40%
  -광학매체 : 18~22℃ 40~45%

부록 H : 보 존 - 고려해야 할 사항

- 장기적으로 디지털자료를 보존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자료의 출판매체가 세월이 지나면 이미 노후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환경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은 모두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원자료의 호환성과 다이내믹성 그리고 표상적인 면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야 한다.
- 전자출판물의 내용이 1차자료의 형태로 전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이는 자료가 정적인 자료가 되거나 상호호환성이 없는 자료로 변환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양질의 종이나 혹은 은-할로겐 마이크로형태에 복사를 하여 보존하도록 한다.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구식이 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들어오는 자료를 수시로 새로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전환시킨다.

-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시스템의 도입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어떠한 자료가 예외적으로 원기술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자료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고용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알아두어야 한다.
- 전자출판물에 함께 있어야 하는 문서는 보존해 둔다.
- 자료가 영구히 보존되어야 하는지, 한정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지, 폐기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토주기를 세워둔다.

논문 투고 안내

1. 「도서관」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술적 또는 실용적으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도서(학위논문 포함), 연속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논문의 종류**는 연구논문, 번역논문으로 한다.
3.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그 원고가 당관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4. **논문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립중앙도서관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로 한다.
6. **투고 요령**

1) 제 출 처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
2) 부　　수 : 원본 1부, 사본 2부 및 디스켓을 제출한다.
3) 표　　지 : 논문 제 1면에 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국·한·영문으로 표기하며, 주소·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한다.
4) 초　　록 : 영문으로 작성하되,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5) 원고작성 : 한글 완성형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2선 간격(double space)으로 작성하고 20매를 한도로 한다.
6) 논문구성 : 영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한다.
7) 번역논문 : 번역한 논문인 경우에는 원본을 첨부한다.
8) 그　　림 : 그림은 이미지파일(GIF, JPG, PCX, BMP, WMF)로 제출하시거나 트래이싱페이퍼 또는 백지에 깨끗이 그리시기 바람 (그림이 전단(가로 14cm)크기 이상일때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 글자의 크기를 알맞게 선정)
9) 참고문헌 :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한글문헌에 이어 외국문헌을 기재하고 본문의 문헌소개는 "어깨번호"로 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헌은 본문에 저자를 소개할 수 있다.
10)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할 수도 있다.
11) 별쇄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필요 부수는 논문 표지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다.
12) 편집상의 모든 연락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로 한다.

▶ 전 화 : 5900-634
▶ FAX : 5900-650
▶ 주 소 : 우)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번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

〈국립중앙도서관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

위 원 장 : 이경구(국립중앙도서관 열람관리부장)
부위원장 : 이숙현(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장)
위　　원 : 곽동철(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권재윤(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장)
김승환(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종근(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장)
성기주(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신인용(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장)
이귀원(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장)
이치주(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 <이상 "도서관" 분과위원>
김효순(인천부평도서관 관장)
여위숙(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사서사무관)
이수은(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 사서사무관)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이상 "도서관계" 분과위원>

[비매품]

계 간 **도서관** 제55권 제 3 호
통 권 제356호

2000년 9월 28일 인쇄
2000년 9월 30일 발행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전 화 : 5900-634 팩 스 : 5900-650
웹사이트주소 : http://www.nl.go.kr
인쇄처 : 신유문화사

Quarterly DOSEOGWAN
Vol. 55 No. 3
Autumn 2000

Publishing office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60-1, Panpo-dong, Seocho-gu, Seoul, Korea
Tel. 5900-634 Fax. 5900-650

문화비전 2000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

DOSEOGWAN

Vol.55 No.3(356) Autumn 2000

Scientific tasks and future directions for bibliography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Cho, Hyung-jin

A study on data mining
..... Lee, Lan-ju

A study on the cultural program of public libraries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Cho, Chan-sik
Roh, Seung-hee

A study on the history of public library movement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1960s and 1970s
..... Lee, Yeon-ok

〈References〉
Traditional communication formats : MARC is far from dead
..... Alan Hopkinson tr. by Kim, Young-kuy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 the final version, approved January 2000
..... ACRL College Libraries Section
Standards Committee tr. by Shim, Sang-soon

The legal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tr. by Lee, Sook-hyeu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